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易經』八卦의 卦名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梁 誠 義

2012年 2月



『易經』八卦의 卦名 研究

指導教授 安 在 哲

梁 誠 義

이 論文을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2月

梁誠義의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

委 員 김 중 섭 ㉠

委 員 安 在 哲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2年 2月



『易經』八卦의 卦名 研究

梁 誠 義

目 次

I. 序論

1. 研究目的과 方法1
2. 八卦2

II. 八卦의 卦名 生成

1. 乾 ☰4
 - 1) 『說文解字』의 乾字 解說4
 - 2) 『漢字源流字典』의 乾字 解說4
 - 3) 『漢語大詞典』의 乾字 解說7
 - 4) 『周易四箋』의 乾字 解說9
 - 5) 卦名 乾의 生成10
2. 坤 ☷13
 - 1) 『說文解字』의 坤字 解說13
 - 2) 『漢字源流字典』의 坤字 解說13
 - 3) 『漢語大詞典』의 坤字 解說15
 - 4) 『周易四箋』의 坤字 解說15
 - 5) 卦名 坤의 生成16
3. 坎 ☵19
 - 1) 坎卦의 物象19
 - 2) 坎字의 字形 字義 解說21
 - (1) 『說文解字』의 坎字 解說21

(2)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坎字 解說	22
(3) 『漢字源流字典』의 坎字 解說	23
(4) 『漢語大詞典』의 坎字 解說	24
3) 坎字의 字形 字義 分析	28
(1) 字形 分析	28
(2) 字義 分析	28
① 陷	29
② 卦名	29
③ 酒器	29
④ 墓穴	30
⑤ 祭壇	30
⑥ 擬聲語	31
⑦ 空乏	31
4) 卦名 坎의 生成	31
4. 離 ☲	34
1) 離卦의 物象	34
2) 離字의 字形 字義 解說	34
(1) 『說文解字』의 離字 解說	34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離字 解說	35
(3) 『漢字形義演釋字典』의 離字 解說	35
(4)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離字 解說	38
(5) 『漢字源流字典』의 離字 解說	42
3) 離字의 字形 字義 分析	43
(1) 字形 分析	43
(2) 字義 分析	44
① 離와 麗의 通用	44
❶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45
❷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45
❸ 離와 麗의 通用 要因	46
② 離와 罹의 通用	46



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47
②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47
③ 離와 罹의 通用 要因	48
③ 離와 籬의 通用	49
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49
②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49
③ 離와 籬의 通用 要因	50
4) 卦名 離의 生成	50
5. 震 ☳	55
1) 震卦의 物象	55
2) 震字의 字形 字義 解說	55
(1) 『說文解字』의 震字 解說	55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震字 解說	56
(3) 『漢字源流字典』의 震字 解說	57
3) 震字의 字形 字義 分析	57
(1) 字形 分析	57
(2) 字義 分析	58
① 雨	58
① 『說文解字』의 解說	58
②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	58
① 辰	58
① 『說文解字』의 解說	58
②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	59
③ 『漢字形義演繹字典』의 解說	60
④ 『漢字源流字典』의 解說	60
4) 卦名 震의 生成	61
6. 巽 ☴	64
1) 巽卦의 物象	64
2) 巽字의 字形 字義 解說	64
(1) 『說文解字』의 巽字 解說	64



(2) 『漢字源流字典』의 巽字 解說	64
(3)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巽字 解說	66
(4) 『漢語大詞典』의 巽字 解說	67
3) 巽字의 字形 字義 分析	68
(1) 字形 分析	68
(2) 字義 分析	68
4) 卦名 巽의 生成	69
7. 艮 ䷳	72
1) 艮卦의 物象	72
2) 艮字의 字形 字義 解說	73
(1) 『說文解字』의 艮字 解說	73
(2) 『漢字源流字典』의 艮字 解說	73
3) 艮字의 字形 字義 分析	75
(1) 字形 分析	75
(2) 字義 分析	76
4) 艮卦의 文字 生成	77
(1) 求字의 生成	77
(2) 退字의 生成	84
(3) 根字의 生成	85
(4) 限字의 生成	85
(5) 節字의 生成	85
(6) 很字의 生成	86
(7) 恨字의 生成	86
5) 卦名 艮의 生成	86
8. 兌 ䷹	88
1) 兌卦의 物象	88
2) 兌字의 字形 字義 解說	88
(1) 『說文解字』의 兌字 解說	88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兌字 解說	89
(3) 『漢字形義演釋字典』의 兌字 解說	89

(4)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兌字 解說	90
(5) 『漢字源流字典』의 兌字 解說	91
3) 兌字의 字形 字義 分析	91
(1) 字形 分析	91
(2) 字義 分析	92
4) 兌卦의 文字 生成	94
(1) 脫·蛻·稅字의 生成	96
(2) 銳·稅·硯字의 生成	96
(3) 浼字의 生成	97
(4) 悅字의 生成	97
(5) 說字의 生成	99
5) 卦名 兌의 生成	99
III. 結論	101
參考文獻	104
abstract	105

I. 序論

1. 研究目的과 方法

易에는 夏代の 連山易, 殷代の 歸藏易, 周代の 周易이 있는데 連山易과 歸藏易은 失傳되었고 周易만 傳하고 있다. 周易의 構成은 卦와 卦名과 卦辭 爻辭로 構成되어 있다. 『易經』은 周易의 卦辭와 爻辭에 孔子가 傳을 붙였다하여 일컬어지는 名稱이다. 『易經』은 『書經』·『詩經』·『禮記』·『春秋』와 함께 五經의 筆頭書로 漢代 太學의 基本教材로 修學되었다.

『易經』研究는 占書로서의 象數易과 經書로서의 義理易으로 大別되어 研究가 되었는데 한국에서의 『易經』研究는 대체로 義理易에 立脚한 哲學的 次元의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易經』을 哲學書로 認識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經』에 관한 既存의 研究는 哲學一邊倒의 研究였다. 本稿는 『易經』이 文字로 쓰인 最初의 文籍임으로 『易經』이 文字의 起源書라는 認識하에 이루어지는 研究이다.

甲骨文이 發見되기 前까지는 『說文解字』는 最初의 字典으로 文字學의 典範과 같은 구실을 하였으나 甲骨文이 發見되고 나서는 字形과 字義 면에서 『說文解字』의 解說에 대한 反論이 적지 않게 提起되고 있다. 실제로 『殷墟甲骨文實用字典』 0428번부터 0615번까지 총 187字중 『說文解字』의 本義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許說非本義’라 하고 本義를 새롭게 規定한 字가 13字이다.¹⁾ 이것은 『說文解字』가 初期漢字의 字形과 字義에 대하여 確실한 考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甲骨文은 거북점을 치고 나서 그 占의 내용을 龜甲에 새겨놓은 文字이고, 『易經』의 文字는 蓍草占을 쳐서 얻어지는 卦의 占辭이다. 거북점과 蓍草占은 국가에서 占을 칠 일이 있을 때 같이 施行되었다. 그러므로 거북점의 甲骨文과 蓍草占의 卦의 占辭는 같이 存在한 文字이다. 그렇다면 甲骨文과 같이 存在한 『易經』의 文字들은 甲骨文과 같은 初期의 字形과 字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易經』의 텍스트는 楷書로 印刷된 것이다. 그러므로 初期의 字形은 볼 수 없다. 그러나 字義면에서는 卦辭의 解釋을 통하여 初期의 字

1)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138~193면.

義를 알 수 있는 것이다. 初期의 字義를 알 수 있다면 그 글자가 어떠한 字形으로 生成되었는지도 推定해 볼 수 있다. 즉 字義는 字形으로 表記되는 것이므로 字義에 의해 字形을 類推해 볼 수 있으며, 字形에서는 文字의 創製始原을 類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八卦의 卦名을 통하여 八卦의 卦名字가 어떻게 創製되었는가를 糾明함으로써 文字가 生成되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試圖는 文字가 必要에 의해 創造되고 있는 것이므로 甲骨文을 비롯하여 古典經書에 쓰인 文字들이 어떤 뜻을 表記하기 위하여 어떤 字形으로 創製되고 쓰이게 되는 지를 認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昨今에 활발히 研究되고 있는 甲骨文에 대한 字形과 字義解釋의 바로미터의 役割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며, 漢文經書의 講讀과 漢字活用の 知識을 提高 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漢字의 起源에 관한 諸說 가운데 八卦說은 『易經』의 八卦를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漢字의 起源으로서의 八卦에 관한 文字學 側面에서의 研究는 이루어진바가 없다. 따라서 論者가 文字學 側面에서 八卦의 卦名에 대한 研究를 試圖함에 있어 先行된 研究가 없으므로 前人未踏의 길을 開拓하듯이 한발자국씩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 參考할 수 있는 文獻資料는 지극히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즉 漢字辭典과 其他 關聯文獻을 參考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漢字辭典과 關聯文獻에서의 卦名字에 대한 解說을 根據로 字形과 字義를 分析하여 八卦의 卦名 生成을 糾明해 나가하고자 한다.

2. 八卦

八卦는 『易經』의 基本的 卦이다. 八卦를 組合하여 만들어진 것이 『易經』의 總體的인 卦인 六十四卦이다. 이 八卦에 대하여 『易經·繫辭傳』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고대에 포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구부러 땅의 법도를 살피고, 조수의 문양을 살펴보고, 세상에 적합하도록 살펴서,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서는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팔괘를 지으니, 이로써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본성대로 유별되었다.”²⁾

“역에는 태극이 있다, 이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괘가 이루어진다.”³⁾

『易經』의 卦形은 陽의 符號인 ☰와 陰의 符號인 ☷을 바탕으로 한다.

이 ☰陽과 ☷陰을 兩儀라 한다. 이 兩儀에서 비롯되어 ☰陽과 ☷陰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 4개의 卦形을 이루는데,

陽이 두 개인 ☰太陽,

陰이 두 개인 ☷太陰,

下位가 陽 上位가 陰인 ☱少陰,

下位가 陰 上位가 陽인 ☲少陽, 이 네 개의 卦形을 四象이라 한다.

이 四象에 ☷陰과 ☰陽이 덧붙여져서 八卦패를 이루는데 그 組合은,

☰太陽에 다시 ☰陽을 더한 것이 陽이 셋인 ☰乾이고,

☷太陰에 다시 ☷陰을 더한 것이 陰이 셋인 ☷坤이고,

☱少陽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坎이고,

☲少陰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離이고,

☱少陽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震이고,

☲少陰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巽이고,

☷太陰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艮이며,

☰太陽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兌이다.

나열하면 ☰乾 · ☷坤 · ☱坎 · ☲離 · ☱震 · ☲巽 · ☷艮 · ☰兌 이다.

또한 ☰陽 과 ☷陰 兩儀에서, 四象, 八卦에 이르기까지 각 卦形마다 붙여진 名稱이 그 卦形의 固有名詞 이다.

이 八卦가 漢字의 起源에 관한 諸說 가운데 하나인 八卦說의 八卦인 것이다.

2)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076면).

3)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057면).



II. 八卦의 卦名 生成

1. 乾 ☰

1) 『說文解字』의 乾字 解說

乾은 위로 나오는 것이다. 乙을 따르는데, 乙은 식물이 땅 밑에서 地面위로 나오는 것을 나타내며, 乾聲이다. 𩇛은 乾의 籀文이다.⁴⁾

2) 『漢字源流字典』의 乾字 解說

乾

【字形】籀文 𩇛 篆文 𩇛

【構造】회의겸 형성자.⁵⁾ 주문은 乙을 따르고(을은 새싹이 흙을 헤치고 나오는 모습이다), 乾을 따랐다(해가 떠오르고 깃발이 나부끼다), 을과 간이모여서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간은 성부를 겸하여 표시한다. 전문에서는 단정한 문자로 변화되었다. 예서의 변화를 거친 후 해서에서 乾으로 쓰게 되었다.

【本義】《설문·부》: "건, 위로 나오는 것이다. 을을 따랐다, 을은, 식물이 지면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다. 간성이다." 본의는 위로 나오다. 솟아나다.

【演變】1. /qian/ 본의는

①위로 나오다, 솟아나다 이다. 초목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이 자강불식하는 모양으로 강건하게 나오는 것이다.

②'위로 나오다'에서 전용되어 《주역》 팔괘의 하나. 에 쓰였다. 괘형은 세 개의 양획으로 ☰이다 또 64괘의 하나이다, 괘형은(☰건하☰건상)이다. 하늘을 象徵한다: 《주역·건괘》: "《상》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다, 군자는 이를 본

4) “乾 上出也 從乙 乙 物之達也 乾聲 渠焉切 又古寒切 𩇛籀文乾”(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08면).

5) 一般的으로 兼聲會意字로 부르고 있으나 『漢字源流字典』에서 會意兼形聲字라 하여서 原文대로 解釋하였다.

받아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 | 《단》에 이르기를: 크도다! 하늘이여! 만물이 이곳에서 비롯되니 곧 하늘이 모든 것을 통할하도다. | 하늘과 땅.

③다시 인신되어서 군주를 가리키는 뜻으로 인신의 되었다: 군주의 덕은 넓고 훌륭하며, 온화하고 예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존귀함인 것이다.

④다시 인신 되어 남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인신의 되었다: 건의 도는 남성을 이루고, 곤의 도는 여성을 이룬다. | 혼인 중에 남편을 가리키고, 신랑 쪽의 집을 가리킨다.

⑤건은 방위상 서북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북방을 가리키는 뜻으로 인신의 되었다: 감천에서 태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위치가 서북방이 됨이다.

⑥또 연호로 쓰였다: 乾元(唐肅宗年號) | 乾道(宋孝宗年號) | 乾隆(清高宗年號)

⑦지명으로 쓰였다: 乾縣(在陝西省咸陽市) | 乾安(在吉林省白城市).

2. /gān/ 위로 나오다. 에서 다시 인신 하여 표시되는 것으로

⑧건조하다. 고갈하다. 목이 쉬다. 친척. 태만. 난감하다. 헛되다. 거짓의 등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류의 뜻은 현재 간화 되어 “干”으로 표시하고 있다.⁶⁾

『漢字源流字典』의 乾字에 대한 字形構造와 字義 에 대한 설명에 誤謬가 있는듯 하여 이에 대하여 몇 가지 指摘하고자 한다.

첫째는 字形構造와 本義에 대한 것이다.

이 字典에서는 乾字의 構造를 ‘ㄱ’과 ‘乙’ 로 構成된 會意兼 形聲字⁷⁾로 規定하면서 本義는 『說文解字』의 뜻을 그대로 따라 ‘위로 나오다 · 솟아나다’ 로 本義를 삼고 있다. 『說文解字』에서 乾字는 形聲字이다. ‘ㄱ’은 聲符이고 ‘乙’은 義符이다. 따라서 乙部에 속한다. ‘乙’의 字義가 ‘식물이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乙’의 字義를 따라 ‘乾’의 字義가 ‘위로 나오다’가 된 것이다.

6) “【構造】會意兼形聲字。籀文從乙(芽破土而出),從ㄱ(日出旗揚),會上出之意,ㄱ也兼表聲。篆文整齊文字化。隸變後楷書寫作乾。【本義】《說文·乙部》:“乾,上出也。從乙,乙,物之達也,ㄱ聲。”本義爲上出,冒出。【演變】1. qian 本義爲① 上出,冒出,草木出土乾乾然強健也。由上出,借用作②《周易》八卦之一。卦形爲☰也用作六十四卦之一,卦形爲(乾下乾上),象徵天:《易·乾》:“《象》曰: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象》曰: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 | 乾坤。又引申指③君主:乾德博好,文雅是貴。又引申代表④ 男性:乾道成男,坤道成女 | 乾造(婚姻中稱男方) | 乾宅(婚姻中稱男家)。乾爲西北之卦,故又代表⑤ 西北方:祠太一于甘泉,就乾位也。又用作⑥ 年號:乾元(唐肅宗年號) | 乾道(宋孝宗年號) | 乾隆(清高宗年號)。又用于⑦ 地名:乾縣(在陝西省咸陽市) | 乾安(在吉林省白城市)。2. gān 由上出,又引申表示⑧ 干燥:枯竭 干澁嘶啞:干親 怠慢,使難堪 徒然,虛假地等含義。此類含義如今簡化借“干”來表示。”谷衍奎 編,『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198면.

7) 一般的으로 兼聲會意字로 부르고 있으나 『漢字源流字典』에서 會意兼形聲字라 하여서 原文대로 解釋하였다.

本義를 『說文解字』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면 字形의 構造도 『說文解字』를 따라 形聲字로 規定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會意兼 形聲字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兼聲會意字에 대한 認識에 誤謬가 있는 듯하다. 즉 六書의 例에서 兼聲會意字일 경우, 左右로 異體文字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右側의 文字가 聲符를 檢한다.⁸⁾ 즉 乾字를 兼聲會意字로 볼 경우 左側에 있는 ‘軛’이 聲符가 되는 것이 아니라 右側의 ‘乙’이 聲符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六書의 例에 따른다면 乾字는 현재의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건’으로 讀音될 것이 아니라 ‘을’로 讀音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本義가 ‘위로 나오다 · 솟아나다’ 라고 하였는데 이 本義가 쓰인 例文이 없다. 例文이 없다는 것은 乾字가 ‘위로 나오다 · 솟아나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둘째는 引申義에 대한 것이다.

『漢字源流字典』의 【演變】에서 ②번 항은 ‘위로 나오다’에서 전용되어 『周易』의 乾卦의 名稱으로 전용되었다고 하였고, ②번 항에서 ③번 항으로 引申되어 ⑧번 항까지 再引申되고있는데, ③에서 ⑧까지의 引申義를 보면, ③은 ‘군주’ ④는 ‘남성’ ⑤는 ‘서북방’ ⑥은 ‘연호’ ⑦은 ‘지명’ ⑧은 ‘건조하다. 고갈되다. 친척.’ 등이다. 字義分化的 類型은 假借 · 引伸 등이 있는데, 引申義는 本義와 意味的 相關性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확대 變遷된 뜻이다.⁹⁾ 그런데 ③에서 ⑧까지의 引申義를 보면, 本義와 는 意味的 相關性이 없을뿐더러 바로 이어져 引申되는 引申義도(④ ‘남성’ ⑤ ‘서북방’) 서로 連繫되는 意味的 相關性이 전혀 없다. 이것은 字形構造에 대한 誤謬에 이어 字義에 대한 誤謬이다. 【演變】에서 引申義라고 한 ⑥의 ‘연호’와 ⑦의 ‘지명’을 제외한 ③ ‘군주’ ④ ‘남성’ ⑤ ‘서북방’ ⑧ ‘건조하다·고갈되다·친족’의 字義는 引申義가 아니라 乾卦에 內在된 物象 이다. 그리고 年號와 地名은 引申되어 變遷된 字義가 아니라 固有名詞이다. 본 字典에서 이러한 誤謬를 省하고 있는 것은 乾字가 乾卦의 卦象에서 造字되어 나온 文字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乾字의 다양한 뜻이 乾卦에 內포되어 있는 物象에서 나오는 뜻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省하고 있는 誤謬라 할 수 있다. 『漢字源流字典』에 열거된 乾字의 字義 이외에 ‘☰乾’이 내

8) “諠는 言+宜의 會意字인데, 이 중에 宜는 뜻을 나타냄은 물론 성부 구실을 겸하며, 鉤 역시 金+句의 회의자 이나, 句는 굽은(曲)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聲을 檢한다.”와 같이 회의자의 우측의 문자가 성부를 檢한다.(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27면).

9) “인신이란 어느 자의가 본뜻으로부터 의미적 상관성을 매개로 다른 뜻으로 확대 발전한 현상을 말한다.”(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27면).

포하고 있는 物象은, 하늘, 임금, 부(父), 종족(宗族), 손님, 머리, 말, 쇠, 옥, 나무열매, 둥근 것, 얼음, 검붉은 색, 강건함, 전(戰) 등을 담고 있다.¹⁰⁾

3) 『漢語大詞典』의 乾字의 解說

乾 ① [gān<< 弓] [《廣韻》古寒切, 平寒, 見.]

1. 수분이 없거나 또는 수분이 매우 적은 것; 수분을 제거 하다.
2. 물을 쓰지 않는 것.“건세”, “건욕”을 볼 것.
3. 가공된 건조식품. 비스킷. 건포도 등.
4. 공허하다. 다하다.
5. 헛되이. 공연히. 쓸데없이.
7. 까닭이 없다.
7. 유명무실한 명의상의.
8. 소리가 높고 맑은 것을 형용.
9. 서법용어. 행묵에서 광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방언. 먼전에서 화를 내어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말.
11. 방언. 소홀히 대접하다. 냉대하다.

乾 ② [qián<< 一弓] [《廣韻》渠焉切, 平仙, 群.] 亦作“乾”.

1. 《역》 괘명. 팔괘의 하나이며 ; 또 육십사괘의 하나이다.

《역·건》：“《건》, 원, 형, 리, 정.”

공영달 소：“건은, 이 괘의 名稱이다.”

남조 양 유협 《문심조룡·려사》：“《건괘》에서 원, 형, 이, 정 의 한 단락은 구와 구를 대구 시켜 말한 것이다. .”

노신 《차개정잡문·문외문담》：“혹자가 말하기를 복희의 팔괘에서, 세 가닥의 끈이 일조가 되어, 어떤 가닥에도 묶음이 없는 것이 《건》이고, 세 가닥의 끈 가운데를 각각 묶은 것이 《곤》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가?”

2. 양. 곤과 상대되는 것이다.

《역·계사하》：“건은, 양을 대표 하고 ; 곤은, 음을 대표 한다.”

10) 朱子 原著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53~670면.

3. 하늘을 가리킨다. 《역·설괘》 : “건은, 하늘이다.”

《예석·로상사신사공묘주명》 : “높고 광대함이며, 무엇이 하늘과 더불어 숭고함을 비교하리오.”

진 갈홍 《포박자·인명》 : “해 달 별로 象徴을 드리우는 것이 하늘이다, 두터움으로 만물을 실음에 다함이 없는 것이 곧이다.”

남조 제 왕좌 《두타사비문》 : “하늘의 뜻에 따라 가고 머물렀으며, 백성의 뜻을 좇음으로 시종하였네.”

4. 태양을 가리킨다.

5. 군왕을 가리킨다. 《역·설괘》 : “건은 군왕이 된다.”

6. 군왕의 자리를 가리킨다.

남조 량 심약 《서석상명》 : “우리 황제께서 몸과 정신을 극으로 통어 하시고, 제위를 사양하시다 군왕의 자리에 임하셨네.”

송 소식 《집영전춘연교방사》 : “삼가 황제폐하를 생각할 때, 군위에 오를 때는 작위가 있었으나, 등극하신 후에는 사사로움이 없었다.”

태평천국 장문영 《건천경어김릉론》 : “하늘은 진정한 군주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위에 오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왕의 제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7. 아버지를 가리킨다. 《역·설괘》 : “건은 아버지가 된다.”

송 장재 《서명》 : “건은 아버지를 칭한다.”

8. 장부를 가리킨다.

9. 남성을 가리킨다. 《역·계사상》 : “건의 도는 남성이다.”

10. 강건 자강불식. 《역·설괘》 : “건은, 강건함이다.”

송 손혁 《리재시아편·총설·천제》 : “건강하고 쉽이 없는 것이, 건이다.”

《청사고·세조기이》 : “짐이 아침에는 자강불식하고 저녁에는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의 보우하심을 기원함이다.”

11. 말을 가리킨다. 《역·설괘》 : “건은 말이 된다.”

12. 서북쪽 방위를 가리킨다. 《역·설괘》 : “건은, 서북의 괘이다.”

북위 역도원 《수경주·곡수》 : “곡수가 기울어 지면서, 좌측으로 북천의 물과 합류한다. 물이 두 개의 근원이 있는데. 북산을 돌아, 동남으로 흘러, 합쳐져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서북으로부터 동남으로 흘러 곡수로 들어온다.”

13. 오후 여덟 시에서 열 시까지를 가리킨다.

《구당서·여재전》：“장서에 의거하여, 건시와 간시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한 밤중에 가까운 것이니, 이것은 문적과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

14. 성. 당대에 건언사 라는 사람이 있었다.¹¹⁾

『漢語大詞典』의 乾字의 내용은 /gān/과 /qián/ 두 부분으로 나누어 字義를 설명하고 있다. /gān/은 干字를 讀音할 때 주로 發音 되고, /qián/은 乾字를 讀音할 때 주로 發音 된다. /gān/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字義를 설명하고 있고, /qián/은 『易經』의 乾卦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乾’과 ‘干’을 簡化字에서 ‘干’으로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乾’을 ‘干’의 번체자라 하고 있으며, 易을 表記할 때는 ‘乾’을 ‘干’으로 表記하는 일은 없다, 또한 /gān/에서 설명 되고 있는 字義도 純陽卦인 ‘☰ 乾’의 陽氣의 本源的 屬性인 ‘건조함’의 뜻을 根幹으로 字義를 分化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乾字의 原流가 『易經』이 되고 있는 것이 『漢語大詞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周易四箋』의 乾字 解說

乾者氣也. 古篆氣作  作  又作  作 . 卓者  ·  之轉隸也. 古文氣早二字, 皆作 . 乞者  ·  之轉隸也. 篆又作 . 此以卦爲字也.

11) “乾① [gān < 弓] [《廣韻》古寒切, 平寒, 見.] 1.沒有水分或水分很少;使失去水分.” 2.不用水的.見“乾洗”、“乾浴”. 3.加工制成的干的食品.如餅干、葡萄干. 4.空虛;竭盡. 5.徒然, 白白地. 6.沒來由. 7.有名無實的;名義上的. 8.形容聲音清脆響亮. 9.書法用語.謂行墨失去光澤. 10.方言.當面說氣話使人難堪. 11.方言.慢待, 冷落.” 乾② [qián < 一 弓] [《廣韻》渠焉切, 平仙, 群.] 亦作“軋”. 1.《易》卦名.八卦之一;又, 六十四卦之一.《易·乾》:“《乾》, 元、亨、利、貞.”孔穎達疏:“乾者, 此卦之名.”南朝梁劉勰《文心雕龍·麗辭》:“序《乾》四德, 則句句相銜.”魯迅《且介亭雜文·門外文談》:“或者那正是伏羲皇上的‘八卦’之流, 三條繩一組, 都不打結是《乾》, 中間各打一結是《坤》罷?” 2.陽.與“坤”相對.《易·繫辭下》:“乾, 陽物也;坤, 陰物也.”參見“乾坤”. 3.指天.《易·說卦》:“乾, 天也.”《隸釋·魯相史晨祠孔廟奏銘》:“巍巍蕩蕩, 與乾比崇.”晉葛洪《抱朴子·仁明》:“三光垂象者, 乾也, 厚載無窮者, 坤也.”南朝齊王中《頭陀寺碑文》:“應乾動寂, 順民終始.” 4.指日, 太陽.見“乾曜”、“乾坤”. 5.指君王.《易·說卦》:“乾爲君.”參見“乾心”、“乾景”. 6.指君位.南朝梁沈約《瑞石像銘》:“我皇體神御極, 挹睿臨乾.”宋蘇軾《集英殿春宴教坊詞》:“共惟皇帝陛下, 乘乾有作, 出震無私.”太平天國張文英《建天京於金陵論》:“天既生眞主以乘乾, 自必扶天王以定鼎.” 7.指父親.《易·說卦》:“乾爲父.”宋張載《西銘》:“乾稱父.”參見“乾蔭”. 8.指丈夫.見“乾綱”. 9.指男性.《易·繫辭上》:“乾道成男.”參見“乾造”. 10.剛健;自強不息.《易·說卦》:“乾, 健也.”宋孫奕《履齋示兒編·總說·天帝》:“健而不息者, 乾也.”《清史稿·世祖紀二》:“朕朝乾夕惕, 冀迓天休.”參見“乾乾”、“乾健”. 11.指馬.《易·說卦》:“乾爲馬.”參見“乾矢”. 12.指西北方位.《易·說卦》:“乾, 西北之卦也.”北魏酈道元《水經注·穀水》:“穀水側歷, 左與北川水合.水有二源.并導北山, 東南流, 合成一水, 自乾注巽入於穀.” 13.指午後八至十時.《舊唐書·呂才傳》:“若依葬書, 多用乾、艮二時, 并是近半夜, 此即文與禮違.” 14.姓.唐有乾彥思.”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1349頁.

(乾은 氣이다. 古篆에서는 "氣"를 "𠄎"로 쓰기도 하고, "𠄎"로 쓰기도 하였으며, 또는 "𠄎"로 쓰기도 하고 "氣"로 쓰기도 하였다. "阜"는 "𠄎"와 "氣"가 隸書에서 "阜"로 바뀐 것이다. 古文에서는 "氣"와 "阜" 두 자가 모두 "氣"로 되어있다. "乞"은 "𠄎"와 "𠄎"가 隸書에서 '乞'로 바뀐 것이다. 篆에서는 또한 "𠄎"로 썼는데, 이것은 卦로써 文字를 삼은 것이다.)¹²⁾

『周易四箋』의 解說은 茶山の『周易四箋·乾卦』의 註釋이다. 이 註釋을 보면 '乾'을 形成하고 있는 '阜'와 '乞'의 字源이 모두 "𠄎"와 "𠄎"로 같은 氣字이다. 그러므로 '乾'은 "𠄎"와 "𠄎"를 左右로 나란히 붙여 놓은 글자인 셈이다. '乾'은 氣라 하였다, 氣는 陽의 物象이다. 乾卦의 文樣인 ☰은 純陽으로 氣의 表象이다. 그래서 茶山은 易의 陰陽論理와 文字의 考證을 들어 乾卦의 文樣이 文字化 되어 卦名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 註釋하고 있다.

5) 卦名 乾의 生成

『易經』은 陰과 陽을 基本概念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陰陽은 모든 物·事의 根幹이 된다. 이 陰과 陽을 符號로 나타낸 것이 --陰과 —陽이다. 따라서 —陽으로만 上下로 三劃이 쌓여있는 ☰이 純陽卦인 乾卦이다. '乾'은 卦名字이다. 이 乾字가 卦의 文樣인 ☰이 文字로 만들어져 卦名字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茶山이 『周易四箋』에서 말하고 있는 '卦의 文字說'이다.

乾卦의 卦象은 세 개의 陽劃인 ☰이다. '氣'의 甲骨文 字形이 '𠄎'이다.¹³⁾ 즉 乾卦의 卦形 ☰과 '氣'의 모양이 같다는 말이다. 또한 ☰과 '氣'는 意味도 같다. '氣'의 字義가 '기운·대기·공기'이다. ☰이 內包하고 있는 物象도 '기운·대기·공기'이다. 甲骨文에서는 乾卦의 세 개의 橫線 ☰을 그대로 文字로 썼으나 후에 숫자 '三'과의 區別을 위해서 字形이 '氣'로 變形되었다. '氣'의 字義 중에 '雲氣'라는 뜻은 『說文解字』

12)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三十七卷○周易四箋卷一 [諸卦] ○第一卦.

13) "氣 字象氣流游動之形.本義是云氣.《說文》：“氣, 云氣也.象形.” 氣與三字形有別.“氣”三橫之中, 中間一橫短于上下之橫 “三”, 三橫長短相等.(기 글자의 모양이 기류가 유동하는 형상이다. 본의는, 운기이다. 《說文》：“기, 운기이다.상형자이다.” 氣와 三자는 자형이 다르다. “氣”는 세 개의 횡선 가운데, 중간에 있는 하나의 횡선이 상하의 횡선 보다 짧다 “三”은, 세 개의 횡선 길이가 모두 같다.)”(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20면).

의 뜻이다. 대부분의 字典에서 ‘气’의 字義는 ‘雲氣’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說文解字』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雲氣’는 陰陽의 造化 속에 나타나는 代表的인 象徴物이다. 물은 液體이다. 이 液體가 굳어지면 얼음이 되고. 이 液體가 氣化되면 ‘雲氣’가 된다. ‘雲氣’의 意味는 “기상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 공중으로 떠오르는 기운”¹⁴⁾이다. 陰陽의 論理는 相對的 理論이다. 陰은 濕하고, 濁하고, 무거운 성질을 나타내고, 陽은 건조하고, 맑고, 가벼운 성질을 나타낸다. 이러한 陰陽의 屬性을 바탕으로 物·事의 形質을 분석하여 陽에 속하는 것과 陰에 속하는 것을 分類하고 陰에속한 것과 陽에 속한 것이 相互 交流되고 作用되면서 이루어지는 物·事의 萬狀을 說明하는 것이 易이다. ‘雲氣’는 곧 陽의 形質이다. 오늘날 甲骨文字典이나 漢字의淵源을 밝히는 字典類의 바탕이 되는 것이 『說文解字』이다. 여러 漢字字典의 乾字에 대한 설명 내용은 대부분 『說文解字』를 根據로 삼고 있다. 『說文解字』에서의 乾字는 乙部에 속한 形聲字이다. 즉 從乙 軌聲으로 字義는 ‘上出(위로 나오다)’이다. 義符인 ‘乙’을 따른 字義이다. ‘乙’은 봄에 초목이 땅속에서 지면을 뚫고 나와 떡잎이 아직 구부러진 모양을 나타낸 象形字이다.¹⁵⁾ 한편 聲符인 ‘軌’은 從旦 旡聲의 形聲字이다. 字義는 義符인 旦을 따라 “日始出光軌(해가 막 떠올라 빛을 발하다)”¹⁶⁾이다. 『易經』의 八卦에는 각 卦마다 內包하고 있는 物象이 있다. 乾字의 義符인 ‘乙’은 草木이 땅에서 움트는 것이다. 草木의 生長에 관한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땅의 卦인 坤卦에 해당된다.¹⁷⁾ 그리고 聲符인 ‘軌’의 뜻인 ‘해가 뜨고 빛을 비추는 것’은 離卦에 해당된다. 離卦가 태양과 밝음과 빛을 내포하고 있는 卦이다.¹⁸⁾ 卦名은 卦體와 卦德으로 卦名의 뜻을 삼는 것이다.¹⁹⁾ 卦體는 陽劃과 陰劃으로 이루어지는 卦의 形態를 말하는 것이며, 卦德은 그 卦의 機能과 品格으로 卦體에 內包되어 있는 物象을 말한다. 그러므로 卦名으로서의 ‘乾’에는 乾卦의 物象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說文解字』의 ‘乾’에 대한 내용에는 乾卦가 象徴하고있는 物象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乾’의 構造에 대해 다른 視角으로 分析해볼 필요가 있다.

14) 『엠펬스국어사전』, 민중서림, 1996, 1723면.

15) “象春艸木冤曲 而出陰氣尙彊 其出乙 乙也 與 丨 同意 乙承甲象人頸 凡乙之屬皆從乙 於筆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08면).

16) “軌 日始出光軌軌也 從旦旡聲 凡軌之屬皆從軌 古案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40면).

17) “象曰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57면.)

18) “離 爲火 爲日 爲電… ….”(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70면.)

19) “以卦體卦德釋卦名義.”(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496면.)

즉 ‘乾’의 字形에서 왼편은 ‘車’로 오른편은 ‘乞’로 구분하여 보면 오른편의 義符가 ‘气’가 된다. ‘乞’와 ‘气’는 甲骨文과 金文에서는 같은 글자이다.²⁰⁾ ‘气’의 原形이 ‘𠄎’이니 ‘𠄎’은 乾卦의 卦形인 ䷀이다. 다만 왼편의 車는 茶山이 古篆에서 ‘气’字라 하였으므로, ‘乾’은 ‘气’와 ‘车’가 合體된 同體二字의 會意字가 되는 것이다.

茶山은 『周易四箋』에서 乾卦의 卦名 ‘乾’이 卦로써 글자를 삼은 것이라 하였고, 그리고 朱子도 『朱子語類』에서 이르기를,

“乾坤 이 두 글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易을 만든 자가 특별히 만들어서 이 글자로 易의 道를 밝혔다. … …乾坤은 오로지 卦의 名稱이다.”²¹⁾ 하였다.

文字라는 것이 約束된 記號라고 한다.²²⁾ ䷀은 卦의 文樣으로서 形이고, 그 形속에 義인 物象이 內包되어 있다. 즉 ䷀은 約束된 記號로서 字形과 字義가 있는 셈이다. 乾卦가 卦의 文樣인 ䷀으로 사람들에게 두루 認識되고 있고, ䷀이 그 모양대로 文字化될 수 있다면, ䷀으로 文字를 만들고 그 文字로 이름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乾’에 대한 字形 字義 分析과 考證에서 드러났듯이 ‘乾’은 乾卦의 文樣인 ䷀이 文字化되어 乾卦의 卦名字로 生成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 “甲骨文和金文“乞”與“气”同.”(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45면).

21) “乾坤, 古無此二字. 作者特立此以明道, 如何? … …乾坤只是卦名.”(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5, 1683면).

22) “문자란 인간이 일정한 약속에 따라 점이나 선을 조합하여 특정의 언어세계에서 만들어진 시각적 기호(부호)라 할 수 있다.”(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1면.)

2. 坤 ☷

1) 『說文解字』의 坤字 解說

坤은 땅이다. 易의 卦이다. 土와 申을 따랐다. 土의 方位가 申方에 있다. 苦昆반절이다.²³⁾

『說文解字』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易經』의 ‘坤’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字義가 땅이고, 卦이며, 申方에 ‘土’ 즉 坤卦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등, 모두 『易經』의 내용이다. 申方은 서남쪽을 가리키는 方位 名稱이다. 여기서 ‘申’은 12支의 申字이다. 方位의 名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12支의 名稱으로는 正北方을 子, 正南方을 午, 正東方을 卯, 正西方을 酉라고 하고, 각 方位의 사이에 나머지 12支의 名稱이 들어간다. 이 때 ‘申’이 들어가는 方位가 西南方이다. 한편 『易經』의 八卦에서도 方位를 나타내는데 正北은 坎卦, 正南은 離卦, 正東은 震卦, 正西는 兌卦이고, 각 間方에 나머지 卦가 배치되는 데 西南에 배치되는 卦가 坤卦이다. 이것이 ‘土位在申’인 것이다. 이렇듯 『說文解字』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易經』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漢字源流字典』의 坤字 解說

坤

【자형】 전문 𡗗 .

【구조】 회의자. 전문은 토를 따르고, 신을 따랐다(신은 번갯불을 타나낸다). 《설문》의 견해는 토가 신방에 위치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곤은 땅을 표시한다. 그런데 자형을 미루어 그 의미를 유추해보면 우레와 번개가 내려쳐 지면에 뺨치는 것을 나타낸 것이 곤이라 할 수 있다. 예변 후 해서에서 곤으로 썼다. 이체자로 𡗗이 있는데, 방을 따른다(방은 땅을 파는 삽이다), 역시 땅을 팔 때 땅속으로 삽이 뺨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은 규범화 되어, 坤이 정체가 되었다, 𡗗은 人名字로만 쓴다.

【본의】 《설문·토부》: “곤은, 땅이다, 《역》의 괘이다. 토를 따르고, 신을 따랐다, 토의 方位가 신방에 있다.” 본의는 《주역》 팔괘의 하나이며, 卦형은 ☷이다; 또한 육십사괘의 하나

23) “坤 坤 地也. 易之卦也. 從土從申, 土位在申. 苦昆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86면).

로, 괘형은 ☷(곤하곤상)이다, 땅 및 음성적이고 유순한 성질의 사물 일체를 대표한다.

【연변】 본의는

- ① 《주역》의 팔괘의 하나이고 또한 육십사괘의 하나이다: 《단》에 이르기를: 지극하도다 곤의 으뜸 됨이여 만물을 내고 기르며 하늘의 뜻을 이어 이에 순응하도다. | 곤은, 땅의 도이고, 아내의 도이고, 신하의 도이다, 인신되는 뜻은
- ② 토지, “乾”과 상대적인 뜻이다: 옛적 저 땅의 신이 하늘과 더불어 합작하였다 | 건곤의 바뀌었다. 《역·계사상》: “곤의 도는 여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다시 인신되어 여성을 대표 한다
- ③ 여성: 양소귀인이 황제이 배필로 적합하오니 황후의 위를 바르게 하소서 | 여자용 손목시계 | 여성용 백 | 여성용 마차 | 여배우 | 여성의 지녀야할 덕 | 신부의 집. 고대에는 팔괘로 방위를 정하였다, 그래서 인신된 뜻이
- ④ 서남방이다: 우리는 본시 방랑인 이라, 서남방에서 잠시 머무르네. 이체자인 “埴”은, 많이 쓰이는 것이
- ⑤ 남성의 이름자이다.²⁴⁾

『漢字源流字典』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說文解字』와 小篆의 字形을 달리 채택한 것이 외에는 내용은 『說文解字』를 따르고 있다. 本義는 『說文解字』의 本義대로 『易經』의 八卦 및 64卦의 하나라 하였고, 本義의 例文을 坤卦의 象辭를 引用하면서, 땅 · 여성 · 서남방 등의 字義를 引申義라 하였는데 모두 坤卦의 物象²⁵⁾들이다. 즉 땅 · 여성 · 서남방 등의 뜻은 坤卦의 象辭에서 引申義 된 것이 아니라, 坤卦에 內包되어 있는 物象들이다. 이 외에는 다른 字義가 없으니 『漢字源流字典』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오로지 坤卦를 설명하는데 그친 것이 되었다.

24) “坤【字形】篆 埴 .【構造】會意字. 篆文從土, 從申(閃電). 《說文》認為, 土位在申, 故坤表示地. 推其意, 蓋雷電下擊伸地爲坤. 隸變後楷書寫作坤. 異體字埴, 從方(掘地鍤), 亦爲掘地下伸之意. 如今規範化, 以坤爲正體, 埴只用作人名用字. 【本義】《說文·土部》: “坤, 地也, 《易》之卦也. 從土, 從申, 土位在申.” 本義爲《周易》八卦之一, 卦形爲☷; 也用作六十四卦之一, 卦形爲☷(坤下坤上), 代表地及一切最具陰柔性質的事物. 【演變】本義爲①《周易》八卦之一, 也用作六十四卦之一: 《象》曰: 至哉坤元, 萬物滋生, 乃順承天 | 坤, 地道也, 妻道也, 臣道也, 引申指②土地, 與“乾”相對: 昔彼坤靈(地神), 并天作合 | 扭轉乾坤. 《易·繫辭上》: “坤道成女.” 故又引申代表③女性: 梁小貴人宜配天祚, 正位坤極(皇后) | 坤表 | 坤包 | 坤車 | 坤伶 | 坤俗 | 坤宅. 古代以八卦定方位, 故又引申指④西南方: 我本放浪人, 家寄西南坤. 異體“埴”, 多用作⑤男性名字. 【組字】如今可單用, 一般不作偏旁. 不是《說文》部首. 現今歸入土部.”(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551면).

25) “坤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爲大輿 爲文 爲衆 爲柄 其於地也 爲黑.”(『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6면).






3) 『漢語大詞典』의 坤字 解說



坤 ① [kūn ㄍㄨㄣ ㄨ] [《廣韻》苦昆切, 平魂, 溪.] 亦作“埤”.

1. 《역》괘명, 팔괘의 하나. 땅을 象徵한다. 2. 《역》괘명. 육십사괘의 하나. 곤하곤상. 《역·곤》: “곤은. 크게 형통하다, 암말을 얻어 이로우니 길조이다.” 3. 땅, 大地. 《역·설괘》: “곤은, 땅이다.” 《역·설괘》: “곤은 땅이 된다.” 《문선·왕연수 <노영광 전부>》: “높이 쌓은 옥에서 광채가 흘러 붉은 광명이 대지를 비추는 구나.” 리선주: “촉곤은, 대지를 비춘다 이다.” 참조 “곤축”·“곤재”. 4. 여자, 여성. 《역·계사상》: “곤의 도는 여성을 이룬다.” 참조 “곤각”·“곤령”. 5. 母, 母親. 《역·설괘》: “곤은 땅이다 그러므로 어미라 칭한다.” 《역·설괘》: “곤은 땅이 되고 어미가 된다.” 참조 “곤의”. 6. 고대에는 팔괘로 방위를 정하였다. 서남방을 곤이라 하였다. 송 소식 《기제매선의원정》시: “우리는 본시 방랑인 이니, 서남의 곤에서 잠시 거하네.” 청 황석 《통위·역간착도》: “음은 사에서 시작되어, 미에서 형체를 이루고, 자리가 바르게 됨에, 곤이 자리가 서남에 있는 것이니, 음의 바른 자리이다.” 청 주상현 《문견 우록·관월》: “상방산은 오성의 서남방에 있는데 동으로는 석호에 접한다.”²⁶⁾

『漢語大詞典』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易經』 坤卦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였다. 괘명 · 땅 · 여성 · 어미 · 서남방 등 坤卦가 나타내는 意味 이 외에는 다른 詞意는 하나도 없으므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

4) 『周易四箋』의 坤字 解說

“古文作 象三斷 亦作. 與申字不同 者卦形也. 川者順之義也. 順馴等字 皆從川 其實從也. 流字從 則川本也. 故周行中土謂之巡 字從 而音與馴同也.

(古文에서 坤은 으로 되어 있는데 3획의 중간이 단절된 모양이다. 또한 으로도 썼

26) “坤① [kūn ㄍㄨㄣ ㄨ] [《廣韻》苦昆切, 平魂, 溪.] 亦作“埤”. 1. 《易》卦名. 八卦之一. 象徵地. 2. 《易》卦名. 六十四卦之一. 坤下坤上. 《易·坤》: “坤. 元亨, 利牝馬之貞.” 3. 地, 大地. 《易·說卦》: “坤也者, 地也.” 《易·說卦》: “坤爲地.” 《文選·王延壽 <魯靈光殿賦>》: “汨磴磴以璀璨, 赫燁燁而燭坤.” 李善注: “燭坤, 光照下土.” 參見“坤軸”·“坤載”. 4. 女, 女性. 《易·繫辭上》: “坤道成女.” 參見“坤角”·“坤伶”. 5. 母, 母親. 《易·說卦》: “坤, 地也, 故稱乎母.” 《易·說卦》: “坤爲地爲母.” 參見“坤儀”. 6. 古以八卦定方位, 西南方爲坤. 宋蘇軾《寄題梅宣義園亭》詩: “我本放浪人, 家寄西南坤.” 清黃奭《通緯·易乾鑿度》: “陰始於巳, 形於未, 據正立位, 故坤位在西南, 陰之正也.” 清朱象賢《聞見偶錄·申月》: “上方山在吳城之坤方, 東臨石湖.”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4802면).

다. 𡗗과 申은 다르다. 𡗗은 卦形 이다. 川은 順의 뜻이다. 順과 馴은 다같이, 모두 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𡗗을 따르고 있다. 流字도 𡗗을 따르고 있으니 즉 川이 本字가 𡗗이다. 그러므로 天子가 중국의 땅을 둘러보는 것을 巡이라 하는데, 글자가 𡗗을 따르고 있으며 字音도 馴과 同音이다.”²⁷⁾

『周易四箋』의 解說은 茶山の『周易四箋·坤卦』의 註釋이다. 이 註釋에서 茶山은 ‘坤’이 古文이 ‘𡗗’이고 또한 ‘𡗗’으로도 썼다고 하였다. 이 古文의 글자들을 보면 ‘𡗗’은 坤卦의 文樣인 𡗗을 가로로 그려놓은 𡗗 모양이고, ‘𡗗’은 坤卦의 文樣인 𡗗에 ‘川’이 합쳐진 𡗗 모양이다. ‘川’의 本字는 ‘𡗗’이다. 그러니 ‘𡗗’은 𡗗과 ‘𡗗’이 합쳐진 形으로 坤卦의 文樣 𡗗이 두 개가 겹쳐진 것이다. 그런데 ‘川’이 ‘順’이 뜻이라고 하였다. ‘順’은 坤卦의 卦德²⁸⁾ 이다. 그래서 ‘𡗗’은 𡗗과 ‘𡗗’을 합쳐서 坤卦의 物象인 땅과 卦德인 ‘順’을 表現해내고 있는 글자라는 것이다. 坤卦는 땅을 象徵한다.²⁹⁾ 陰陽은 相對的인 것이므로 乾卦가 陽卦로써 하늘을 象徵하는 것에 대해 坤卦는 陰卦로써 땅을 象徵한다. 天子가 중국의 땅을 둘러보는 것을 ‘巡’이라 하였는데, 巡字는 ‘辵’과 ‘𡗗’으로 이루어졌다. ‘辵’은 다닌다는 것이고 ‘𡗗’은 땅, 곧 땅을 象徵하는 坤卦의 文樣인 𡗗인 것이다. 그러니 다닌다는 辵과 땅이라는 ‘𡗗’이 합쳐져 ‘巡’이 되었고 ‘巡’이 巡狩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茶山은 坤字에 대해 易의 陰陽論理와 文字의 考證을 들어 坤卦의 文樣인 𡗗이 文字化 되어 卦名 字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5) 卦名 坤의 生成

『漢字源流字典』의 坤字에 대한 解說은 『說文解字』와는 字形에서 다른 견해를 비치고 있다. 坤字의 篆文이 『說文解字』에서는 ‘𡗗’인데, 『漢字源流字典』에서는 ‘𡗗’이다. 坤字가 [土 + 申]인 會意字인데, 『說文解字』에서는 [土 + 𡗗]으로, 『漢字源流字典』에서는 [土 + 𡗗]으로 字形이 다르다. 『說文解字』에서는 ‘土’ 즉 坤卦의 代表的인 物象인 땅과, 12支의 아홉 번째 地支인 方位를 나타내는 ‘申’과 合體한 會意字이고, 『漢字源流字典』에서는 ‘土’와 申

27)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三十七卷 ○周易四箋卷一 [諸卦]○第二卦.

28) “坤 順也(곧은 순이다).”(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4면).

29) “坤也者 地也(곧은 땅이다).”(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2면).

개를 상형한 ‘𪛗’과 合體한 會意字이다. 그래서 字形의 설명에서도 ‘땅에 벼락이 치며 번갯불이 지면에 뻗치고 있는 형상’으로 解說하고 있다. 會意字는 ‘比類合誼 以見指攝’의 文字이다. 그러므로 字義가 다른 글자끼리 合體되어 字形이 이루어지면 字義도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會意字의 造字법이다. 그렇다면 坤字에 대한 『漢字源流字典』의 字義는 『說文解字』와는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즉 땅과 번개가 어우러져 나타내는 뜻으로 字義가 設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字義에서는 本義는 『說文解字』를 따르고, 引申義도 모두 坤卦에 內包되어 있는 物象을 나열해 놓았다. 坤卦는 번개라는 物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卦이다. 「說卦傳」의 坤卦의 物象은, 地·順·藏·西南·致役·致養·牛·腹·母·布·釜·吝嗇·均·子母牛·大輿·文·衆·柄·黑³⁰⁾ 등이나, ‘閃電’의 物象은 없다. 字義를 『說文解字』에서 引用할 것이면 字形도 『說文解字』의 字形대로 引用하여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字形과 字義에 乖離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漢字源流字典』의 本義와 引申義는 모두가 坤卦의 物象이어서, 小篆의 字形을 ‘𪛗’으로 채택해 놓고서도 坤卦의 物象 이 외의 다른 뜻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坤字는 『易經』에서 글자와 뜻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다. 또한 『漢語大詞典』의 坤字에 대한 解說에도 坤卦의 意味 이외의 詞意가 일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글자의 本義는 그 글자의 탄생 根因이다. 즉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本義를 記錄하고 傳達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說文解字』·『漢字源流字典』·『漢語大詞典』의 坤字에 대한 本義가 다 같이 ‘卦名’이다. 그렇다면 ‘坤’은 卦名에 쓰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되는 것이다.

乾은 ☰으로 純陽卦이고, 坤은 ☷으로 純陰卦이다. 八卦에서 乾卦와 坤卦를 제외한 여섯卦는 陰劃과 陽劃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乾卦와 坤卦를 母卦라고 한다.³¹⁾ 즉 易에서 처음으로 그린 卦가 ☰과 ☷이다. 이렇게 卦를 그렸으면 그 卦를 무엇이라고 이름 하여 불러야 한다. 그래서 ☰은 이 陽三劃을 文字化한 ‘乾’을 卦名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도 이 陰三劃을 文字化 하여 卦名을 삼았을 것이라는 것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文字學 側面에서 八卦說은 文字創造 以前에 만들어진 意思傳達이 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이것은 卦의 文樣이 文字의 機能

30) 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0-667면.

31) “「설괘전」의 우주론은 건곤이라는 음양의 상호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우주의 만물은 모두 이것을 기본적인 因子 혹은 父母卦로하여 다른 여섯 卦를 만들어 내고 있다.”(정병석, 『哲學研究』 「周易의 象 模型을 통해본 세계와 인간」, 대학철학회, 2008, 239면).

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見解이다. 이렇게 볼 때 卦가 그려지고 卦名을 붙이려 할 때 그 卦에서 文字를 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茶山은 ‘坤’의 古文이 ‘𡇗’이고 또한 ‘𡇗’이라 하였다. ‘𡇗’은 ䷁이고 ‘𡇗’은 ䷁과 ‘𡇗’이 合體字이다. 즉 ‘𡇗’ = ‘𡇗’ = ‘坤’이다. 그러므로 ‘坤’은 卦의 文樣인 ䷁이 文字化 되어 坤卦의 卦名 字로 生成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坎 ☵

1) 坎卦의 物象

坎卦는 두 개의 陰劃과 하나의 陽劃으로 이루어진 卦로 卦의 文樣은 ☵이다. 八卦에서 ☵坎은 물을 象徵한다. 물은 무엇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造物主의 天地創造 때 만들어졌거나 한 物體가 아니다. 즉 물은 天地創造 以前에 存在해온 自然物이다. 天地創造에 관한 聖書의 創世記 記錄에서도 물은 天地開闢이전에 存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상제께서 천지를 창조 하실 때 지구는 텅 비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았으며 깊은 어둠만이 있었고 상제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였다.”³²⁾

이 創世記 句節은 天地創造 以前에 神이 水面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朱子도 비슷한 見解를 披瀝하였는데,

“천지가 처음에 혼돈하여 나뉘지 않았을 때, 다만 물과 불 둘만 있었을 것이고, 물의 양금이 밑에서 땅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군집된 산들이 모두 파도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곧 물이 넘실거림으로 이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³³⁾

라고 하여 天地開闢 以前에 물이 存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히 있는 물을 象徵하는 卦가 坎卦이다. 그렇다면 坎卦는 어떻게 물을 象徵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茶山은,

“坎은 땅에 흠결이 있는 것이다. 대지는 거의 온전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32) “元始 上帝创造天地 地乃虚昉混沌 渊际晦冥 上帝之神煦育乎水面.”(zh.wikisource.org. 『聖經·創世記』, 維基文庫, 自由的圖書館.)

33) “天地始初混沌未分時, 想只有水火二者. 水之滓脚便成地. 今登高而望, 群山皆爲波浪之狀, 便是水泛如此.”(黎靖德 編, 허탁·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청계출판사, 1999, 115면).

이지러져서 모자란 곳이 있는데 그것이 坎의 구덩이다. 천지가 개벽할 때 물과 땅이 혼돈하였는데, 물이 坎의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흐르면서 큰 구덩이에 흘러든 물은 바다가 되고, 작은 구덩이에 흘러든 물은 못이 되었다. 이것이 坎의 물이 되는 까닭이다.”³⁴⁾ 고 하였다.

“坎陷也(坎은 구덩이에 빠짐이다).”³⁵⁾

이 말은 「說卦傳」에서 말하는 坎卦의 德이다. 즉 坎卦의 根本的 特性이다. 그렇다면 ‘坎’은 어떻게 하여 ‘陷’이 되고 있을까? 茶山은 ‘坎者土欠’이라고 하였다, 坎字는 ‘土’와 ‘欠’으로 이루어진 字로 땅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字이다. 즉 땅에 함정 같은 구덩이가 생긴 것을 나타내고 있다. 坎卦의 文樣이 ☵이다. ☵은 두 陰☷ 사이에 陽☰ 하나가 들어 있다. 즉 陽이 陰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坎’이 ‘陷’인 것이다. 그렇다면 ☵에서 陽☰ 하나는 어떻게 두 陰☷ 속에 빠지게 되어 ‘坎’이 ‘陷’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序卦傳」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만사만물은 언제까지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坎으로 그 지나침을 받았으니 坎이란 陷인 것이다.”³⁶⁾

序卦는 萬事萬物이 自然의 順理的인 理致대로 흐르게 되는 것을 卦의 德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 序卦의 次序 가운데 坎卦는 大過卦의 다음에 놓이는데, 大過卦는 卦의 文樣이 ☱巽下兌上으로 여섯 劃 중에 陽劃이 넷이고 陰劃이 둘로써 陽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그래서 卦名도 大過로 ‘陽이 지나치다’는 뜻을 갖는다. 易은 自然의 理致에 따라 陰陽의 交易되는 原理를 基本으로 한다, 즉 차게 되면 비우게 되고 비우게 되면 다시 차게 되는 循環過程이 있게 되고, 剛함이 지나쳐 節制함이 없으면 끝내는 險難한 處地에 빠지게 되고, 險難한 處地에 빠지게 되

34) “坎者土欠也 大地☷圖其有欠闕者爲坎窩也 開關之初水土渾淪 其有坎窩 水則就之大窩則爲瀛海小窩則爲溪澤 此坎之所以爲水也。”(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四[諸卦]○第十七卦)

35) “乾健也 坤順也 震動也 巽入也 坎陷也 離麗也 艮止也 兌說也。”(『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1면).

36) “物不可以終過 故受之以坎 坎者陷也。”(『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62면).

면 改過遷善하며 어려움을 克服하는 過程을 거치게 되는 것이 自然의 理致이다. 이 自然의 理致를 基本으로 하는 易의 論理에 따라 大過卦의 지나침은 險難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뒤를 잇는 坎卦가 험난한 구덩이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坎陷也’인 것이다.

‘坎’이 물을 象徵한다는 것은 ‘坎’이 물이어서가 아니라 ‘坎’은 본래 웅덩이 인데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들어 웅덩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물은 흐르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 속을 다 채우고 나서야 다시 흘러간다. 그러니 물이 지나가는 곳의 웅덩이에는 물이 들어차있게 된다. 그래서 웅덩이 하면 곧 물이 있게 되는 것이니 ‘坎’이 물을 象徵하게 되는 것이다. ‘坎’의 物象은 물 뿐만이 아니다. 「說卦傳」의 ‘坎’의 物象은 다음과 같다.

“감은 물이 되고, 도량이 되고, 잠복함이 되고, 바로잡음이 되고, 활과 수레바퀴가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근심이 있는 것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귀가 아픈 것이 되고, 피가 되고, 붉은 것이 되고, 말에 있어서는 등이 좋은 것이 되고, 성질이 급한 것이 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되고, 발굽이 얇은 것이 되고, 끄는 것이 되고, 수레에 있어서는 장식을 많이 줄인 것이 되고, 통함이 되고, 달이 되고, 도둑이 되고, 그 나무에 있어서는 나무의 속이 단단한 것이 된다.”³⁷⁾

이 외에 北方을 指稱하고, 勞苦와 慰勞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坎卦에는 많은 物象들이 內包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物象을 涵蓄하여 가리키는 卦名이 ‘坎’이다. 과연 이 坎字는 어떻게 이러한 物象들을 대표하는 卦名字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가, 이에 대한 端初를 『說文解字』·『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漢字源流字典』·『漢語大詞典』의 字形 字義 解說을 통하여 구해 보고자 한다.

2) 坎字의 字形 字義 解說

37) “坎爲水爲溝瀆爲隱伏爲橋輮爲弓輪，其於人也爲加憂爲心病爲耳痛爲血卦爲赤，其於馬也爲美脊爲亟心爲下首爲薄蹄爲曳，其於輿也爲多眚，爲通爲月爲盜其於木也爲堅多心。”(『備旨具解元本周易』，學民文化社，1996，1149면).

(1) 『說文解字』의 坎字 解說

坎은 陷이다. 土를 따르고 欠聲이다. 苦感반절이다.³⁸⁾

『說文解字』의 解說에서 坎字의 字形은 ‘土’와 ‘欠’으로 이루어진 形聲字이고, 字義는 ‘陷’이다. ‘陷’은 地面이 움푹 패여 웅덩이가 된 것을 이르고 있다.³⁹⁾

(2)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坎字 解說

坎 垠

[形] (형성) (회의) 갑문·금문에는 감자가 없다. 小篆의 坎은: 土를 따르고·欠聲이다. 本義는 「陷」으로 풀이되었다, (설문의 단옥재 주에 나왔다.) 함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빠지는 뜻이다, 그래서 함정이 감의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보통 지면 아래를 함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토를 따르고 있다. 또 흙이 입을 벌리고 탄식하는 것이므로; 땅이 패여 구덩이가 생긴 것이, 땅이 입을 벌린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감이 흙을 따르고 흙은 성을 겸한다.

[音] 가감반절로 음은 砍이다. ㄅㄚㄢ Kaan 上성 感운

[義] 명사⊖패명, 감상감하, 역경의 팔괘 및 육십사괘의 하나; 그 상이 물이 되고·붓도랑이 되고·잠복하는 것이 되고·중간의 남자가 된다. 역경의 설괘전에 나온다.

⊖술그릇에 감이라 하는 것이 있다. 예문 「작은 술독을 감이라 한다.」(이아·석기)

⊖묘혈을 감이라 한다. 예문 「그 묘혈이 깊이가 지하수에는 이르지 않았다.」(예기·단궁)

⊖땅에 제사를 설치하는 것을 감이라 한다. 예문① 「땅을 판 제단에서 신령을 맞아 추위와 더위 신에 제를 올린다.」(예기·제법) ② 「땅을 판 제단에서는 달에게 제를 올린다.」(예기·제의).

형용사⊖감감: 궁핍하다. 예문 「미움에 쌀가루가 없으니 그 배가 궁핍하다」(태현경·궁).

부사⊖타악기의 소리. 예문 「둥둥 북을 치고 …… 둥둥 부를 친다.」(시경·진풍).⁴⁰⁾

38) “坎 垠 陷也 從土欠聲 苦感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88면).

39) “陷 陷 高下也 一曰陔也 從戶從各 各亦聲 戶猶切(함 陷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른 뜻으로 무너져 내리다·떨어지다는 뜻을 이르기기도 한다. 부를 따르고 함성이다. 호암반절).”(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05면).

40) “坎 垠 [形] (形聲) (會意) 甲文·金文·坎字闕. 小篆坎: 從土·欠聲·本義作「陷」解, (見說文段注) 乃高而入於下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坎字 解說에서는 甲骨文과 金文에는 坎字が 없음을 말하고 있다. 字形은 形聲兼 會意字로 보고 있다. 字義로는 卦名 · 酒器 · 墓穴 · 祭壇 · 窮乏 · 擬聲語 등을 설명하고 있다.

(3) 『漢字源流字典』의 坎字 解說

坎

【자형】 전문 垠

【구조】 형성경회의자. 전문은 토를 따르고, 흙 성이다, 흙은 흙결의 뜻을 표한다. 예변 후 해서에서 坎으로 썼다.

【본의】 《설문·토부》: “감, 陷이다. 토를 따르고, 흙 성이다.” 본의는 지면이 움푹 패인 곳, 구덩이.

【연변】 본의는

- ① 지면이 움푹 패인 곳, 구덩이 이다: 그대만 홀로 구덩이 우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는가? |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었다 | 산길이 울퉁불퉁하다. 본의에서 인신되어 특별히 가리키는 뜻은
- ② 묘혈, 묘갱: 그 장례식을 보았는데, 그 묘혈이 깊이가 지하수에는 이르지 않았다. 묘혈이 동사로 쓰여, 가리키는 뜻은
- ③ 구덩이를 파다: 유가 그 말을 듣고, 곧 구덩이를 파서 희생을 쓰고·서약문을 묻었다. | 신안에서 어린것이 죽었으므로, 길옆에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아이를 묻었다. 다시 인신되어 특별히 가리키는 뜻은
- ④ 파종하는 작은 구덩이: 그 파종하는 방법이 석자 되는 작은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 깊이는 다섯 치정도 하는데, 매 구덩이 마다 별씨 수십 알을 뿌렸다. 다시 인신되어 보편적으로 넓게 가리키는 뜻은
- ⑤ 물체의 움푹 패인 곳: 이충의가 그 성벽에 꿩이로 움푹 패이게 파고 그 곳을 발판으로 먼저 성벽을 오르니, 병사들이 그를 따라 성벽을 올랐다.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위로 솟아오른 곳도 있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다시 인신되어 가리키는 뜻은

之意, 因謂陷阱爲坎, 常指土之下陷而言, 故從土. 又以欠爲張口歎息; 土陷成穴, 有地面開口意, 故坎從欠聲. [音] 可感切 音砍 巧弓 Kaan 上 感 [義] 名○卦名, 坎上坎下, 易八卦及六十四卦之一; 其象爲水·爲溝瀆·爲隱伏·爲中男, 見易說卦. ①酒器曰坎. 例「小罍謂之坎」(爾雅·釋器) ②壙穴曰坎. 例「其坎深不至於泉」(禮·檀弓) ③設祭之地曰坎. 例①「相近於坎壇, 祭寒暑也。」(禮·祭法) ②「祭月於坎」(禮·祭義). 形○坎坎: 空乏. 例「羹無糝其腹坎坎」(太玄·窮). 副○擊樂氣聲. 例「坎其擊鼓 …… 坎其擊缶」(詩·陳風)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265면).

⑥ 불룩하고 긴 물결 같은 것, 마치 밭이랑 같은 물건: 사람들은 모내기 할 땅에 이랑을 따라 두둑을 빙 둘러 가득히 섰다. | 논밭의 이랑 | 성토를 한 약간 높은 곳. 다시 비유되어

⑦ 가장 긴요한 곳 또는 시기, 마침 그때. 바로 그때: 당신의 사십 세가 바로 그때이다. | 이 말은 바로 그때 언급되었다. 다시 인신되어 가리키는 뜻은

⑧ 근심, 원한: 애처롭구나 마부의 통한이여, 늘 환난을 만나 근심에 쌓여있네. 또 쓰이는 것으로

⑨ 《주역》 팔괘의 하나. 괘형은 ☵이다, 물을 象徵 한다; 또 육십사괘의 하나, 괘형은 ☵☵(감하감상)이다: 감은, 함정이다. | 감의 거듭된 것이니, 험함이 겹친 것이다. 또 “龔감”과 통용된다,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형용사이다

⑩ 감·치거나 두드리는 소리: 둥둥 둥 북을 친다, 완구의 아래서 | 쿵쿵쿵쿵 박달나무를 찍어, 황하의 물가에 놓아두네. | 바람과 물이 서로 삼키고 토해내면서, 움푹 들어간 동굴 같은 곳에서 둥 둥 하고 종과 북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또 쓰이는 것은

⑪ 발광강도단위인 坎德拉(英candela)의 간칭으로 쓰인다. 또 쓰이는 것은

⑫姓으로 쓰인다.⁴¹⁾

『漢字源流字典』의 坎字 解說에서는 字形構造를 形聲兼會意字로 설명하였고, 字義는 聲符인 ‘欠’을 欠缺의 뜻으로 삼아 本義인 ‘웅덩이’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演變되는 字義로, 묘혈 · 구덩이를 파다 · 구덩이 · 움푹 패인 곳 · 밭이랑 모양의 물체 · 바로 그때 · 근심 · 팔괘 및 육십사괘 · 의성어 · 광도단위 · 성씨 등의 字義를 설명하고 있다.

(4) 『漢語大詞典』의 坎字 解說

41) “坎【字形】篆 坎 【構造】形聲兼會意字. 篆文從土,欠聲,欠也兼表欠缺義. 隸變後楷書寫作坎.【本義】《說文·土部》:“坎,陷也. 從土,欠聲.”本義爲地面低洼的地方,坑.【演變】本義爲①地面低洼的地方,坑:子獨不聞夫坎井之蛙乎? | 鑿地爲坎 | 山路坎坷. 引申特指②墓穴,墓坑: 觀其葬焉, 其坎深不至於泉. 用作動詞,指③掘坑: 柳聞之,乃坎用牲·埋書 | 壬赤子于新安,坎路側而瘞之. 又引申特指④点種的小坑: 其法三尺一坎,坎深五寸,每坎下稻種數十粒. 又引申泛指⑤物體上的坑窩: 李忠義鑿其城爲坎以先登,壯士從之. 有低洼就有凸起,故又引申指⑥條狀凸起的稜,像壟的東西: 人們沿着秧子地的垆坎,站滿了一圈 | 田坎兒 | 土坎. 又比喻⑦最緊要的地方或時機,當口兒: 你四十歲是個坎兒 | 這話可說到坎兒上了. 又引申指⑧憂,恨: 哀仆夫之坎毒兮,屢遭憂而逢患. 又用作⑨《周易》八卦之一. 卦形爲 ☵,象徵水; 也用作六十四卦之一,卦形爲 ☵☵(坎下坎上): 坎者,陷也 | 習坎,重險也. 又通“龔”,用作象聲詞,形容⑩砍·擊聲: 坎其擊鼓,宛丘之下 | 坎坎伐檀兮,置之河之干兮 | 與風水相吞吐,有窾坎鏗鞳之聲. 又用作⑪發光強度單位坎德拉(英candela)的簡稱. 又用作⑫姓.【組字】如今既可單用,也可作偏旁. 不是《說文》部首. 現今歸入土部. 凡從坎取義的字皆與坑洼等義有關. ▷ 以坎作聲兼義符的字有: 菝·炭.”(谷衍奎 編,『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368면).

坎 ① [kǎn ㄎǎㄣˇ] [《廣韻》苦感切,上感,溪.] 亦作“埳”.

1. 구덩이. 지면이 움푹하게 들어가 곳. 《예기·상대기》: “소신이 발톱을 깎는다. 목욕시키고 남은 물은 구덩이를 파서 버린다.” 북위 가사협 《제민요술·대두》: “범승의 구종 대두법은: ‘구덩이를, 넓이와 깊이를 여섯 치로 파고, 구덩이 사이의 거리를 두 자가 되게 하면. 일무에 1,680개의 구덩이를 만들 수 있다.’” 청 위원 《〈무량수경회석〉 서》: “파사세계는, 본시 화장세계가 열세 번 거듭된 것인데, 중생들이 보면 흙구덩이와 돌구멍으로 보인다.”

2. 구덩이를 파다; 땅굴을 파다. 《좌전·소공육년》: “유가 그 말을 듣고, 곧 구덩이를 파서 희생을 쓰고, 서약문을 묻었다.” 《신당서·오소성전》: “이소가 그리하기로 하고, 정예 기병으로 채주를 야습하는데, 성벽 밑을 파서 들어가니, 지키는 자들이 알지 못하였다.” 《구오대사·진서·장정온전》: “정온이 수장이 되어 경병 백여 명을 인솔하고, 해자를 건너 성벽에 구덩이를 파면서 오르니 성벽을 수비하는 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

3. 묘혈; 묘갱. 《례기·단궁하》: “공자가 이르기를: ‘연릉계자는, 오나라의 예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 장례식을 보았는데, 그 묘혈이 깊이가 지하수에는 이르지 않았다.’” 《남사·류효전》: “염을 마치고, 짐수레에 싣고, 구산으로 돌아와, 작은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묘혈로 쓰기에 족하였으므로 관을 안치하였다.” 《신당서·래진전》: “진이 죽자, 묘혈에 시신만 가려 놓은 채, 문객들도 흩어져 사라지고, 교서랑 은량만이 홀로 와서 시신 옆에서 곡을 하고, 관과 수의를 준비하여 장례를 치렀던 것이다.”

4. 묘혈을 파다. 《주서·이역전하·돌궐》: “봄이나 여름에 죽은 자는, 초목이 누렇게 시들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죽은 자는, 꽃과 잎이 화려하고 무성할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묘혈을 파고 죽은 자를 묻는 것이었다.” 당 한유 《하남소윤리공묘지명》: “높은 산위에 묘혈을 파서 그 곳을 공의 집으로 여기라 하니 공이여 어찌하리오.” 송 심괄 《우부원외랑허군묘지명》: “산비탈에 빈터가 있어, 묘혈을 팠더니 공이로세; 영구를 내려놓으려하니, 나도 따라 차지하려 하네.”

5. 고대에 달에 제를 드릴 때 시내 계곡의 동굴에서 드리는 것. 《례기·제의》: “해에 대한 제사는 단에서 드리고, 달에 대한 제사는 감에서 드린다.” 《례기·제법》: “네 개의 감과 단에서, 사방에 제사를 드린다.” 정현 주: “제사를 드릴 때 산림과 구릉에서 하는 것이 단이고, 시내 계곡에서 드리는 것이 감이다.”

6. 술을 담은 그릇. 《이아·석기》：“작은 술독을 감이라고 한다.”
7. 빠지다; 함몰하다. 《역·설패》：“손은 들어감이다; 감은 빠짐이다; 리는 걸림이다.” 청 화방액 《야담수록·향운》：“이것이 쌓이고 쌓여 수십 백년이 되면, 폐허는 돌아 도움이 되고, 함몰된 곳은 못이 되고, 사당은 부뚜막이 된다.”
8. 《역》 패명. 팔괘의 하나. 감이 象徵하는 것은 험난함이고, 물을 나타내며, 북방의 패가 된다. 《역·습감》：“단에 이르기를: ‘습감은, 험난함이 거듭된 것이다.’” 왕필 주: “감은 험난함이 쓰임이 되니, 그러므로 특별히 이름 하여 거듭 험한 것이라 하는 것이다.” 공영달 소: “감이 들이니 서로 겹치는 것이다, 그래서 험난함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역·설패》：“감은 물이다. 정북방의 패이고, 수고하고 위로하는 패이고, 만물이 돌아가는 곳이다.” 청 공상임 《도화선·입도》：“여자에게는 여자의 경계가 있으니, 아래로 감의 도에 합하고; 북산의 북쪽을 향하여 진리의 도를 배우고 닦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계사 등 주: “감은 ……북에 속한다.” 청 장사전 《雪中人·移云》：“나는 사부의 노복이운데, 우리 주인이 구한 것이 모두 파손되어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생김으로; 북으로 가 남은여생을 보존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끝내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9. 감괘에 상응하는 음률을 가리킨다. 참조 “감음” · “팔음”.
10. 덮다; 쓰다. 《성세인연전》 제 사회: “<조대사>망건을 벗고서 넓은 두건을 쓰고, 백여우 갓옷을 입고, 접대하러 나갔다.” 《유림외사》 제 사십 일회: “한 사나이가 술에 절은 얼굴에 다 떨어진 갓을 눈썹까지 눌러 쓰고, 한 짐이 넘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뒤를 따라 왔다.” 11. 가늘고 길게 돌출되거나 계단모양 같은 물건의 총칭. 북위 가사협 《제민요술·류》：“봄이 되어 얼음이 풀리면, 산비탈이나 하천의 두둑 곁에 돌아난 버들을 베어 세 치 정도로 잘라서 삼태기에 담아 묘판에 가득 뿌리고 썩레질을 하고; 썩레질이 끝나면 물을 끌어 대어놓는다. 가을이 되면 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명 광변 《편민도찬》 권 십사: “<묘>입속에 긴 돌기가 셋이면 석 달이 된 것이고, 긴 돌기가 다섯이면 여섯 달이 된 것이며, 긴 돌기가 일곱 개면 아홉 달이 된 것이며, 긴 돌기가 아홉 개이면 열 두 달이 된 것이다.” 감은 입천장의 가늘고 긴 돌기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12. 보편적으로 넓게 가리키는 뜻은 비탈. 양삭 《비밀열차》：“두 정거장에 이르니 물이 여덟 치가 남았다. 다시 출발하여 한 정거장에 이르니 물이 세 치 정도가 되었는데, 하필 또 비탈을 오르게 되었다.”

13. 근심, 원한. 한 양웅 《태현·내》: “그대 홀로 거동하니 슬프고, 내가 서쪽 계단을 오를 것이 근심이다.” 범망 주: “감은, 근심이다.” 참조 “감독”.

14. 의성어. 물체가 서고 부딪치는 것을 형용. 《시·진풍·완구》: “둥둥둥 북을 친다, 완구의 아래서.” 송 소식 《석종산기》: “물 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 중간에 빈 곳이 있는가 하면 구멍이나 움푹 패인 곳이 많이 있어서, 바람과 물이 서로 삼키고 토해내면서, 움푹 들어간 동굴 같은 곳에서 둥 덩 하고 종과 북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참조 “감감”.

15. 방언. 방금, 바로. 지금 막. 《해상화열전》 제 육회: “지금 바로 하려는데 성질부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 성씨. 명나라에 감 휘가 있었다. 《기성통》에 나온다.⁴²⁾

『漢語大詞典』의 坎字 解說에서 字義로 설명된 것이 16개로 열거해보면, 구덩이 · 구덩이를 파다 · 묘혈 · 묘혈을 파다 · 祭壇 · 술그릇 · 함몰하다 · 卦名 · 八音 · 덮어쓰다 · 가늘고 길게 돌출된 물건의 총칭 · 비탈 · 근심 · 擬聲語 · 지금 막 · 성씨 등의 字義가 해설되어 있다.

42) “坎① [kǎn ㄎǎㄣˇ] [《廣韻》苦感切,上感,溪] 亦作“埳”. 1.坑.地面凹陷處.《禮記·喪大記》:“小臣爪足,浴餘水棄於坎.”北魏賈思勰《齊民要術·大豆》:“汜勝之區種大豆法:坎,方深各六寸,相去二尺.一畝得千六百八十坎.”清魏源《〈無量壽經會釋〉敘》:“娑婆世界,本華藏世界第十三重,衆生視爲坑坎土石者.” 2.掘坑;挖洞.《左傳·昭公六年》:“柳聞之,乃坎,用牲,埋書.”《新唐書·吳少誠傳》:“愬然之,以精騎夜襲蔡,坎垣入之,戍者不知也.”《舊五代史·晉書·張廷諷傳》:“廷諷首率勁兵百餘輩,踰洹坎城而上,守陴者不能禦.” 3.墓穴;墓坑.《禮記·檀弓下》:“孔子曰:‘延陵季子,吳之習於禮者也,觀其葬焉,其坎深不至於泉.’”《南史·劉歊傳》:“歊訖,載以露車,歸於舊山,隨得一地,地足爲坎,坎足容棺.”《新唐書·來瑱傳》:“瑊之死,門下客散去,掩屍於坎,校書郎殷亮獨後至,哭屍側,爲備棺衾以葬.” 4.指掘墓穴.《周書·異域傳下·突厥》:“春夏死者,候草木黃落,秋冬死者,候華葉榮茂,然始坎而瘞之.”唐韓愈《河南少尹李公墓志銘》:“高其上而坎其中,以爲公之宮,奈何乎公.”宋沈括《虞部員外郎許君墓志銘》:“有阪之墟兮,可坎而宮;靈將下之兮,我占既從.” 5.古時祭月及川谷的坑穴.《禮記·祭義》:“祭日於壇,祭月於坎.”《禮記·祭法》:“四坎壇,祭四方也.”鄭玄注:“祭山林丘陵於壇,川谷於坎.” 6.盛酒器.《爾雅·釋器》:“小罍謂之坎.” 7.陷;陷落.《易·說卦》:“巽,入也;坎,陷也;離,麗也.”清和邦額《夜譚隨錄·香云》:“是壘壘者,數百年後,旋夷爲都邑,旋坎爲洿池,旋祀爲壇壝.” 8.《易》卦名.八卦之一.坎象征險難,代表水,爲北方之卦.《易·習坎》:“象曰:‘習坎,重險也.’”王弼注:“坎以險爲用,故特名曰重險.”孔穎達疏:“兩坎相重,謂之重險.”《易·說卦》:“坎者,水也.正北方之卦也,勞卦也,萬物之所歸也.”清孔尚任《桃花扇·入道》:“女有女界,下合坎道;快向北山之北,修真學道去.”王季思等注:“坎……屬北.”清蔣士銓《雪中人·移云》:“自家查府蒼頭,我主人求全得毀,無妄生災;出坎既保餘生,還家竟無下落.” 9.指與坎卦相應的坎音.參見“坎音”、“八音”. 10.扣;戴.《醒世姻緣傳》第四回:“晁大舍隨把網巾摘下,坎了浩然巾,穿了狐白皮襖,出去接待.”《儒林外史》第四一回:“跟著一個漢子,酒槽的一副面孔,一頂破帽撞坎齊眉毛,挑過一擔行李來.” 11.條狀突起或台階狀物的統稱.北魏賈思勰《齊民要術·柳》:“至春凍釋,於山陂河坎之旁,刈取箕柳,三寸截之,漫散,即勞;勞訖,引水停之.至秋,任爲籬箕.”明鄭燠《便圖圖纂》卷十四:“貓口中三坎者捉一季,五坎者捉二季,七坎者捉三季,九坎者捉四季.”按,坎指上鬮的條狀突起. 12.泛指坡.楊朔《秘密列車》:“開到兩站地,只剩八寸水,又開一站,剩的只有三寸了,偏偏又要上坎.” 13.憂,恨.漢揚雄《太玄·內》:“爾儀而悲,坎我西階.”范望注:“坎,憂也.”參見“坎毒”. 14.象聲詞.形容物相撞擊.《詩·陳風·宛丘》:“坎其擊鼓,宛丘之下.”宋蘇軾《石鍾山記》:“有大石當中流……空中而多竅,與風水相吞吐,有窾坎鏗鞳之聲.”參見“坎坎”. 15.方言.剛,才.《海上花列傳》第六回:“就是坎做起要鬧脾氣勿好.” 16.姓.明有坎輝.見《奇姓通》.(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4769頁).





3) 坎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坎字의 字形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形聲字로 해설되었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字源流字典』에서는 形聲兼會意字로 해설되었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字源流字典』의 ‘從土,欠聲’의 해설에서 ‘欠’에 대한 의미를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는 ‘입을 벌려 탄식하다’는 뜻을 취하고 있고, 『漢字源流字典』에서는 ‘흠결’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입을 벌려 탄식하다’는 뜻은 欠字의 象形字로서의 意味이고, ‘흠결’의 의미는引申된 意味이다.⁴³⁾ 이 두 意味가 가리키는 것은 땅에 있는 구덩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前者는 구덩이의 모양을 말하고 있고, 後者는 땅의 쓰임새로서의 瑕疵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欠’으로 地面에 패인 ‘구덩이’를 표현하고 있다.

(2) 字義 分析

坎字의 字義에 대한 分析은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字義를 중심으로 『說文解

43) “欠 甲骨文  小篆  [字形及本義] 甲骨文像一個人向右跪着，張着大口打呵欠的樣子。小篆下部是人，上部變成三撇，像人的頭髮或像人向上舒出氣體。《說文》：“欠，張口气，悟也。象气從人上出之形。”“欠”的本義是“呵欠”。[字義演繹] ① 呵欠。疲倦時張口出气。動詞。《儀禮·士相見禮》：“君子欠伸(君子神倦則打呵欠，體倦則伸懶腰)。”白居易《江上對酒二首》：“眠多愛欠伸(睡眠久了起來，愛打呵欠和伸懶腰)。”現如：打呵欠。② 因“呵欠”含有精力不足矣，所以引申為“不足”、“缺乏”。形容詞或動詞。《靈樞經·經脉》：“小便數而欠(小便密而少)。”陸游《老學庵筆記》卷一：“甚妙(很妙)，但似欠四字耳(但是好像缺少了四個字)。”現如：文章欠通；身體欠安。③ 由“不足”引申為“亏欠”。動詞。《舊唐書·宣宗紀》：“今後凡隱盜欠負(今後凡是隱藏偷盜亏欠財物)，請如官典犯贓例處分(請按官典犯贓例進行處分)。”現引申為“借別人的財物沒歸還”。如：他還欠一千元借款。④ 因打呵欠有張口擡頭的動作，所以後來又引申為“身體一部分稍微向前伸或向上移動”。動詞。《紅樓夢》第八十一回：“黛玉聽見是襲人，便欠身起來讓座。”(흠 갑골문  소전  [자형 및 본의] 갑골문의 자형은 한 사람이 오른 쪽으로 꿇어앉아 크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소전의 아래쪽은 사람이고, 위쪽은 빠진석삼으로 변형되었다. 모양이 사람의 두발 또는 사람이 위를 향하여 숨을 내뿜는 모양이다. 《설문》: “흠, 하품을 하며 기운을 차리는 것이다. 모양은 숨이 사람으로부터 위로 나가는 형상이다.” “흠”의 본의는 “하품”이다. [자의연석] ① 하품하다. 피곤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내쉬는 것이다. 동사. 《의례·사상견례》: “君子欠伸(군자도 정신이 피곤하면 하품을 하고, 몸이 피곤하면 기지개를 켜다).” 백거이 《강상대주이수》: “眠多愛欠伸(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면,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는 버릇이 있다).” 현재도 하품하다이다. ② “하품”을 한다는 것에는 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신된 것이 “부족”, “결핍”이다. 형용사 또는 동사이다. 《영추경·경맥》: “小便數而欠(소변을 자주 보나 소량이다).” 육유 《노학암필기》 권일: “甚妙(참으로 훌륭하거나), 但似欠四字耳(그런데 마치 네 글자가 빠진 것만 같으니).” 현재는: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다; 몸이 편찮다. ③ “부족”에서 인신되어 “빚지다”. 동사. 《구당서·선종기》: “今後凡隱盜欠負(금후로는 도둑질하여 숨기는 것은 재물을 빚진 것으로 하여), 請如官典犯贓例處分(관리는 장물취득죄에 준하여 처분하도록 하시옵소서).” 현재는 인신되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 것을 말 한다”. 예를 들면: 그는 일천 원을 빚지고 갚지 않고 있다. ④ 하품을 하는 것은 입을 벌리고 머리를 드는 동작이다, 그래서 후에 다시 인신되어 “몸의 일부분이 조금 앞으로 퍼져나 또는 위로 움직이는 것을 말 한다”. 동사. 《홍루몽》 제팔십일회: “대옥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에게, 몸을 조금 일으켜 자리를 권하였다.”)(王朝忠編著, 『漢字形義演繹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142면).

字』·『漢字源流字典』·『漢語大詞典』 등의 字義와 比較하면서 分析하고자 한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坎字의 字義는 本義인 ‘陷’을 비롯하여 卦名·酒器·墓穴·祭壇·空乏·擬聲語 등이다. 이 字義들에 대한 분석은 이 字義들이 取하고 있는 例文을 들어 字義가 어떻게 採擇되고 있는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① 陷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本義作「陷」解, (見說文段注)

『說文解字』 坎 陷也 從土欠聲 苦感切.

『漢字源流字典』 《說文·土部》：“坎,陷也. 從土,欠聲.” 本義爲地面低洼的地方,坑.

『漢語大詞典』 《易·說卦》：“巽, 入也; 坎, 陷也; 離, 麗也.”

‘陷’의 字義는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이나 『說文解字』·『漢字源流字典』은 『說文解字』의 字義를 本義로 삼고 있다. 즉 『說文解字』에서 字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漢語大詞典』은 『易經』의 「說卦傳」에서 例文을 取하고 있어 『易經』의 「說卦傳」에서 字義를 채택하고 있다. 『說文解字』는 중국 최초의 字典으로 『說文解字』이후의 字典編纂은 대체로 『說文解字』의 字義를 本義로 삼는다. 만약 本義가 『說文解字』와 다르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說文解字』의 字義를 등재하고 『說文解字』의 字義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다. 그만큼 『說文解字』는 漢字字典에서의 比重이 絶對的이다. 그런데 『漢語大詞典』에서 『說文解字』의 字義를 例文으로 取하지 않고 『易經』의 「說卦傳」에서 取하고 있는 것은 『說文解字』의 字義가 『易經』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原義의 文句를 例文으로 取하고 거기서 字義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卦名

卦名은 固有名詞이므로 字典이나 詞典이 다를 바가 없고, 「易經」의 文句 이외에 달리 例文이 있을 수 없다.

③ 酒器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小壘謂之坎」(爾雅·釋器).

『漢語大詞典』 《爾雅·釋器》：“小壘謂之坎.”

‘酒器’의 例文은 모두 『爾雅·釋器』 편에서 取하고 있다. ‘酒器’는 술을 담는 容器이고 ‘작은 술독’을 ‘坎’이라고 한다 하였으니 술독종류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固有名詞이므로 따로 分析할 것이 없다. 다만 술독의 名稱이라 하니 ‘坎’의 물을 象徵하는 것과 有關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墓穴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其坎深不至於泉」(禮·檀弓)

『漢字源流字典』 觀其葬焉, 其坎深不至於泉.

『漢語大詞典』 《禮記·檀弓下》:“孔子曰:‘延陵季子,吳之習於禮者也.觀其葬焉,其坎深不至於泉.’”

‘墓穴’의 例文은 모두 『禮記·檀弓』의 文句에서 取하고 있다. 즉 『禮記·檀弓』에서 字義가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禮記·檀弓』에서 ‘墓穴’이라는 뜻을 쓰기 위하여 坎字를 借用하였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었다거나 한 것이 된다. ‘墓穴’의 例文으로 쓰이고 있는 『禮記·檀弓』의 文句를 보면 孔子가 한 말이 記錄된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文句의 記錄은 孔子의 門下에서 記錄한 것으로 보이므로 戰國時代 후기의 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글자를 만들어서 썼다기보다는 ‘坎’의 本義가 ‘陷’ 즉 구덩이 이고 ‘墓穴’이 棺을 묻기 위하여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것이므로 ‘坎’의 ‘구덩이’가 자연스럽게 ‘墓穴’의 뜻으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⑤ 祭壇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相近於坎壇, 祭寒暑也。」(禮·祭法) ② 「祭月於坎」(禮·祭義).

『漢語大詞典』 《禮記·祭義》:“祭日於壇,祭月於坎.” 《禮記·祭法》:“四坎壇,祭四方也.”

‘祭壇’의 例文은 모두 『禮記·祭義·祭法』에서 取하고 있다. 壇은 땅을 돋우어 地面보다 높게 만든 것을 이르는 것이고, ‘坎’은 땅을 파서 地面보다 낮게 웅덩이를 만든 것을 이르는 것이다. 壇에서 드리는 祭祀는 太陽에게 드리는 祭祀이고, 坎에서 드리는 祭祀는 달에게 드리는 祭祀이다. 또한 더위에 대한 祭祀는 壇에서 드리고, 추위에 대한 祭祀는 坎에서 드린다는 것이 例文의 내용이다. 그러니 여기의 祭壇의

字義는 ‘坎’의 本義인 ‘陷’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웅덩이가 祭祀를 드리는 祭壇인 것이다.

⑥ 擬聲語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坎其擊鼓 …… 坎其擊缶」(詩·陳風).

『漢字源流字典』 坎其擊鼓, 宛丘之下 | 坎坎伐檀兮, 置之河之干兮 | 與風水相吞吐, 有窾坎鏜鞳之聲.

『漢語大詞典』 《詩·陳風·宛丘》:“坎其擊鼓,宛丘之下.”宋蘇軾《石鍾山記》:“有大石當中流……空中而多竅,與風水相吞吐,有窾坎鏜鞳之聲.”

‘擬聲語’의 例文은 모두 『詩經』에서 取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과 『漢語大詞典』은 따로 蘇軾의 『石鍾山記』에서 例文을 더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의 편찬 연도가 2011년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漢字源流字典』은 『漢語大詞典』의 字義를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漢語大詞典』의 편찬 연도는 1994년이다. 擬聲語는 字義分析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만한 것이 없다.

⑦ 空乏

‘空乏’의 例文은 「羹無糝其腹坎坎」(太玄·窮)이다. 『漢字源流字典』·『漢語大詞典』에서는 보이지 않는 字義이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도 이 字義에 대한 별다른 해설이 없어서 ‘坎’에 이 字義가 있게 된 淵源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 字義는 ‘坎者 土欠也.’에서 비롯된 듯하다. ‘空乏’은 ‘궁핍하다’ 즉 모자라다는 것이다. ‘坎者 土欠也.’ 역시 ‘坎’은 땅에 흠결 즉 모자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空乏’의 뜻이 ‘坎’에 들어 있다.

4) 卦名 坎의 生成

坎卦는 ‘陷’을 基本性格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序卦傳」에서 大過卦 다음에 位置한다. 坎卦의 文樣인 ☵은 두 陰☷ 사이에 陽☰ 하나가 들어 있다. 陽이 陰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은 ☵을 나타낸다. ☵은 즉 땅이다. 이 땅 가운데가

옴쪽 좌여서 구덩이가 된 곳에 一이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坎卦의 文樣인 ䷜을 文字로 표현한 것이 ‘坎’이다. 坎字는 甲骨文이나 金文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文字이다. 甲骨文이나 金文에 나타난 文字라면 坎字의 初期의 書體를 볼 수 있었을 것이나 小篆에만 나와 있으니 小篆 以前의 初期文字 形體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坎字가 쓰인 것은 小篆 以前의 文籍에서 쓰이고 있다. 坎字가 經典에 쓰인 것은 擬聲語로 『詩經』에서 쓰였고, 또 다른 古典에 쓰인 것은 『禮記』와 『左傳』에서 ‘陷’의 의미로 쓰였다. 『詩經』·『禮記』·『左傳』은 모두 小篆 以前의 文籍 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甲骨文과 金文에는 나오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推定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坎字의 初期 字形이 小篆과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는 ‘坎’의 뜻이 쓰인 文章이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推定에서 坎字를 쓴 文章이 없을 것이라는 推定은 甲骨文과 金文의 時代에는 文字가 적어서 『易經』에서 쓰고 있는 文字라면 당연히 使用되었을 것을 前提로 하는 推定이다. 甲骨文과 『易經』의 文字는 같이 쓰이는 文字였다. 卜人과 筮人은 다 같은 官職의 官員들로 같은 部署에서 같이 職務를 遂行하였다.⁴⁴⁾ 그렇기 때문에 甲骨文과 『易經』의 文字는 같이 쓰였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易經』에서 쓰이고 있는 文字가 甲骨文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坎字에 있는 字義가 쓰일 文章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坎字의 字義는 ‘陷’ 하나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坎字에 담겨져 있는 意味는 ‘陷’의 意味 이 외에 ‘險·溝瀆·隱伏·矯揉·弓輪·憂·心病·赤·美脊·通·月·盜’ 등 이 외에도 列舉하지 못한 意味가 相當數 있다. 당시 卜占과 筮占이 같은 部署에서 行해지고 있고 文字의 숫자도 모든 뜻을 다 表現할 만큼의 숫자도 없었을 것으로 보아 坎字가 쓰일 文章이 없었을 것이라는 推定은 首肯하기 어려운 推定이다. 그렇다면 坎字의 初期 字形이 小篆의 字形과 다를 것이라는 推定이 說得力이 있는 推定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小篆은 秦의 始皇帝에 의해 文字의 統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小篆은 秦篆이라고도 불리며,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할 때 쓰인 서체를 가리킨다. 전국시기에는 칠국에서 쓰던 문자의 형체가 각각 달랐다. 진시황이 육국을 평정하

44) “大卜掌三兆之法一曰玉兆二曰瓦兆三曰原兆其經兆之體皆百有二十其頌皆千有二百掌三易之法一曰連山二曰歸藏三曰周易其經卦皆八其別皆六十有四。(대복은 삼조의 법을 관장한다. 첫째는 옥조, 둘째는 와조, 셋째는 원조다. 그 경에는 조짐의 형체에 대해 모두 120가지가 있고, 그 송에는 모두 1200가지가 있다. 삼역의 법을 관장함에는 첫째 연산역이고, 둘째 귀장역이고, 셋째 주역이다. 그 경에는 괘가 모두 팔괘에서 나뉘어져 도합 64괘가 있다.)”(이준영 역해, 『주례』, 자유문고, 2002, 284면).

고 문자를 통일시켜서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나라의 문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파기해 버렸다. 이 때 진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籀文도 省改 되었다.”⁴⁵⁾

小篆은 籀文을 모태로 한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된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坎字의 小篆 字形이 매우 精巧하고 字義가 ‘陷’인 경우의 兼聲會意字로서 완벽한 合體字라고 할 수 있다. ‘陷’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土’와 ‘欠’을 結合하였는데 義符와 聲符의 配置도 左側이 義父인 ‘土’로 右側이 聲符인 ‘欠’으로 配列하여 六書의 體例로 볼 때 매우 세련된 合體字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勘案해 볼 때 坎字의 初期 字形은 땅에 구덩이가 파이고 그곳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을 形象한 象形字의 形態였을 것이나, 文字統一을 할 때 아예 意味的 結合으로 새롭게 兼聲會意字를 만들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 文字統一 당시 ‘秦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籀文도 省改 되었다’고 하였으니 더욱 이러한 推定이 뒷받침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甲骨文이나 金文에 실제로 初期의 坎字가 있을 지라도 小篆의 字形과 判異하게 달라서 坎字로 보이지 않아서 甲骨文과 金文에 坎字가 없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乾卦와 坤卦의 卦名이 卦의 文樣으로 文字를 만들어 卦名字로 쓴 것으로 볼 때 坎卦의 卦名도 卦의 文樣으로 文字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文字初期의 字形을 갖는 甲骨文이나 金文에서 찾아 볼 수 없어 더 이상 卦의 文樣이 文字化되었음을 입증할 길은 없다. 그러나 坎字는 坎卦의 文樣인 ䷜가 나타내고 있는 ‘陷’의 意味에 따라 ䷜의 卦名으로 造字되었음을 字形 字義 分析을 통하여 認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坎’은 坎卦의 文樣인 ䷜에서 卦名으로 生成된 文字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5) “小篆은 秦篆이라고도 불리며,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할 때 쓰인 서체를 가리킨다. 전국시기에는 칠국에서 쓰던 문자의 형태가 각각 달랐다. 진시황이 육국을 평정하고 문자를 통일시켜서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나라의 문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파기해 버렸다. 이 때 진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籀文도 省改 되었다.”(全廣鎭 編譯,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1992, 82면).

4. 離 ☲

1) 離卦의 物象

離卦는 두 개의 陽劃과 하나의 陰劃으로 이루어진 卦로 卦의 文樣은 ☲이다. 離卦는 불을 象徵하는 卦이다⁴⁶⁾. ☲는 가운데가 陰이고 바깥 양쪽이 陽이다. 불은 겉이 밝고 안쪽은 어둡다. 촛불이나 장작이 탈 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陰은 어둡고 陽은 밝은 것이니 陰劃과 陽劃으로 불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離卦의 物象으로는,

“리는 남방의 괘이고, 만남 · 밝음 · 걸림 · 썩 · 날아가는 새 · 암소 · 눈(目) · 얼굴 · 태양 · 번개 · 중녀 · 甲冑 · 병기 · 大腹 · 건조 · 자라 · 계 · 소라 · 조개 · 거북 · 마른 가지 · 화살 · 도끼 · 여름 · 한낮 · 울타리 · 감옥 · 방비 · 쓴맛 · 통치 · 예의 · 정성 · 관대 · 분별 · 기쁨 · 아름다움 · 史官 · 무인 · 신되.”⁴⁷⁾ 등이 있다.

이러한 物象들이 담겨 있는 卦의 文樣이 ☲이고 名稱은 ‘離’이다. 즉 離字 속에 이러한 物象들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2) 離字의 字形 字義 解說

(1) 『說文解字』의 離字 解說

離 피꼬리이다. 피꼬리가 울면 누에도 나온다. 隹를 따르고 离聲 이다. 呂支반절이다.”⁴⁸⁾


46) “離 爲火”(『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50면).

47) “相見乎離…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 蓋取諸此也. …離麗也…離爲雉…離爲飛鳥…離爲目…離爲火爲日爲電爲中女爲甲冑爲戈兵其於人也爲大腹爲乾卦<乾音干>爲鼈爲蟹爲蠃爲蚌<一作蚌>爲龜其於木也爲科上槁. …離爲矢<馬融王肅云>虞氏曰離爲斧<又爲網>爲夏<干寶易爲畫>…離爲墉爲獄爲防閑爲苦爲治爲禮爲誠爲寬爲辨<又爲喜爲嘉>爲史爲武人<又爲孚>”(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八 [說卦傳]).

48) “離 隹黃倉庚也 鳴則蠶生 從隹离聲 呂支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76면).

『說文解字』에서의 離字는 字形이 ‘從隹离聲’의 形聲字이고, 字義는 ‘피꼬리’ 로, ‘피꼬리’라는 특정된 새를 지목하고 있다. ‘피꼬리가 울면 누에도 나온다.’고 하는 解說은 ‘피꼬리’를 특정 지우는 解說이다. 따라서 『說文解字』에서의 離字는 ‘피꼬리’의 고유명사적인 解說이라 할 수 있다.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離字 解說


離 來성모  隹를 따르고, 새를 잡는 용구를 따랐다. 글자의 모양이 새를 잡는 형상이다. 본의는 새를 잡다. 《설문》: “리 피꼬리이다. 피꼬리가 울면 누에도 태어난다. 추를 따르고 리성 이다.” 단옥재주: “새이다 창경이라고 한다, 피꼬리이다.”

卜辭義:


1. 포획의 뜻으로 쓰였다. “辛巳卜, 在糞, 今日王逐兕离, 允离七兕” 이 복사의 뜻은, 신사일에 분이라는 곳에서 복점을 쳤는데, 과연 일곱 마리의 코뿔소를 포획하였다는 뜻이다.
2. 떠나가다 의 뜻으로 쓰였다. “점치는 자가 물었다: 그는 토방을 떠나지 않았다.”
3. 가차되어 일기의 복사에 나온 정인의 名稱으로 쓰였다. “갑오에 점을 쳤다, 리가, 점을 쳐 물었다.”⁴⁹⁾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의 離字는 字形이 ‘從隹從捕鳥器’의 會意字라 하였다. 離字가 离와 隹의 合體字이므로 ‘從捕鳥器’라고 하는 것은 离를 ‘捕鳥器’로 보고 있는 것이다. 本義는 ‘새를 잡다’이다. 卜辭義로서 쓰인 字義는 ‘포획하다 · 떠나가다’의 뜻으로 쓰였고, 假借되어 인명에 쓰인 것으로 解說 되었다.

(3) 『漢字形義演釋字典』의 離字 解說

離(离) /li/ 갑골문  소전 離

[자형 및 본의] 갑골문의 윗면은 “새”이다. 즉 “隹추”; 아래 부분은 모양이 새를 잡

49) “離 來 歌  從隹, 從捕鳥器, 字象捕鳥之形. 本義是捕鳥. 《說文》: “离, 黃倉庚也, 鳴則蠶生, 從隹离聲.” 段玉裁注: “釋鳥曰倉庚, 鶯黃也.” 卜辭義: 1. 用作捕獲. “辛巳卜, 在糞, 今日王逐兕离, 允离七兕”意謂辛巳日占卜在糞地方, 果然捕獲七頭犀牛. 2. 用作离去. “貞: 弗其离土方” 3. 借用作一期卜辭貞人名. “甲午卜, 离, 貞”(馬如森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94면).

는 자루가 긴 그물인 “畢罫”이다. 추와 필이 합쳐져서 나타낸 모양이 새가 그물을 빠져나가 날아가는 형상이다. 소전에서 “(畢)”이 “離”로 잘못 변화되었는데, 聲符를 표시하고 있다. 《광운·우운》: “리, 가까운 것을 리라 하고, 먼 것을 별이라 한다.” “리”의 본의는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다. 이다.

[자의연석]

❶ 本義는 소멸되었다. 인신의가“새의 이름”으로 되었다. 피꼬리, 즉 “황리”, 현재는 “황앵”이라 한다. 명사. 《설문·추부》: “리, 리황, 피꼬리이다.”

❷ “새가 날아가다”에서 인신되어 넓게 가리키는 뜻으로 “떠나가다” · “헤어지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역·건》: “進退無恒(혹 도약하여 전진하거나, 혹 도약하여 후퇴하거나, 일정함이 없다), 非離群也(단 집단에서 떠나지 않는다).” 《맹자·양혜왕하》: “父子不相見(父子가 만날 수 없고), 兄弟妻子离散(兄弟妻子가 東으로 떠나고 西로 흩어진다).” 현재는“떠나다”로 쓴다. 예를 들면: 집을 떠나다; 직장을 떠나다.

❸ “떠나다”에서 인신되어“분리하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사기·봉선서》: “秦始與周合(진나라는 주의 평왕으로부터 양공이 제후로 봉해진 후 주왕실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合而離(결합한 후에 다시 분리하였다).” 현재의: 이혼; 이별. 과 같은 것이다.

❹ “떠나다”에서 인신되어 “이반하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좌전·은공사년》: “阻兵无衆(무력에 의지하면 군중이 없어지고), 安忍无親(잔인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 친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衆叛親離(대중이 배반하고, 친근한 사람들이 이반하게 되니), 難以濟矣(성공하기는 어렵다).”



❺ “이반하다”에서 인신되어 “위배하다” · “위반하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관자·임법》: “故聖君置儀設法而固守之(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법도를 세워 확고하게 집행한다.)……信近親愛者不能離也(군주의 친신·근신·친속과 총애를 받는 사람들은 법도를 위반하지 않는다).” 현재의 예를 들면: 도리에 어긋나다.

❻ “떠나다”에서 또 인신되어 “경과하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사기·소진열전》: “我離兩周而觸鄭(내가 동서 양주를 경과하였는데 신정을 공격하였다), 五日而國舉(5일 만에 한국 전체를 점령하였다).”

❼ “떠나다”에서 또 인신되어 “떨어지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삼국연의》 제십육회: “원문에서 중군이 일백 오십 보쯤 떨어져 있었다.” 현재의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을에서 떨어져 정거장에 가까워졌다; 북경은 천진에서 이백 여리 떨어져 있다.

- ⑧ “새가 날아가다”에서 인신되어 “잃어버리다” · “놓치다”의 뜻이 되었다. 동사. 《국어·주어하》: “言爽(말한 대로 지키지 않고), 日反其信(하루하루 신의를 위배하는 것이 가중되고 있고); 聽謠(아침하는 말만 많이 들으니), 日離其名(하루하루 군주의 명성만 잃어버리고 있다).” 《회남자·숙진》: “而知乃始昧昧啾啾(사람들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학문에 의해서인 듯하다), 皆欲離其重蒙之心(모두 어리고 몽롱한 심태를 버리려고 한다).” 현재는 인신되어 “결핍하다”의 뜻이 되었다. 예를 들면: 공업발전에는 철강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 ⑨ 借指“팔괘의 하나”. 명사. 《역·설괘》: 離爲火(리괘는 불이다), 爲日(태양을 象徵한다), 爲電(번개를 象徵한다).⁵⁰⁾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의 離字의 字形에 대해 甲骨文은 會意字로, 小篆은 形聲字로 解說하고 있다. 다만 甲骨文의 下面에 있는 ‘畢’이 小篆에서 ‘离’로 잘못 변화되면서 聲符가 되어 字音이 /li(리)/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甲骨文의 ‘離’字의 字音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隹 + 畢]로 이루어진 合體字 ‘離’의 字音이 ‘畢’이 잘못 변화한 ‘離’의 字音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字義에 대한 解說은 本義가 滅失 된 것으로 설명하고 引申義로 ‘피끄리 · 떠나가다 · 분리하다 · 이반하다 · 위반하다 · 경과하다 · 떨어지다 · 잃어버리다 · 과명’ 등의 字義를 解說하였다. 그런데 ‘⑨ 借指“八卦之一”. 名詞.’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名詞로 八卦중 하나의 名稱으로 解說하면서 假借된 字義라고 하였다. 假借는 나타내려는 뜻을 가진 글

50) “离(離) li 甲骨文  小篆  [字形及本義] 甲骨文上面是“鳥”，即“隹”；下部像捕鳥的長柄網“畢”。合起來以畢捕鳥，像鳥飛离畢形。小篆將“(畢)訛變成“离”。表聲。《廣韻·友韻》：“离，近曰离，遠曰別。”“离”的本義指“鳥飛离”。[字義演釋] ① 本義消亡。引申指“鳥名”。离黃，即“黃鸝”，現稱“黃鶯”名詞。《說文·隹部》：“离，离黃，倉庚也。” ② 由“鳥飛离”引申泛指“离去”·“离开”。動詞。《易·乾》：“進退無恒(或跳躍前進，或跳躍後退，沒有一定)，非离群也(但不是离开群體)。”《孟子·梁惠王下》：“父子不相見(父子不能見面)，兄弟妻子离散(兄弟妻子東逃西散)。”現作“离开”。如：离家；离職。 ③ 由“离开”引申爲“分開”。動詞。《史記·封禪書》：“秦始與周合(秦國自周平王封襄公爲諸侯和周室合而爲一)，合而离(結合後又分開)。”現如：离婚；离別。 ④ 由“离开”引申爲“叛离”·動詞。《左傳·隱公四年》：“阻兵无衆(依仗武力就沒有群衆)，安忍无親(安于殘忍就沒有親信)。衆叛親离(大眾背叛，親近叛离)，難以濟矣(難于成功了)。” ⑤ 由“叛离”引申爲“違背”·“違反”。動詞。《管子·任法》：“故聖君置儀設法而固守之(所以，聖明君主立下法度而堅定地執行它)……信近親愛者不能离也(君主的親信·近臣·親屬和被寵愛的人們，就不可能違背法度了)。”現如：离經叛道。 ⑥ 由“离开”又引申爲“經歷”。動詞。《史記·蘇秦列傳》：“我离兩周而觸鄭(我經過東西兩周而攻擊新鄭)，五日而國舉(只要五天，就可將整個韓國攻占下來)。” ⑦ 由“离开”又引申爲“距”。動詞。《三國演義》第十六回：“轅門离(距)中軍一百五十步。”現如：我們村离(距)車站很近；北京离(距)天津二百多里。 ⑧ 由“鳥飛离”又引申爲“失去”·“失掉”。動詞。《國語·周語下》：“言爽(說話不算數)，日反其信(一天天的更加違背信義)；聽謠(聽多了奉承話)，日离其名(一天天失掉君主的名聲)。”《淮南子·俶眞》：“而知乃始昧昧啾啾(人們的智慧開始萌發，若有所知)，皆欲离其重蒙之心(都要失去童稚朦朧的心態)。”現引申爲“缺少”。如：發展工業离(缺少)不了鋼鐵。 ⑨ 借指“八卦之一”。名詞。《易·說卦》：离爲火(离卦是火)，爲日(象徵太陽)，爲電(象徵閃電)”(王朝忠 編著，『漢字形義演釋字典』，四川辭書出版社，2006，960면).

자가 없을 때音が 같은字를 使用하는 것이다. 물론 通假도 있으나 여기서는 通假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通假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通假字의 本字도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설명은 假借正例에 속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離卦는 그卦를 이름 할 때 /li(리)/라고 이름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離卦가 /li(리)/라고 이름 되었다는 설명이 없다.

(4)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離字 解説

離

[자형] 소전 離 에서 離 (형성자) 갑골문과 금문에는 리 자가 없다. 소전의 리는 추를 따르고 리성 이다, 본래는 「리황」을 가리키는 것인데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이다, 리황의 본의는 「창경」이다, (통훈정성에 나온 것을 보면) 머리는 검은 색이고 몸은 노란색으로 고운 목소리로 잘 우는 새의 이름이라고 해설되었다. 그래서 리가 추를 따르는 것이다.

[자음] 力移반절로 자음은 梨이다. ㄴ- Li ㅍ성 支운

[자의] 명사

- ①분리를 리라 한다; 일반적으로 취·합·회의 뜻과 상대적인 뜻이다.
- ②등급의 차이를 리라 한다.
- ③벼를 따라서 생장하며 모양이 벼와 비슷한 풀을 리라 한다.
- ④해와 달을 리라 한다.
- ⑤사취를 리라 한다.[사취를 일리라 하고, 오리가 일체가 된다, 오제가 일전이 되고, 이전이 일부가 된다, 삼부가 일가가 된다, 이것은 생산조직의 제도이다.](관자·승마)
- ⑥남을 리라 한다.(주비산경)
- ⑦대금을 리라 한다.(이아·석악)
- ⑧현악기의 음을 리라 한다.(예기·악기소)
- ⑨산배를 리라 한다; 梨와 통용된다(한서·사마상여전)
- ⑩울타리를 리라 한다; 籬와 통용된다.[내가 울타리 밖에서 명하는 것을 들었다]주: 번리·울타리이다(국어·오어)
- ⑪향초명; 리와 통용된다.(굴원·이소)
- ⑫괘명.
- ⑬성, 황제의 시대에 시력이 뛰어난 이루라는 사람이 있었다.

⑭찌꼬리.

⑮리소: 초사.

[자의] 동사

①분; 별; 위. 리는 나누다 이다. 리는 이별하다 이다. 리는 어기다 이다.

②멀리하다; (거성) 광아석고: 리는 멀리하다 이다.

③분산하다; 옥편: 리는 분산하다 이다. 회남자·본경 주석: 리는 불화 이다.

④배반하다. 국어·초어 주석: 리는 배반하다 이다.

⑤없다. 국어·주어 주석: 리는 없다 이다.

⑥판단하다; 단절하다.[일 년은 문장의 구를 끊어 읽어서 뜻을 분별하는 지를 본다.]

주: 리경, 구를 끊는 것이다.(례기·학기) [우리가 진나라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주: 리는 단절하다 이다.(전국책·진책)

⑦분할하다; 자르다. 리는 분할하다 이다(의례·사관례) 리는 규와 같다.(의례·향음주례)

⑧피하다. 리는 피하다 이다(후한서·류분자전)

⑨열다. 리는 열다 이다(장형·사현부)

⑩응하다. 리는 응하다 이다.(양웅·극진미신)

⑪재난을 만나다. ...에 걸리다; 당하다; 罹라와 통용된다.[어망을 놓았더니 기러기가 걸려들었네](시경·패풍)[진공자가 여희의 난을 당하여 국외로 도망하였는데도, 하늘이 진국을 안정시키지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장차 공자의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구해: 여희의 난을 당하여 외지로 도망하였다](좌전·회공 이십 삼년)[조나라의 화를 당하지 않으리라]색은: 離는 즉 罹이다; 리는 당하다 이다.(사기·관채세가)

⑫진열하다; 라와 통용 된다; 방언: 라를 리라 하고, 리를 라라 한다. 전소: 리와 라는 하나의 소리로 전용된다.

⑬경과하다; 력과 통용 된다. 리는 력이다; 천명의 도움이 아니면, 장구한 세월을 지낼 수 없는 것이다.(국語·진어)

⑭이간질 하다: 중간에서 양쪽을 충동질하여 친밀하지 못하게 하다.

[자의] 형용사

①별도의. 리는 별이다(송옥·초훈)

②이별의.

③리리: 대열이 정연한 모양.[저 기장은 대열도 정연하고, 저 피의 푸른 짙은 땅을 덮는구나.](시경·국풍·왕풍) 많은 열매가 달려있어 가지가 밑으로 드리워진 모양.[그 오동나무여 그 가래나무여, 그 열매로 가지가 드리워졌네](시경·소아·담로) 벗겨지고 찢긴 모양.(유향·구탄) 무성한 모양[들판 위에 무성한 풀은 한해 동안에 피고 시들지만; 들불을 놓아도 다함이 없어 봄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백거이·초시)

④리리연: 겉도는 모양[힘든 일을 할 때, 마지못한 듯, 겉도는 듯]집해: 리리·겉도는 모양.(순자·비십이자).

[자의] 부사

①둘이; 두사람이 나란히 있는 상태를 표시[둘이 앉아 있거나 둘이 서있거나 하는 곳에는 가서 참견하지 말라]주: 리는 둘이다.(례기·곡례)

②밝게; 분명한 상태를 표시[선제의 영예를 밝게 드러내다]주: 리는 밝게 이다(대대 예기·공관)

③리리연: 명백히 알수 있는 모양[서경에서 정사를 논한 것을 보면 그 밝음이 마치 일월을 대신하듯 하고 명백하기가 성신이 운행하는 것 같다](공충자·논서).

[자음] 里詣반절 음은 麗 力一 Lih 去聲 霽운

[자의] 명사. 리지: 과실명, 즉 려지[답답과 리지가 후궁에 널리, 북원에도 진열하였다]주 인장즙이 이르기를: 답답은 오얏과 비슷한데 축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 진작은 이르기를: 리지는 크고 닭 같은데 껍질이 거칠다, 껍질을 벗겨내면 속살이 마치 닭 같고 속은 노랗다, 맛은 단맛이 많고 약간 신맛도 난다.(사마상여·상림부).

[자의] 동사

①가다; 버리고 가다.[이 때에 희씨와 화씨가 그 덕을 뒤집어엎고 술에 빠져 어지러워지자 관원들이 그들을 거역하고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석문: 리, 려지반절 이다. (서경·윤정). [때로는 용기 있게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쳐 숨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원래 때에 따라 하는 것이다,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사는 까닭이 무엇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주: 리는, 거성(역경·건괘문언).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새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고; 성성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짐승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주: 리는, 거성.(예기·곡례)

②려; 저; 부착하다; 들러붙다; 麗와 통용된다[뽕나무 가래나무 숲을 보아도 공경하는 절을 하며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거늘 우리 부친을 우리르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 모친을 사

량하지 않은 적이 없거늘 갖옷 걸의 터럭이 가죽에도 붙어 있지 못하고 갖옷 속에도 붙어 있지 못하는구나.]집주: 리는, 려 이다. 裨는, 心腹이다.(시경·소아·소반). [거짓된 자에 붙어서]주: 리는, 저이다.(태현경·현리)

③우; 서로 만나다; 려와 통용된다.[일월성신의 운행을 맡은 관원은, 해와 달이이 성수와 짝하는 것을 관측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주: 리의 독음은 려우의 려와 같다. 석문: 리는. 우이다.(예기·월령). 형용사 서로 짝으로; 려와 통용된다.[리피라는 것은, 두 장의 가죽이다.(백호통). 부사 리미: 끊이지 않는 모양[끊임없이 이어져 넓게 펼쳐진다]주: 리미는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사마상여·상림부).

[자음] 抽知반절 음은 痴. 彳 Chy 平성 支운

[자의] 명사. 용과 비슷하고 누런 짐승을 離라고 한다; 螭와 통용된다.[기세당당하기가 호랑이 같고 큰 곰 같으며, 이리와 같고 리와 같다]집해: 환환은 기세당당한 모양; 離와 螭는 같다.(사기·주본기)⁵¹⁾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은 離字가 甲骨文과 金文에는 나오지 않는 闕字로 解說

51) “離 [形] 小篆 隸書 (形聲) 甲文·金文·離字闕. 小篆離從佳离聲, 本指「離黃」一詞而言, 離黃之本義作「倉庚」解, (見通訓定聲) 乃色黧黑而黃之鳴禽名, 故離從佳. [音] 力移切 音梨 ㄌㄧ 平 支 [義] 名 ①分離曰離; 常與聚·合·會·相對. ②位次之別曰離. ③隨稻生長形與稻似之草曰離. ④日月曰離. ⑤四聚曰離. [四聚曰一離, 五離爲一制, 五制爲一田, 二田爲一夫, 三夫爲一家, 事制也.](管·乘馬) ⑥南曰離. (周牌算經) ⑦大罇曰離. (爾雅·釋樂) ⑧絲絃之音曰離. (禮·樂記疏) ⑨山梨曰離; 通梨(漢書·司馬相如傳) ⑩離障曰離; 通離. [孤將親聽命於藩離之外]注: 藩離·壁落也(國語·吳) ⑪香草名; 通離. (屈原·離騷) ⑫卦名. ⑬姓, 黃帝時明日人離婁. ⑭離黃. ⑮離騷: 楚辭. 動①分; 別; 違. 離分也. 離別也. 離違也. ②遠; (去聲) 廣雅釋詁: 離遠也. ③散; 玉篇: 離散也. 淮南·本經注: 離不和也. ④叛. 國語·楚注: 離叛也. ⑤失. 國語·周注: 離失也. ⑥判; 斷絕. [一年視離經辨志]注: 離經·斷絕(經)句也. (禮·學記) [是則我離秦而攻楚也]注: 離·絕也(國策·秦) ⑦割; 剗. 離割也(儀禮·士冠禮) 離猶剗(同剗)也. (儀禮·鄉飲酒禮) ⑧避. 離避也. (後漢書·劉盆子傳) ⑨開. 離開也. (張衡·思立賦) ⑩應. 離應也. (揚雄·劇秦美新) ⑪遭; 被; 通罹. [魚網之設鴻則離之](詩·邶風)[晉公子 … 離外之患, 而天不靖晉國, 殆將啓之; 句解: 自遭驪嬉之患出奔在外](左·僖廿三年) [無離曹禍]索隱: 離即罹; 罹被也. (史記·管蔡世家) ⑫陳列; 通羅; 方言: 羅謂之離, 離謂之羅. 箋疏: 離與羅一聲之轉. ⑬經歷; 通歷. 離歷也; 非有天命祐助, 不能歷世長久也. (國語·晉) ⑭離間: 從中挑撥使之兩不親附. 形①別在的. 離別也(宋玉·招魂) ②離別的. ③離離: 行列分明貌. [彼黍離離, 彼稷之苗](詩·王風) 衆實下垂貌. [其桐其椅, 其實離離](詩·小雅) 剝裂貌. (劉向·九歎) 茂盛貌. [離離原上草, 一歲一枯榮; 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白居易·草詩) ④離離然: 不親事貌. [勞苦事業之中, 則億億然離離然]集解: 離離·不親事之貌. (荀·非十二子). 副①兩; 兩者相並表性態 [離坐離立, 毋往參焉]注: 離兩也. (禮·曲禮) ②名; 明表性態 [離顯先帝之光曜]注: 離明也(大戴禮·公冠) ③離離然: 分明可見貌 [書之論事也, 昭昭然若日月之代行, 離離然若星辰之錯行](孔叢子·論書). [音] 里詣切 音麗 ㄌㄧ 去 霽 [義] 名 離支: 果實名, 卽荔枝 [答逖離支羅乎後宮, 列乎北園]注引張揖曰: 答逖似李, 出蜀. 晉灼曰: 離支大如鷄子, 皮麤, 剝去皮, 肌如鷄子, 中黃, 味甘多酢少. (司馬相如·上林賦). 動①去; 舍去. [惟時義和顛覆厥德, 沈亂于酒, 畔官離次]釋文: 離, 力智反. (書·胤征). [進退无恒, 非離群也]注: 離, 去聲(易·乾文言). [鸚鵡能言, 不離飛鳥; 猩猩能言, 不離禽獸]注: 離, 去聲. (禮·曲禮) ②麗; 著; 附麗; 附著; 通麗 [維桑與梓, 必恭必敬; 靡瞻匪父, 靡依匪母; 不屬於毛, 不離于裡]集注: 離, 麗也. 裡, 心腹也. (詩·小雅). [離乎僞者]注: 離, 著也. (太玄·玄離) ③偶; 相偶; 通麗. [司天日月星辰之行, 宿離·不貸]注: 離讀如麗偶之麗. 釋文: 離, 偶也. (禮·月令) 形 相偶的; 通麗. [離皮者, 兩皮也. (白虎通) 副 離靡: 不絕貌 [離靡廣衍]注: 離靡不絕之貌. (司馬相如·上林賦). [音] 抽知切 音痴 彳 Chy 平 支 [義] 名 似龍而黃之獸曰離; 通螭. [尙桓桓如虎如羆, 如豺如離]集解: 桓桓威武貌; 離與螭同. (史記·周本記) [辨正] (同字異體) 离. (離簡字) (相對義字) 合·會·聚·集. (連文異義) 近曰離, 遠曰別.”(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993年).

하였다. 甲骨文을 字形으로 해설하고 있는 字典과는 다른 解說이다. 字音은 梨 · 麗 · 痴 등 세 가지의 字音을 解說하고 있다. 字義에는 名詞로 分離 · 位次 · 稻草 · 日月 · 四聚 · 南 · 大琴 · 絃音 · 山梨 · 籬障 · 香草 · 卦名 · 姓 · 離黃 · 離騷 · 離支 · 螭 등 17개이며, 動詞로는 分 · 遠 · 散 · 叛 · 失 · 判 · 割 · 避 · 開 · 應 · 遭 · 陳列 · 經歷 · 離間 · 去 · 麗 · 偶 등 17개이며, 形容詞는 別在的 · 離別的 · 離離 · 離離然 등 4개이고, 副詞로는 兩者相並表性態 · 明表性態 · 分明可見貌 등 3개로 총 41개의 字義가 해설되었다. 하나의 글자가 41개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의 本義에서 假借되거나 引申義 되거나 하여 字義가 불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假借義와 引申義가 분리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本義를 제외한 字義는 모두 假借義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즉 字音에 의한 字義分化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漢字源流字典』의 離字 解說

離

【자형】 갑골문  전문 𪚩 離

【구조】 회의 겸 형성자. 갑골문의 아래쪽은 자루가 달려 있는 그물이다. 그물 안에 새가 한 마리 있다. 대개 피꼬리이다. 피꼬리가 그물에 걸려든 것을 표시하고 있다. 고문에는 그물을 잡고 있는 손이 더해졌고, 새가 두 마리로 되었는데 한 마리는 날아가고 있다. 전문에서는 위쪽의 새가 𪚩로 잘못 변화하였고, 아래쪽은 그물의 자루를 잡은 손이 잘못 변화하여 內가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형이 불명확하게 되자 다시 의부로 隹를 첨가하였다. 예서의 변화를 거친 후 해서에서 離와 離를 제각기 썼는데, 후에는 두 개의 글자로 분리되어서 각기 다른 뜻을 표시하였는데: “隹”는 새가 포획되는 것을 표시하게 되다가, 후에는 산속에 사는 신령한 짐승을 표시하게 되었다; “리”는 새의 名稱을 표시하게 되었는데, 隹를 따르고 離를 따르는 회의자가 되었다. 離는 성부도 겸하였다. 지금은 간화되어 “離”를 “隹”로 쓰고 있다.

【본의】 《설문·유부》: “리, 산속의 신령한 짐승이다. 금두를 따르고, 유를 따르고, 隹를 따랐다.” 해석을 산림에 있는 신령한 짐승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魑”나 “螭”의 本字로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전문에 근거한 해설임이 분명하다. 본의는 새가 붙잡힌 것이다. 《설문》에는 《추부》에 리가 또 있다. 《추부》: “리, 리황, 창경이다. 추를 따르고 리성 이다.” 본의는 황리, 새의 이름이다. 고대에는 창경이라 하였고, 지금은 황앵(피꼬리)이라 한다.⁵²⁾



『漢字源流字典』의 離字 解說에서는 本義까지만 말채하였다. 【演變】 이하의 字義는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字義分析에 參照될 것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漢字源流字典』은 字形構造를 會意兼形聲字로 解說하고 있고, 甲骨文에서 小篆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字形이 잘못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잘못 변화된 관계로 离와 離 두 字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고, 离와 離를 분리하여 解說하고 있다. 따라서 本義도 离와 離 두 字의 字義를 각각 解說하여, 离의 本義는 ‘새가 붙잡히다’ 이고, 離의 本義는 ‘피꼬리’로 解說하고 있다. 本義의 근거가 『說文解字』인데, 離의 字義는 『說文解字』와 같으나, 离의 字義는 『說文解字』와 다르게 解說하고 있다.


3) 離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離字의 字形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形聲字로 해설되었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會意字로 해설되었으며,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甲骨文은 會意字로 小篆은 形聲字로 해설되었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는 形聲字로 해설되었으며, 『漢字源流字典』에서는 會意兼形聲字로 해설되었다. 『說文解字』와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는 甲骨文이 제외되었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과 『漢字形義演釋字典』 및 『漢字源流字典』에서는 甲骨文的 字形에 대한 解說이 동일하다. 모두 새와 새를 잡는 자루달린 새그물이 합쳐진 會意字로 解說하고 있다. 小篆의 字形에 대해서는 『漢字形義演釋字典』과 『漢字源流字典』이 甲骨文에서 小篆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字形이 잘못 변화되었다는 것은 같은 解說을 하고 있으나 『漢字形義演釋字典』은 離字 한 字만을 해설하고 있고, 『漢字源流字典』은 ‘离’와 ‘離’ 두 字로 解說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甲骨文이 제외된 字典이나 채택된 字典이나 모두 새의 形象이 字形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字義 分析

52) “离(離·鷓·罹·螭) 【字形】 甲  篆  【構造】 會意兼形聲字. 甲骨文下邊是個帶把的网, 网中有一只鳥, 大概是黃鷓, 表示黃鷓鳥遭到擒獲. 古文另加執网的手, 鳥變形, 成爲兩個, 其一飛去. 篆文上邊鳥訛爲中, 下邊网把手訛變爲內: 因其字形不明顯了, 便又另加義符佳. 隸變後楷書分別寫作离與離. 後分化成兩個字, 用以表示兩類不同的意思: “离”表示鳥遭到捕獲, 後借用以表示山神獸; “離”表示鳥名, 成了從佳從离會意, 离也兼表聲. 如今簡化, “離”仍由“离”表示. 【本義】 《說文·內部》: “离, 山神獸也. 從禽頭, 從內, 從中.” 解釋爲山林神獸, 是當作了“鷓”“螭”的本字, 這顯然是根據篆文所作的解說. 本義當爲鳥遭受捕獲. 又《佳部》: “離, 離黃, 倉庚也. 從佳, 离聲.” 本義爲黃鷓, 鳥名. 古稱倉庚, 今也叫黃鸝.”(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112면).

離字의 字義는 字形에서 새의 形象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字義도 새와 관계가 있는 字義가 되고 있다, 『說文解字』의 字義는 ‘피꼬리’이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本義는 ‘새를 잡다’이다, 『漢字形義演釋字典』의 本義는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다’이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本義는 『說文解字』의 字義를 本義로 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의 本義는, ‘禽’의 本義는 ‘새가 붙잡히다’ 이고, ‘離’의 本義는 『說文解字』의 字義를 本義로 하고 있다. 甲骨文의 離字의 字形은  이다, 이 字形에서 本義가 類推되고 있다, 『殷墟甲骨文實用字典』과 『漢字源流字典』은 本義가 ‘새가 잡히다’로 동일하다. 『殷墟甲骨文實用字典』과 『漢字源流字典』은 새가 새그물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漢字形義演釋字典』은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本義가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다’이다. ‘새가 그물에 잡히다’와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다’는 正反對의 뜻이다. 이것은 字形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字義가 正反對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거동의 수상한자가 있어서 하급기관의 관원이 그 거동의 수상한자를 불심건문하고 상급기관에 불심건문사항을 보고하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품신하였을 때 그에 대한 措置 公文으로  字 한 자가 상부에서 내려 왔다면, ‘새가 그물에 잡히다’는 뜻으로 보는 자는 그 거동의 수상한자를 수감할 것이며, ‘새가 그물을 벗어나 날아가다’는 뜻으로 보는 자는 그 거동의 수상한자를 그냥 보낼 것이다.

漢字는 뜻글자이다. 이 뜻글자가 이렇게 正反對의 뜻으로 解釋이 된다면 과연 뜻글자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漢字가 뜻글자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生成되는 字義에 대한 要素가 分明하여야 한다. 字義가 되는 要素가 分明히 있어야 生成된 字義가 明確한 뜻을 지니게 되고, 뜻이 明確한 字로 문장이 이루어져야 그 문장의 뜻이 正確히 傳達될 수 있는 것이다. 假借나 引申義의 不分明한 要素를 字義生成의 要因으로 置簿해 버릴 것이 아니라 字形에서 비롯되는 字義 生成 要素를 綿密히 把握하여 分明한 字義를 定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字義의 分明한 定義를 위한 方便으로 通用字의 通用要因을 分析하여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離와 麗의 通用

離字와 麗字의 通用이라는 것은 離字가 麗字의 字義로 쓰이는 것이다. 그 通用된 예가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語大詞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②麗; 著; 附麗; 附著; 通麗[維柔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 不屬於毛, 不離于裡]集注: 離, 麗也. 裡, 心腹也.(詩·小雅). [離乎僞者]注: 離, 著也.(太玄·玄攤)(②려; 저; 부착하다; 들러붙다;麗와 통용된다[뽕나무 가래나무 숲을 보아도 공경하는 절을 하며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거늘 우리 부친을 우러르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 모친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거늘 갖옷 걸의 터럭이 가죽에도 붙어 있지 못하고 갖옷 속에도 붙어 있지 못하는구나]집주: 리는, 려 이다.裡는, 心腹이다.(시경·소아·소반). [거짓된 자에 붙어서]주: 리는, 저이다.(태현경·현리))”⁵³⁾

‘麗’의 字義로 ‘附麗(부착하다)’를 쓰고 있으며, 例文은 『詩經·小雅·小弁』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에 ‘離’와 ‘麗’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麗’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②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1.通“麗”. 附著, 依附. 《易·離》: “彖曰: 離, 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 《詩·小雅·漸漸之石》: “月離於畢, 俾滂沱矣.” 朱熹集傳: “離, 月所宿也.” (“려”와 통용된다. 부착하다·붙다, 의지하다·붙쫄다. 《역경·리》: “단에 이르기를: 리는, 려 이다. 해와 달은 하늘에 붙어 있고, 모든 곡식과 초목은 땅에 붙어 있다.” 《시경·소아·점점지석》: “달이 필성에 붙었으니, 비가 쏟아지리로다.” 주희집전: “리는, 달이 머무는 곳이다.”)”⁵⁴⁾

‘麗’의 字義로 ‘附著(붙다)’를 쓰고 있으며, 例文은 『易經·離』와 『詩經·小雅·漸漸之石』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에 ‘離’와 ‘麗’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麗’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③ 離와麗의 通用 要因

‘離’와 ‘麗’가 通用되는 要因에 대하여 『周易四箋』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3)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993면.

5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7658면.

“序卦傳曰 離者麗也。○程子曰 火體虛 麗於物而明者也”⁵⁵⁾

‘序卦傳曰 離者麗也(서괘전에 이르기를 리라는 것은 려이다).’라는 말은 「序卦傳」上經의 마지막 文句이다.⁵⁶⁾ ‘序卦傳에서 離는 麗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序卦傳」의 卦의 次序에서 離卦는 坎卦의 뒤에 位置한다. 坎卦는 추락하는 것을 나타내는 卦이다. 坎卦의 추락을 뒤에서 받는 卦가 離卦이다. 추락하는 것은 언젠가는 추락을 멈추게 된다. 멈추게 되는 것은 무엇에 걸려 멈추든지 아니면 끝내 바닥까지 떨어져 밑바닥에 붙어서 멈추는 것이다. 즉 坎卦의 뒤에 놓인 離卦가 坎卦의 추락을 받아 추락이 멈추고 있으므로, 離卦는 걸림이 되든지 붙어있음이 되든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離字麗也’라고 한 것이다. 한편 ○程子曰 火體虛 麗於物而明者也(정자가 이르기를 불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체에 붙어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은 『程傳·離卦』傳文의 文句이다. 불은 물과 같이 天地開闢 以前에 存在하는 자기형체가 없는 氣이다.⁵⁷⁾ 물은 液體라는 形體가 있으나 불은 氣로서 일정한 形體가 없이 어떤 物體에서 氣로만 나타난다. 그 氣가 어떤 物體에서 불꽃으로 열과 빛을 발산하다가 그 物體가 소실되면 불도 사라진다. 불이라는 氣 자체는 어떤 固定된 形體로 홀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物質에 붙어서 機能을 한다. 그래서 ‘火體虛 麗於物而明者也’인 것이다. ‘離爲火’이고, ‘火麗於物’이다. 즉 ‘離者麗也’와 ‘火麗於物’는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離’에는 源泉的으로 ‘麗(附著)’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離’가 ‘麗’의 字義를 지니고 通用되는 것이 『易經』의 離卦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離와 麗의 通用

離字와 麗字의 通用이라는 것은 離字가 麗字의 字義로 쓰이는 것이다. 그 通用된 例가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語大詞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55)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四 [諸卦] ○第十八卦.

56) “陷必有所麗 故受之以離 離者麗也” 『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62면.

57) “天地始初混沌未分時, 想只有水火二者.”(黎靖德 編, 허탁·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청계출판사, 1999, 115면).

“①遭; 被; 通罹.[魚網之設鴻則離之](詩·邶風)[晉公子 … … 離外之患, 而天不靖晉國, 殆將啓之; 句解: 自遭驪媼之患出奔在外](左·僖廿三年)[無離曹禍]索隱: 離卽罹; 罹被也.(史記·管蔡世家)(①재난을 만나다. …에 걸리다; 당하다; 罹와 통용된다. [어망을 놓았더니 기러기가 걸려들었네](시경·패풍)[진공자가 … … 여희의 난을 당하여 국외로 도망하였는데도, 하늘이 진국을 안정시키지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장차 공자의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구해: 여희의 난을 당하여 외지로 도망하였다](좌전·회공 이십 삼년)[조나라의 화를 당하지 않으리라]색은: 離는 즉 罹이다; 리는 당하다 이다.(사기·관채세가))”⁵⁸⁾

‘罹’의 字義로 ‘遭·被(재난을 만나다. …에 걸리다· 당하다)’를 쓰고 있으며, 例文은 『詩經·國風·邶風』·『左傳·僖公二十三年』·『史記·管蔡世家』 등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에 ‘離’와 ‘罹’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罹’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②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16.遭受; 遭遇. 后多作“罹”. 《易·小過》: “弗遇過之, 飛鳥離之.” 孔穎達疏: “以小人之身, 過而弗遇, 必遭羅網, 其猶飛鳥, 飛而無託, 必離矰繳.” 唐韓愈《次硤石》詩: “數日方離雪, 今朝又出山.” 清顧炎武《詠史》: “哀哉周漢人, 離此干戈毒.”(16.만나다. 받다. 당하다. 입다; 불행한 일을 당하다. 후에는 대부분 “罹”로 썼다. 《역경·소과》: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나는 새가 그물에 걸렸다..” 공영달 소: “소인의 몸으로 지나쳐 만나지 못하니, 반드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새와 같아 날 때는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이니, 반드시 주살에 걸리게 되는 것과 같다.” 당 한유 《차협석》시: “여러 날 여기서 눈을 만나니, 오늘 아침도 또 산으로 나서네.” 청 고염무 《영사》: “슬프구나 주의 땅이여 한인들이 이곳에서 전쟁의 참화를 당하였구나.”)⁵⁹⁾

‘罹’의 字義로 ‘遭受; 遭遇.(만나다. 받다. 당하다. 입다; 불행한 일을 당하다.)’를 쓰고 있으며, 例文은 『易經·小過』·『次硤石』·『詠史』 등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

58)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993면.

59)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7658면.

에 ‘離’와 ‘罹’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罹’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③ 離와 罹의 通用 要因

‘離’와 ‘罹’가 通用되는 要因에 대하여 『周易四箋』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麗者罹也 雙丙爲目 <南方离火目> 鹿往離之 如於網也 字義然.(麗는 罹이다. 丙이 한 쌍으로 눈이 된다. <南方의 卦인 離는 불이 되고 눈이 된다.> 사슴이 가다가 걸려있다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다. 麗의 字義가 그러하다.)”⁶⁰⁾

‘離는 麗이다.’는 앞서 ‘離’와 ‘麗’의 通用에서 설명 되었다. 여기서는 ‘麗는 罹이다’⁶¹⁾이다. ‘離’와 ‘罹’의 通用관계에서 중간에 매개적으로 ‘麗’가 끼었다. 그러니까 ‘離’에 직접적인 ‘罹’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麗’에 ‘罹’의 뜻이 있기 때문에 ‘離’와 ‘麗’가 通用되므로, ‘麗’와 通用되는 ‘罹’가 ‘離’와 通用 된다는 것이다. ‘麗者罹也 雙丙爲目 <南方离火目>’은 ‘麗’와 ‘罹’의 관계를 설명하는 文句이다. 즉 ‘麗’는 두 개의 병(丙丙)과 사슴(鹿)자로 이루어진 合體字이다. ‘雙丙爲目’은 두 개의 ‘丙’이 눈(目)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丙’은 어떻게 눈(目)이 되는가, <南方离火目>이 두 개의 丙이 눈(目)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丙’은 十干의 세 번째 干支이고, 方位로는 南쪽에 해당하고, 五行으로는 火에 해당한다. ‘離’도 方位는 南쪽이고, 火를 象徵하며, 눈(目)의 物象을 지닌다.⁶²⁾ ‘離’는 陰陽의 範疇에 속하고 ‘丙’은 五行의 範疇에 속하나 陰陽五行의 範疇에서는 같은 性狀을 지닌다. 그러기 때문에 ‘離’에 있는 눈(目)의 物象이 ‘丙’에도 함축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丙’이 눈(目)이 되고, 눈(目)은 그물(罟)이 되는 것이다. 그물눈이라 하는 것은 그물의 코가 눈(目·罟) 같이 생겼다 하여 쓰는 말이다. ‘鹿往離之 如於網也’는 ‘麗’가 사슴(鹿) ‘丙’의 그물눈(目·罟)에 걸린 形象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麗’에 ‘罹’의 뜻이 있고 ‘麗’는 ‘罹’와 通用관계에 있으므로 ‘麗’와 通用관계에 있는 ‘離’와도

60)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四 [諸卦] ○第十八卦.

61) “3.麗. 通“罹”. 遭遇; 落入(3.러 “罹”와 同용된다. 불행한 일을 당하다; 덩에 걸리다).”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2738면.

62) “乾爲首坤爲腹震爲足巽爲股坎爲耳离爲目艮爲手兌爲口(건은 머리가 되고 곤은 배가 되고 진은 발이 되고 손은 다리가 되고 감은 귀가 되고 리는 눈이 되고 간은 손이 되고 태는 입이 된다)” (『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3면).

‘罹’가 通用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離’가 ‘罹’의 字義를 지니고 通用되는 것이 『易經』의 離卦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③ 離와 籬의 通用

離字와 罹字의 通用이라는 것은 離字가 罹字의 字義로 쓰이는 것이다. 그 通用된 例가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語大詞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通用 例

“⑩籬障曰離; 通籬.[孤將親聽命於藩離之外]注: 藩離·壁落也(國語·吳語)(⑩울타리를 리라 한다; 籬와 通用된다.[내가 울타리 밖에서 출동명령을 하는 것을 들었다.]주: 번리·울타리이다(국어·오어))”⁶³⁾

‘離’의 字義로 ‘籬障(울타리)’을 쓰고 있으며, 例文은 『國語·吳語』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에 ‘離’와 ‘籬’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籬’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② 『漢語大詞典』의 通用 例

“33.通“籬”.《國語·吳語》：“孤用親聽命於藩離之外.” 一本作“籬”.《左傳·昭公十三年》“請藩而已” 晉杜預注：“藩，離也.” 陸德明釋文：“離也”，依字應作籬，今作離，假借也.”(33.“籬”와 通用된다.《국어·오어》：“내가 울타리 밖에서 출동명령을 하는 것을 들었다.” 어떤 본에는 “籬”로 되었다.《좌전·소공십삼년》“청컨대 울타리만 만들면 될 것입니다.” 진 두예 주: “번은, 리이다.” 룩덕명 석문: “리는”, 의자이다 당연히 籬로 써야 한다, 지금 쓰는 離는 가차자이다.”)⁶⁴⁾

‘離’의 字義로 ‘籬(울타리)’를 쓰고 있으며, 例文은 『國語·吳語』·『左傳·昭公十三年』 등의 文句를 들고 있다. 이 외에 ‘離’와 ‘籬’의 通用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떻게 해서 ‘離’가 ‘籬’의 字義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63)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993면.

6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7658면.

③ 離와 籬의 通用 要因

‘離’와 ‘籬’가 通用되는 要因에 대하여 『周易四箋』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離爲墉以外防也(리가 울타리가 되는 것은 밖으로 단단히 방비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離가 울타리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 밖으로 방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離’가 울타리가 되는 理由이다. ‘離’가 밖으로 방비한다는 것은 離卦의 文樣을 말하는 것이다. 離卦의 文樣은 ☲이다. 중앙에 柔劃--이 있고, 양쪽 밖으로 剛劃— 이 있다. --은 중간이 비어서 공간을 象徵하고 —은 중간이 단절됨이 없이 이어져 있어서 중앙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象徵한다. 즉 --柔劃이 공간이 되고, — 剛劃이 울타리가 된다. 이것이 ‘밖으로 단단히 방비하고 있다’ 인 것이다. 그래서 ‘離’에 울타리의 뜻이 있게 되는 것이다. 『周易四箋』에서는 ‘籬’가 ‘離’에서 나온 것 이라 하고 있다.

“離爲墉 故籬字從離 籬者竹墉也 一作權 以木爲墉也(離가 울타리가 됨으로 그런 까닭에 籬字가 離를 따르는 것이다. 籬는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울타리이다. 權 라고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로 만든 울타리이다).”⁶⁶⁾

이로써 ‘離’가 ‘籬’의 字義를 지니고 通用되는 것이 『易經』의 離卦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卦名 離의 生成

☲卦의 卦名은 ‘離’이다. 茶山은 『周易四箋·離卦』의 卦名에 대한 註釋에서,

“하나의 --陰劃이 두 ==陽劃 사이에 놓여있어 마치 새가 그 날개를 붙인 듯하다 하여 離라고 한 것이다. 離字가 佳를 따르고 있다. 또 離는 ‘분리하다’는 뜻과

65)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八 [說卦傳]

66)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八 [說卦傳]

‘분별하다’는 뜻이 있는데, 乾卦는 세 개의 陽劃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를 하나의 陰劃이 들어서서 陽劃을 양쪽으로 분리하고 있다 하여 離라고 한다. 易例에서 離는 분별함이 되고 또 새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된다. 荀九家⁶⁷⁾는 새날개의 깃축이 강경하게 만들어 저서 능히 공중으로 세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니, 불의 性情을 얻은 것이다 하였고, 古代에는 倉庚을 黃離라 하였는데, 『說文解字』에서 離字는 隹를 따르고, 禽字는 离를 따른다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⁶⁸⁾”고 하였다.

茶山은 離卦의 文樣이 날개를 접고 있는 새이고, 離字는 새의 이름인 黃離라 卦名이 새와 관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朱子는 『周易本義』에서,

“「象」에 이르기를, 離는 麗이다. 日月은 하늘에 달려 있고, 百穀과 草木은 땅에 부착하고 있다. 광명이 중첩되나 바르게 붙어 있으니 이로써 천하가 化成 된다. 重은 直龍反切이다. 卦名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⁶⁹⁾고 하였다.

朱子는 茶山과는 다른 見解를 보이고 있다. 朱子는 「象傳」의 傳文을 卦名의 해석으로 삼고 있다. 즉 ‘離’를 ‘麗’로 ‘麗’의 뜻은 ‘부착하다’로 삼은 해석이다.

그런데 이 麗字에 대한 해석을 茶山은 「象傳」 傳文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茶山은 『周易四箋』에서,

“麗者 麗也 雙丙爲目 <南方离火目> 鹿往離之 如於網也 字義然.(麗는 麗이다. 丙이 한 쌍으로 눈이 된다. <남方的 卦인 離는 불이 되고 눈이 된다.> 사슴이 가다가 걸려있다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다. 麗의 字義가 그러하다.)”⁷⁰⁾고 하였다.

한편 朱子가 卦名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는 「象傳」 傳文의 ‘麗’에 대한 王弼의 注

67) 荀九家是 荀爽, 京房, 馬融, 鄭玄, 宋衷, 虞翻, 陸績, 姚信, 翟子玄 등을 일컫는다.(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7면.)

68) “○鋪案一陰麗於兩陽之間. 如鳥之麗其翼曰離也. 字從隹又離別也辨也. 乾三陽相聚. 而中一陰以別之曰離也. 易例離爲辨又离飛鳥也荀九家鳥之羽翮. 皆脂膏所成. 故能衝氣上翥. 得火性者也. 古以倉庚爲黃離. 見說文離字從隹. 禽字從离. 皆其證也.”(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四 [諸卦] ○第十八卦.)

69) “象曰, 離, 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 重明以麗乎正 乃化成天下. 重直龍反○釋卦名義.”(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279면.)

70) “麗者麗也 雙丙爲目 南方离火目鹿往離之 如於網也 字義然.”(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四 [諸卦] ○第十八卦.)


를 보면,

“麗는, 着과 같다. 각기 그 있을 곳에 마땅히 있는 것이다.”⁷¹⁾하였고,

孔穎達의 疏에서는,

“麗는 附着을 이른다. 陰의 柔劃이 中正의 자리에 부착 되어서, 마땅히 부착할 곳에 부착된 것이다. 그래서 麗라고 이른 것이다.”⁷²⁾하였다.

즉 王弼의 注는 「象傳」傳文의 ‘해와 달, 백곡과 초목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하늘과 땅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착되어 있을 곳에 부착하였다는 뜻이 ‘麗’라는 것이고, 孔穎達의 疏는 離卦의 文樣이 ☲로써 初九 · 六二 · 九三으로 되어 있어서 六二의 위치가 중앙의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陰劃으로써 마땅히 있어야 할 中正의 자리에 있어서 ‘麗’라는 것이다. 즉 王弼은 「象傳」傳文으로, 孔穎達은 卦의 文樣으로써 해석한 것이다.



離卦의 文樣은 ☲로써 바깥 양쪽은 이어진 선이고 안쪽은 점선이다. 바깥 양쪽의 이어진 선은 그물의 버리고 안쪽에 있는 점선은 그물눈이다. 즉 그물의 形象인 것이다. ‘離’는 ‘羅’와 通用된다.⁷³⁾ 離字는 甲骨文 字形이  로 새가 그물에 걸려 있는 形象이라고 하고 하여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 ‘佳를 따르고, 새를 잡는 용구를 따랐다. 글자의 모양이 새를 잡는 형상이다. 본의는 새를 잡다.’라 하였다. 한편 羅의 字義는,

“새를 잡는 그물”이다.⁷⁴⁾

71) 王弼注: “麗, 猶著也, 各得所著之宜.”(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2738면).

72) 孔穎達疏: “麗, 謂附著也. 以陰柔之質附著中正之位, 得所著之宜, 故云麗也.”(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2738면).

73) 通“羅”.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7658면).

74) 羅. 甲骨文  . 小篆  . 字形及本義: 甲骨文上部是“网”, 下部是“鳥”, 連起來, 表示鳥被网扣住. 小篆增加了“糸”; 表示网是絲織的. 《說文》: “羅, 以絲罟鳥也. 從网, 從維.” “羅”的本義指“捕鳥的网”.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繹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635면).

두 글자 모두 ‘그물’을 나타내고 있는 字이다. 즉 離卦의 卦名은 離卦의 文樣인 ䷝를 ‘그물’로 상징하여 命名된 것이다. 卦名이 命名되는 방식에 대하여 朱子는,

“하나의 卦는 그 한 卦의 本然의 象이 있다. 象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聖인이 그 象으로 卦의 名稱을 이룬 것이다.”⁷⁵⁾ 하고 있다.

또한 「繫辭上傳」에서는,

“用具를 만드는 자는 卦의 모양을 중시한다.”⁷⁶⁾ 하였고,

「繫辭下傳」에서는,

“끈을 엮어 그물을 만들고 이것으로 사냥도하고 고기도 잡았는데 이것은 離卦에서 취한바 된 것이다.”⁷⁷⁾ 하였다.

따라서 離卦는 그 文樣인 ䷝를 ‘그물’로 상징하고 ‘그물’을 나타내는 글자로 ‘離’를 卦名으로 삼은 것이 되는데, 그러면 ‘離’字와 ䷝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순히 그물을 나타내는 文樣이어서 그물의 뜻을 지닌 字를 택하여 卦名字로 삼은 것이라면 卦名 ‘離’는 借用字이다. 그물 文樣을 나타내는 소리가 /li(리)/ 로 發音되었다면 依聲託事로 假借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借用된 字가 된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離’의 字形 해설에서 甲骨文과 金文에는 ‘離’字가 없다고 하였다. 즉 𠄎를 離의 甲骨文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見解대로라면 『易經』

에 쓰였을 ‘離字’의 初期 字形은 𠄎가 아닌 다른 字形이었을 것이고, 小篆만 있는 것으로 보아, 秦의 文字統一 당시 새롭게 造字 되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즉 乾卦와 坤卦의 卦名이 卦의 文樣이 文字化 된 것처럼, ‘離’도 卦의 文樣이 文字化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와 걸 맞는 初期 字形이 없으므로

75) “一卦自有一卦之象，象謂有箇形似也。故聖人即其象而命之名。”(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5, 1646면).

76) “以制器者 尙其象。”(『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044면).

77)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078면).

卦의 文樣이 文字化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 그물의 모양이고 또 易詞에서 ‘그물이 離卦에서 取한바 되었다’ 하였으니 ‘離’는 卦의 文樣인 ☲에서 卦名으로 生成된 文字라는 것을 認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震 ☳

1) 震卦의 物象

震卦는 두 개의 陰劃과 하나의 陽劃으로 이루어진 卦이다. 卦의 文樣은 ☳이다. 震卦는 우레를 象徵하는 卦이다. 고대 중국의 우주관에서 ‘雷’는 陰陽의 不調和에서 發生되는 氣候現象으로 認識되고 있다.

“陰이 기운이 엉기어 모여서 안에 있는 陽의 기운이 나갈 수 없으면 陽氣가 분격하여 일어나 雷霆이 된다.”⁷⁸⁾

☳의 文樣은 두 ☷陰 밑에 ☰陽 하나가 있다. 즉 ☷陰이 겹겹이 엉기어서 안에 있는 ☰陽을 감싸고 있으므로 ☰陽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形局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레’ 라는 것이다. 우레는 뻑뻑한 비구름 속에서 비를 동반하고 번개가 치면서 울리는 천둥이다. 뻑뻑한 비구름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은 陰의 성질이고, 번쩍이며 천지를 울리는 번개와 천둥은 陽의 성질이다. 이러한 樣態를 두 개의 ☷陰이 外에서 겹겹이 에워싸고, 하나의 ☰陽이 內에서 요동하려는 文樣인 ☳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震卦의 物象으로는 “우레를 비롯하여 龍 · 玄黃 · 꽃 · 큰길 · 長者 · 조급함 · 푸른 대나무 · 갈대 · 말 · 反生 · 강건 · 번성 · 신선함”⁷⁹⁾ 등이고, 東方의 卦이다.

2) 震字의 字形 字義 解說

(1) 『說文解字』의 震字 解說

震 벼락. 만물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雨를 따르고 辰聲이다. 춘추전에 이르기를 “이백의 사당에 벼락이 쳤다.”고 하였다. 신 현등이 이르기를 “지금 세간에서 따로

78) “凡陰氣凝聚，陽在內者不得出，則奮擊而爲雷霆。”(黎靖德 編, 허탁·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청계출판사, 1999, 211면).

79) “震 爲雷 爲龍 爲玄黃 爲旉 爲大塗 爲長子 爲決躁 爲蒼萑竹 爲萑葦 其於馬也 爲善鳴 爲鼻足 爲作足 爲的類 其於稼也 爲反生 其究 爲健 爲蕃鮮。”(『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7면).

벽력(霹靂)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章刃반절이다.⁸⁰⁾

『說文解字』에서의 震字는 字形이 ‘從雨辰聲’의 形聲字이고, 字義는 ‘벼락’ 이다.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震字 解說

震 章성모 文운모 𠩺 止를 따르고 辰을 따랐다. 辰은 聲符를 겸한다. 예서에서 진(𠩺)으로 쓰였다. 진(𠩺)과 진(震)은 첩운으로 𠩺 과 震은 같다. 본의는 ‘진동하다’ 동사이다. 《설문》: “진 震 벼락. 만물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우를 따르고 진성이다. 춘추전에 이르기를 “이백의 사당에 벼락이 쳤다.”고 하였다. 《시경·상송·장발》: “진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 《전소》: “진은 또한 동이다. 복사의: 본의인 振動으로 쓰였다.”⁸¹⁾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의 震字는 字形構造가 ‘從止從辰辰表聲’의 會意兼形聲字이다. 本義는 ‘진동하다’ 이다. 字形이 ‘辰’과 ‘止’의 合體字로 『說文解字』와 다르다. 그러나 字義는 『說文解字』의 ‘辰物者’의 뜻을 따르고 있다. ‘진동하다’의 字義는 ‘辰物者’의 ‘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辰’아래 ‘止’가 있어서 자칫 진동이 멈추는 것을 나타내는 합체자로 보일 수 있게 字形이 이루어졌다. ‘止’는 진동하던 것도 멈추게 하는 字이다.⁸²⁾ 이 ‘진동하다’의 字義는 聲符인 ‘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形聲字에서 聲符는 단순히 字音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字義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形聲字에 대한 名稱을 劉歆이나 班固는 象聲이라 하였고, 鄭衆은 諧聲으로 칭하였다. 이것은 形聲에 있어서 聲符가 차지한 중요성을 강조한 名稱이다. … … 먼저 聲이 있는 다음에 文字가 생겼기 때문에 聲은 語根이 되고, 形은 表義가 된다

80) “震 𠩺 劈歷 振物者 從雨辰聲. 春秋傳曰 震夷伯之廟. 臣鉉等曰 今俗別作霹靂非是 章刃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41면).

81) “震 章 文 𠩺 從止從辰, 辰標聲. 隸定作 𠩺. 𠩺 震疊韻, 𠩺 同震. 本義是震動, 動詞. 《說文》: “震 𠩺 劈歷 振物者 從雨辰聲. 春秋傳曰 震夷伯之廟.” 《詩經·商頌·長發》: “不震不動, ….” 《傳疏》: “震亦動也.” 卜辭義: 用本義震動”(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373면).

82) “무자는 지와 과의 두초문을 배합하여 새로운 뜻을 이루었는데 천하의 병과를 중지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것(즉 전쟁을 중지함)을 나타낸 회의자이다.”(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24면).

고 볼 수 있다. 形聲字란 聲에다 形을 배합한 것(以聲配形)이라면 形은 字의 類를 나타내는 기능에 불과하고 聲符가 오히려 語根의 구실을 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그러면 形聲字에서 聲符는 어떤 구실을 하는 것일까. 단순히 音만을 나타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면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중국 문자학자들은 흔히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 왔다. 말하자면 表聲 기능과 表義 기능의 이중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⁸³⁾

(3) 『漢字源流字典』의 震字 解說

震 震. 회의겸형성자. 전문에서는 雨를 따르고 辰을 따랐다. 봄날 우레 일성에 칩거하던 벌레들이 깨어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辰은 聲符를 겸하고 있다. 예서의 변화를 거쳐 해서에서 震으로 썼다. 《설문·우부》: “진, 벽력(벽력)진물자. 종우진성.” 본의는 우레 이다. 즉 몹시 심한 번개.⁸⁴⁾

『漢字源流字典』의 震字는 자형이 會意兼形聲字이고, 本義는 『說文解字』의 字義를 本義로 삼고 있다. 그런데 ‘봄날 우레 일성에 칩거하던 벌레들이 깨어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함으로써 ‘辰’을 ‘벌레’로 간주하는 해설을 하고 있다.

3) 震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震字의 字形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形聲字로 解說되었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會意兼形聲字로 解說되었으며, 『漢字源流字典』에서도 會意兼形聲字로 解說되었다. 그런데 字形면의 ‘從雨辰聲’에서 ‘辰’을 『說文解字』에서는 ‘辰物者’로서의 ‘辰’이고, 『漢字源流字典』에서는 ‘蟲’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字義分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字義 分析

震字는 ‘雨’와 ‘辰’으로 이루어진 合體字이다. 『說文解字』와 『漢字源流字典』 字義는 ‘우레’

83) 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308면.

84) “震 【字形】篆 震 【構造】會意兼形聲字. 篆文從雨從辰, 會春雷一聲蟄蟲蘇醒之意, 辰也兼表聲. 隸變後楷書寫作震. 【本義】《說文·雨部》: “震, 劈歷(霹靂)振物者. 從雨辰聲.” 本義爲霹靂, 卽疾雷”(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794면).

이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字義는 ‘진동하다’ 이다. 그러나 ‘辰’에 대하여 세 字典은 각각 다른 視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雨’와 ‘辰’에 대한 諸 字典의 解說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雨

① 『說文解字』의 解說

“雨 雨 水從雲下也 一象天 冂象雲 水霑其間也 凡雨之屬皆從雨 王矩切 𩇛 古文(우 물이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一은 하늘의 형상이고 冂은 구름의 형상이다. 물이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 한 것이다. 무릇 우에 속하는 자는 모두 우를 따른다. 왕구반절이다. 𩇛는 고문이다).”⁸⁵⁾

②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

“雨 匣 魚 𩇛 從一, 從雨点形, 一象天形, 字象天下雨點形. 本義是雨. 名詞(우 감성모 어 운모 𩇛 일을 따르고, 빗방울모양을 따랐다. 一의 모양은 하늘의 형상이다. 字形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본의는 비이다. 명사).”⁸⁶⁾

雨字는 象形字로 字形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諸 字典에서 별다른 異意를 붙일 것이 없다.

① 辰

① 『說文解字』의 解說

“辰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物皆生 從乙匕 象芒達 厂聲也 辰房星 天時也 從二 二 古文上字 凡辰之屬皆從辰. 徐鍇曰 匕音化乙 艸木萌初出曲卷也. 臣鉉等曰 三月 陽氣成 艸木生 上徹於土 故從匕厂非聲疑 亦象物之出 植鄰切 𠄎 古文辰.

(진 辰 벼락이다. 삼월의 名稱이다. 양기가 동하여 우레와 번개가 진동한다. 백성들에게는 농사철이 되었음이며, 만물이 모두 싹을 틔운다. 을과 비를 따랐는데 모양이 뾰족한 잎 새가 땅을 뚫고 올라온 형상이다. 엄은 성부이다. 진방에 방성이 나타나는 계절이다. 그를 따랐는데 그는 고문으로 上 字이다. 무릇 진에 속한 자는 모두 진을 따른 것이다.

85) 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41면.

86)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258면.

서개가 이르기를, 비음 화율은 초목의 싹이 처음 나올 때 구부러진 것을 말한다. 신현등이 이르기를, 삼월이 되어 양기가 풍성해져 초목이 땅에서 위를 향하여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를 따른 엄 성은 아닌 듯하다. 또한 모양도 만물이 나오는 형상이다. 식인반절이다. 𠄎은, 震의 고문이다.”⁸⁷⁾

②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




“辰 禪 文 𠄎 字象耕種之農具形. 從王延林說: “辰卽蜃, 古耕田之器, 甲骨文農字, 從之作 𠄎, 象手持蜃除草之形.” 本義是蜃, 古耕田之器. 後借爲表時間的辰時. 《說文》: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物皆生 從乙匕 象芒達 厂聲也 辰房星 天時也 從二 二 古文上字 凡辰之屬皆從辰. 徐鍇曰 匕音化乙 艸木萌初出曲卷也. 臣鉉等曰 三月 陽氣成 艸木生 上徹於土 故從匕厂非聲疑 亦象物之出 植鄰切 𠄎 古文辰.” 許說非本義. 卜辭義: 借用作表地支第五位




(진 선성모 문운모 𠄎 자형의 경작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 형상이다. 왕연림의 말에 따르면: “진은 곧 신이다, 고대에 밭갈이를 할 때 쓰는 농구이다. 갑골문의 농자는 𠄎을 따라 𠄎으로 만들었다. 글자의 모양의 대합조개로 제초를 하는 형상이다.”라 하였다. 본의는 대합조개로 만든 고대의 밭갈이 용 농구이다. 후에 가차되어 시간을 표시하였는데 진시(오전 7시~9시)가 그것이다. 《설문》: “진 𠄎 벼락이다. 삼월의 名稱이다. 양기가 동하여 우레와 번개가 진동한다. 백성들에게는 농사철이 되었음이며, 만물이 모두 싹을 틔운다. 을과 비를 따랐는데 모양이 뾰족한 잎 새가 땅을 뚫고 올라온 형상이다. 엄은 성부이다. 진방에 방성이 나타나는 계절이다. 그를 따랐는데 그는 고문으로 上字이다. 무릇 진에 속한 자는 모두 진을 따른 것이다. 서개가 이르기를, 비음 화율은 초목의 싹이 처음 나올 때 구부러진 것을 말한다. 신현등이 이르기를, 삼월이 되어 양기가 풍성해져 초목이 땅에서 위를 향하여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를 따른 엄 성은 아닌 듯하다. 또한 모양도 만물이 나오는 형상이다. 식인반절이다. 𠄎은, 震의 고문이다” 하였는데, 허신의 설명한 자의는 본의가 아니다).”⁸⁸⁾

③ 『漢字形義演釋字典』의 解說






87) 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11면.






88)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329면.

“辰 甲骨文  金文  小篆  字形及本義 甲骨文像以手振岩石形, 表示振動. 商承祚《說文中之古文考》: “辰, (甲骨文) 象以手振岩石, 乃振之初字.” 金文變作蛤蚌之類軟體動物形, 被認為是“蜃”的本字. 小篆由金文演變而來. 《說文》: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辰”的本義是“振動”

(진 갑골문  금문  소전  [자형 및 본의] 갑골문의 모양은 손으로 암석을 흔드는 형상이다. 진동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상승조의 《설문중지고문고》: “진은 갑골문의 모양이 손으로 암석을 흔드는 형상이다, 곧 振의 초문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문에서 조개의 종류인 연체동물의 형상으로 변화 되어 “蜃”의 本字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소전은 금문에서 변천된 것이다. 《설문》: “진은 우레 이다. 삼월의 名稱이다. 양기가 동하여 우레와 번개가 진동한다. 백성들에게는 농사철이 되었음이다.” “진”의 본의는 “진동”이다.)⁸⁹⁾

④ 「漢字源流字典」의 解說

“辰 【字形】 甲   金   篆  【構造】 象形字. 有人認為辰象手持蛤蜊制的農具蚌鎌形. 細審甲骨文和金文字形, 看不出“蚌鎌”的意味. 就甲骨文字形觀察, 應像用手挖出藏在地下、 軀體蜷曲、 有環節襞紋的某些農田害蟲, 比如蟻蟻、 豆蟲等. 上邊短橫象征地表. 其象正是驚蟄到來蟄蟲蘇醒蠢蠢欲動的樣子. 金文一形正像蟻蟻卷曲狀; 二形繁化, 突出了手挖之意. 篆文整齊化, 就不像了. 隸變後楷書寫作辰. 【本義】 《說文·辰部》: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物皆生 從乙匕 象芒達 厂聲也 辰房星 天時也 從二 二 古文上字.” 析形是就篆文所作的附會, 所釋為引申義. 本義當為驚蟄到來, 蘇醒的農田害蟲蟻蟻等蠢蠢欲動的樣子

(진 【자형】 갑골문   금문   소전  【구조】 상형자이다. 진의 모양을 대합조개로 만든 농사용 기구인 조개 낚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을 세밀히 살펴보면 “조개 낚”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갑골문의 자형을 관찰해 보면, 마치 손으로 지하에 있는 것을 파내고 있는 듯한데, 몸체가 구부러진 것이 환형동물이나 절지동물의 몸마디 같은 주름무늬가 있는 어떤 농작물의 해충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굽벙이나 두충 같은 것이다. 윗면에 있는 짧은 횡선은 지표면을 象徵한다. 그 모양이 막 경칩이 도래하여 칩거하던 벌레들이 깨어나 꿈틀 거리려는 모양이다. 금문의

89)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468면.

첫 번째 모양은 바로 굽벙이가 몸을 오그린 모양이다. 두 번째 모양은 복잡한 구조가 되어 손으로 파내는 뜻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전문은 단정한 문자가 되어 갑문이나 금문과 같지 않게 되었다. 예서의 변화를 거쳐 해서에서 辰으로 썼다. 【본의】 《설문·진부》: “진벼락이다. 삼월의 名稱이다. 양기가 동하여 우레와 번개가 진동한다. 백성들에게는 농사철이 되었음이며, 만물이 모두 싹을 틔운다. 을과 비를 따랐는데 모양이 뾰족한 잎 새가 땅을 뚫고 올라온 형상이다. 엄은 성부이다. 진방에 방성이 나타나는 계절이다. 그를 따랐는데 그는 고문으로 上字이다.” 설문의 자형분석은 篆文에 隹에 맞춘 것이다. 釋義도 인신의 이다. 본의는 당연히 경칩이 도래하여 깨어난 농작물의 해충들인 굽벙이 같은 벌레가 꿈틀거리려는 모양이다.”⁹⁰⁾

이상의 辰字 대한 解說은 字典마다 字形과 字義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辰, 震也, …… 從乙匕 象芒達 厂聲也’이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本義是蜃, 古耕田之器. …… 許說非本義.’이고,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甲骨文像以手振岩石形, …… 辰的本義是振動.’이며, 『漢字源流字典』에서는 ‘象形字. …… 本義當爲驚蟄到來, 蘇醒的農田害蟲蟻螻等蠢蠢欲動的樣子.’이다. 즉, ‘우레’와 ‘농기구’와 ‘진동’과 ‘경칩을 맞은 해충’이다. 字形면에서도 매우 다른 視角을 보이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形聲字로 보고 있는데 반해 다른 字典에서는 象形字로 보고 있다. 字形을 다르게 보고 있으니 그에 따른 字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辰’을 聲符로 하는 ‘震’에 대해서는 構造와 字義 모두를 『說文解字』에 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주장한 ‘辰’에 대한 字義와 字形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說文解字』의 字義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形聲字에서 聲符가 表意 機能을 하는 六書의 體例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그러함에도 ‘震’의 字義를 ‘우레’로 수용하는 것은 震卦의 代表的 物象인 우레와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卦名 震의 生成

震卦는 卦의 文樣이 ☳으로 두 개의 ☷陰劃과 하나의 ☰陽劃으로 이루어 졌다. ☳은 우레를 상징하고 名은 ‘震’이다. 그렇다면 ☳의 象이 ‘우레’가 되고, 名이 ‘震’인 까닭은 무엇인가?

90)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396면.

『易經』의 卦形은 陽의 부호인 ☰와 陰의 부호인 ☷을 바탕으로 한다. 이 ☰陽과 ☷陰을 兩儀라 한다. 이 兩儀에서 비롯되어 ☰양과 ☷음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 4개의 卦形을 이루는데, 陽이 두 개인 ☰太陽, 陰이 두 개인 ☷太陰, 아래가 陽이고 위가 陰인 ☱少陰, 아래가 陰이고 위가 陽인 ☲少陽, 이 네 개의 卦形을 四象이라 한다. 이 四象에 ☰陽과 ☷陰을 덧붙여져서 八卦괘를 이루는데 그 組合은, ☰太陽에 다시 ☰陽을 더한 것이 ☰乾이고, ☷太陰에 다시 ☷陰을 더한 것이 ☷坤이고, ☱少陽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坎이고, ☲少陰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離이고, ☱少陰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震이고, ☲少陽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巽이고, ☷太陰에 ☰陽이 위에 더해진 것이 ☷艮이며, ☰太陽에 ☷陰이 위에 더해진 것이 ☰兌이다.

고대 중국에서 ‘雷’는 陰陽의 不調和에서 發生되는 기후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陰이 기운이 엉기어 모여서 안에 있는 陽의 기운이 나갈 수 없으면 陽氣가 분격하여 일어나 雷霆이 된다. ☳의 文樣은 두 ☷陰 밑에 ☰陽 하나가 있다. 즉 陰이 겹겹이 엉기어서 안에 있는 陽을 감싸고 있으므로 陽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形局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고대 중국인들의 우레에 관한 인식에 잘 들어맞는 象이라 할 수 있다.

震의 卦形은 ☳으로 ☱少陰에서 위쪽으로 ☷陰이 첨가된 것이다. 이 ☱少陰을 ‘辰’⁹¹⁾이라 한다.

‘震’의 卦形은 ☳으로 ☱少陰에 위쪽으로 ☷陰이 첨가된 것이라 하였다. 즉 아래는 四象의 ☱少陰이고, 위는 兩儀의 ☷陰이다. ☰陽은 氣, ☷陰은 水이다. 그러므로 ☷陰은 곧 ‘雨’이고, ☱少陰은 ‘辰’이다. 따라서 震卦 上位의 ☷陰은 ‘雨’가 되고, 아래 ☱少陰은 ‘辰’이 된다, ‘雨’와 ‘辰’의 合體字가 ‘震’이다. 그러므로 ‘震’은 ☳을 文字로 나타낸 것이다.

文字는 事·象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圖形에 文과 字가 들어있고 그 圖形을 나타내는 文字를 만든다면 의당 그 圖形 안에 들어 있는 文과 字를 사용하

91) 『皇極經世書·觀物內篇』 권51, 1-나. “太陽이 해가 되고 太陰은 달이 되며 少陽은 별이 되고 少陰은 辰이 된다(太陽爲日 太陰爲月 少陽爲星 少陰爲辰).”

여 文字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야만 그 圖形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震’은 卦의 文樣인 ䷲이 文字化 되어 卦名字로 生成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6. 巽 ☴

1) 巽卦의 物象

巽卦는 하나의 陰과 두 개의 陽으로 이루어진 卦이다. 卦의 文樣은 ☴이다. 巽卦는 바람을 象徵하는 卦이다. 巽卦의 卦德은 柔順함이다. 柔順함은 뻗뻗함이 없는 부드러운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굽히고 펴는 것이 자유롭고 流動하는데 걸림이 없다. 이러한 卦德이 바람을 象徵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 밖의 卦의 物象으로는 나무 · 장녀 · 흰색 · 끈음 · 긴 것 · 높음 · 進退 · 머뭇거림 · 냄새 · 이마가 넓은 · 모발이 적음 · 흰자위가 많은 눈 · 이익의 삼배가 됨 · 조급함 등의 物象이 있다. 이러한 物象들이 卦名인 巽에 들어 있는 것이다.

2) 巽字의 字形 字義 解說

(1) 『說文解字』의 巽字 解說

巽 기물이다. 丌를 따르고 卍(손)聲이다. 신 현등이 이르기를, 모든 物은 기물에 담아 받침대에 엮고서 올리는 것이다 고 하였다. 蘇困반절이다. 𠄎은 古文의 巽이다. 𠄎은 篆文의 巽이다.⁹²⁾

『說文解字』에서의 巽字는 字形이 ‘從丌卍聲’의 形聲字이고, 字義는 ‘기물’이다.

(2) 『漢字源流字典』의 巽字 解說

巽.

【자형】 갑골문 𠄎. 금문 𠄎. 고문 𠄎. 전문 𠄎.

【구조】 회의자. 巽과 卍, 𠄎은 동일자이다. 갑골문이 모양은 두 사람이 땅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임명이나 파견 명령에 대비하는 형상으로, 행동이 조심스럽

92) “巽 𠄎 具也 從丌 卍聲 臣鉉等曰 庶物皆具丌以薦之 蘇困切 𠄎 古文巽 𠄎 篆文巽”(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99면).

고 순종하는 뜻을 알 수 있다. 금문과 고문에서는 별도로 가로획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첨가하여 방석을 표시하고 있다. 전문에서 다듬어져 가지런하다. 예서의 변화를 거쳐 해서에서 巽、𠄎、𠄎으로 구분하여 쓰게 되었다. 지금은 巽이 정체로 규범화 되고, 𠄎、𠄎은 다만 편방으로만 쓰인다.

【본의】《설문·절부》：“𠄎, 이절(꿨어얌은 사람)이다. 손종차. 闕(缺).” 未作解釋. 又《설문·기부》：“손, 구야 종기 𠄎성.” 자형 분석이 불확실하다, 해석된 자의도 인신의 이다. 본의는 당연히 몸을 낮추고 공순한 태도이다.

【연변】본의

- ① 몸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다, 공순하다: 동자가 어른을 모심으로 길한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이다. | 완곡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引申되어 보편적으로 넓게 가리키는 뜻은
- ② 유약하다: 위공이 조정에서 돌아오니 수력이 말하기를 광세가 유약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그를 과직하였다. | 또引申되어 가리키는 뜻은
- ③ 구비하다: 구는, 손이 갖추어서 진상하는 것을 이른다. 또 “遜”과 通用된다, 표시하는 뜻은
- ④ 겸허하게 양보하다, 겸허하고 예의바르다: 나의 재위가 이미 칠십년이 되었소, 내가 양위하려하니 그대들 중 누가 능히 하늘의 명을 따라 재위를 맡을 수 있겠소 | 지위와 명망이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였다. 또 쓰이는 뜻으로
- ⑤ 《주역》 八卦의 하나, 卦形은 巽이다, 바람을 象徵 한다; 또 육십사괘의 하나이다, 卦形은 巽(손하손상)이다: 손은, 나무가 되고·바람이 된다 | 손은, 東南방이다 | 〈상〉에 이르기를 바람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손괘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반복하여 명을 내려 대사를 수행시킨다. 손에서 가차의로 쓰이던 임명한다는 뜻을 巽을 편방으로 더하여“選”으로 표시하였다, 지금은 “選”으로 간화 되었다; 겸양의 뜻도 따로 “遜”을 만들어 표시하고 있다.⁹³⁾

93) “巽. 𠄎. 巽. 【字形】甲 巽. 金 巽. 古 巽. 篆 巽. 【構造】會意字. 巽與𠄎、巽是同一个字. 甲骨文像二人跪伏地上以備差遣之狀, 會形迹卑順之意. 金文與古文另加一橫或二橫表示墊子. 篆文整齊化. 隸變後楷書分別寫作巽、𠄎、巽. 如今規範化, 以巽爲正體, 𠄎、巽只作偏旁. 【本義】《說文·卩部》：“𠄎, 二卩(跪人)也. 巽從此. 闕(缺).” 未作解釋. 又《說文·丌部》：“巽, 具也, 從丌 𠄎聲.” 析形不確, 所釋爲引申義. 本義當爲形迹卑順, 恭順. 【演變】本義爲①形迹卑順, 恭順: 童蒙之吉, 順以巽也 | 巽與之言, 能無說乎? 引申泛指②柔弱: 魏公既還朝, 隨力言光世巽懦不堪用, 罷之 | 上下巽懦偷安. 由跪伏備差遣, 又引申指③具備: 具, 謂巽具而進之也. 又通“遜”, 表示④遜讓, 謙恭: 朕在位七十載, 汝能庸命巽朕位 | 位望益尊, 謙巽滋甚. 又用作⑤《周易》八卦之一, 卦形爲 巽, 代表風; 也用作六十四卦之一, 卦形爲 巽(巽下巽上): 巽, 爲木·爲風 | 巽, 東南也 | 〈象曰〉隨風, 巽; 君子以申命行事. 由于巽爲借義所專用, 備差遣之義便另加義符彳寫作“選”來表示, 如今簡化作“選”; 謙讓之義則另造了

『漢字源流字典』에서 巽字의 字形은 會意字 이다. 字義는 本義인 卑順을 비롯하여 引申義로, 柔弱 · 具備 · 遜讓 등이고, 卦名으로 쓰이고 있다고 解說되었다.

(3)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巽字 解說

巽 [자형] 금문 𠄎 소전 巽 (형성자) (회의자) 갑문에는 巽字가 없다. 금문의 巽과 소전의 巽은 대략 같다. 소전의 巽은: 丌를 따르고, 𠄎성이다; 본의는 「기물」이다. 풀이는,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온 것이다.) 모양이 완비되어 결함이 없는 뜻이다; 丌는 음이 기이다, 기물을 안치하기 위하여 갖추어 놓은 공구이다, 그러므로 巽이 丌를 따르는 것이다. 또 𠄎은 『설문해자』에서 음과 의가 모두 빠져 있는데, 단지 羅振玉·林義光 두 사람이 甲文과 金文에 의하여 그 뜻을 順으로 해석하였다, 또 𠄎을 巽의 本字라 하였다, 𠄎은 古字이고 巽은 지금의 字이다, 巽은 𠄎이 증체된 자이다, 그러므로 𠄎성을 따르는 것이다.

[자음] 素困반절 음은 遜이다. ㄊㄣˊ ㄩˋ` Shiunn 去성 願운

[자의] 名詞

⊖패명, 역경의 팔괘 및 육십사괘의 하나; 손상손하, 그 상이 나무이고, 바람이고, 장녀가 된다. 「서괘전」에서는; 얹드림이 된다고 하였다, (낮추고 순종한다)는 「잡괘전」에 나온 것이다.

⊖방위名稱. 例「巽은 東南의 괘이다」(역경·설괘전). 動詞 이양하다; 遜과 通用된다. 例「그대들 가운데 누가 하늘의 명을 순종하여 내가 양위하는 재위에 오를 것인가.」(서경·요전). 形容詞 손여: 유순하다; 완곡하다. 例「완곡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완곡하게 말하니 그것이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논어·자한))⁹⁴⁾

“遜”來表示。【組字】如今既單用，也可作偏旁。不是《說文》部首。現今巽歸己部。凡從巽取義的字皆與具備等義有關。▷以巽作聲兼義符的字有：撰·饌。▷以巽作聲符的字有：嘍·濮·選。”(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522면).

94) “巽 [形] 金文 𠄎 小篆 巽 (形聲) (會意) 甲文巽字闕. 金文巽與小篆巽略同. 小篆巽: 從丌, 𠄎聲; 本義作「具」解, (見說文許著) 乃形容完備無缺之意; 丌音基, 爲安置器物備用之工具, 故巽從丌. 又以 𠄎在許書雖音義俱缺, 但羅振玉·林義光二氏依甲文金文釋其義爲順, 且以 𠄎爲巽之本字, 𠄎巽古今字, 巽爲 𠄎之累增字, 故從 𠄎聲. [音] 素困切 音遜 ㄊㄣˊ ㄩˋ` Shiunn 去 願 [義] 名 ⊖卦名, 易八卦及六十四卦之一; 巽上巽下, 其象爲木爲風爲長女, 見易序卦; 爲伏, (卑順)見易雜卦. ⊖方位名. 例「巽東南也」(易·說卦). 動 讓; 通遜. 例「汝能庸命巽朕位」(書·堯典). 形 巽與: 柔順; 委婉. 例「巽與之言, 能無說乎? 釋之爲貴」(論·子罕)”(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21면).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 巽字 의 字形은 形聲字이다. 字義는 괘명 · 방위명 · 양위 · 완곡 등 모두 4개의 字義를 解說하고 있다.

(4) 『漢語大詞典』의 巽字 解說

巽 ① [xùn ㄒㄨㄣˋ ㄊㄩˋ] [《廣韻》蘇困切,去慫,心.] 亦作“𨾏”.

1. 괘명. 팔괘의 하나이다. 또 육십사괘의 하나로, 손하 손상 이다. 자세한 것은 “괘”와 “육십십사괘”에 나왔다.
2. 동남방. 《역경·설괘전》: “손은, 동남방이 괘이다.” 북위 려도원 《수경주·곡수》: “곡수가 흐르다가 왼쪽으로 북천과 합쳐지는데 물이 근원이 두 곳이다 북산을 돌아 동남으로 흐르는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의 곡수로 흘러든다.” 명 서홍조 《서하객유기·전유일기칠》: “그 위에는 오룡봉이고, 서남에 홀로 문필봉이 솟아 있고, 목가원 남쪽 봉과 동남에 우뚝 솟은 웅관을 돌아 왔다.”
3. 겸손히 순종하다; 겸양하다. 《역경·몽》: “동자가 어른을 모심으로 길한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이다.” 공영달 소: “손은 순종하는 모양을 이른다. 그래서 저 씨가 이르기를 ……손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하였다.” 당 한유 《답위박전부사서》: “지위와 명망이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였다.” 송 왕안석 《역법론》: “유는 손이 숨은 것이다.”
4. 오르다; 즉위하다. 《서경·요전》: “그대들 가운데 누가 하늘의 명을 순종하여 내가 양위하는 재위에 오를 것인가?” 증운건 정독: “손은, 《사기》 역에는 ‘천’이, 오르다. 이다. 《맹자》 ‘천자의 위에 등극하다’, 정본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천’과 ‘손’은 소리가 서로 가까운 것이다 하였다.”⁹⁵⁾

『漢語大詞典』의 字義 解說은 괘명 · 동남방 · 겸양하다 · 오르다 등 4개의 字義를 解說하고 있다. 모두 巽卦의 物象 이다.

95) “巽① [xùn ㄒㄨㄣˋ ㄊㄩˋ] [《廣韻》蘇困切,去慫,心.] 亦作“𨾏”. 1. 卦名. 八卦之一. 又六十四卦之一, 巽下巽上. 詳“八卦”·“六十四卦”. 2. 東南方. 《易·說卦》: “巽, 東南也.” 北魏酈道元《水經注·穀水》: “穀水歷側, 左與北川水合, 水有二源, 并導北山, 東南流, 合成一水, 自乾注巽入於穀.” 明徐弘祖《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其上烏龍峰, 獨聳文筆於西南, 木家院南峰, 迴峙雄關於巽位.” 3. 卑順; 謙讓. 《易·蒙》: “童蒙之吉, 順以巽也.” 孔穎達疏: “巽謂貌順. 故褚氏云……巽者外跡相卑下也.” 唐韓愈《答魏博田仆射書》: “位望益尊, 謙巽滋甚.” 宋王安石《易泛論》: “柔巽隱伏.” 4. 履; 踐. 《書·堯典》: “朕在位七十載, 汝能庸命巽朕位?” 曾運乾正讀: “巽, 《史記》易爲‘踐’, 履也. 《孟子》‘踐天子位’, 正本此言也. ‘踐’, ‘巽’聲相近.”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8740면).

3) 巽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巽字의 字形에 대해서 『說文解字』는 小篆을 標題字로 삼고 있는 字典인 만큼 小篆에 관한 字形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漢語大詞典』은 字形에 대한 자체적인 見解가 없는 詞義를 중심으로 하는 詞典이고, 『漢字源流字典』과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은 자체적으로 字形에 대한 見解와 解釋을 披瀝하는 字典이다. 이 두 字典의 巽字에 대한 字形의 解說은 각각 다르다. 『漢字源流字典』은 會意字로 字形을 解說하였고,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은 形聲字로 解說하였다. 또한 『漢字源流字典』에는 甲骨文이 表記 되었으나,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는 甲骨文이 闕字로 解說되었다. 따라서 『漢字源流字典』은 甲骨文의 字形을 들어 ‘두 사람이 땅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임명이나 파견 명령에 대비하는 형상’으로 解說하고 있으며 本義도 ‘몸을 낮추고 공순한 태도’라고 하여 字形에 따른 뜻으로 解說하였다.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는 甲骨文이 闕字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文과 小篆의 字形을 들어 ‘반침대 위에 기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解說하였고 『說文解字』의 字義인 ‘具’를 그대로 受容하고 있다. 이렇게 두 字典이 判異하게 다른 解說을 하고 있다. 字形에 따라 字義가 規定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事例이다.

(2) 字義 分析

巽字의 字義는, 器物 · 恭順 · 柔弱 · 東南方 · 謙讓 · 卦名 등으로 卦名을 제외하면 모두 여섯 가지의 字義가 解說 되었다. 八卦 가운데 가장 적은 字義를 가지고 있는 卦名字 가 되고 있다. 또한 字義도 모두 巽卦의 物象 들이다.

‘器物’은 물건을 담는 容器이다. 古代에는 祭祀에 사용되는 容器가 대표적인 器物이다, 巽字에 ‘器物’이 뜻이 들어 있는 것은 그 字形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巽卦의 物象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巽卦는 祭祀의 卦이다. 『易經』에서 祭祀에 관한 것에는 모두 巽이 있게 된다,⁹⁶⁾ 祭祀는 器物이 사용되는 儀式이다, 그러므로 ‘巽’에 器物

96) “齊乎巽巽東南也 齊也者言萬物之潔齊也……齊者齋戒也 故易詞凡言祭祀之吉皆有巽體(손에서 가지런히 된다 손은 동남이다. 제는 만물이 청결하고 정돈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제는 재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제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모두 손의 형체가 있다).”(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第四十卷○周易四箋卷八 [說卦傳])

의 字義가 있게 되는 것이다.

‘恭順’은 공손하고 온순한 것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다, 巽卦의 卦形이 ☴이다, 제일 아래에 陰이 -- 하나있고 그 위로 陽이 == 두 개가 있다, 陰은 柔이고 陽은 剛이다 柔가 剛 아래 처하였다, ☴와 반대의 卦形을 지닌 卦가 兌卦이다 兌卦의 卦形은 ☱이다, 柔가 두 剛 위에 올라 있다. 柔는 剛을 따르는 것이 順理이다. ☴에서는 柔가 剛을 밟고 올라서 剛에 順從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은 剛에 恭順히 몸을 낮추고 있다.⁹⁷⁾ 이것이 ‘巽’에 ‘恭順’의 뜻이 있게 되는 까닭인 것이다.

柔弱 · 謙讓의 뜻이 ‘巽’의 卦形에 있다는 것은 恭順의 例에서 설명되었다. 즉 제일 아래에 처하여 順從하는 것은 柔弱하기 때문이다. 謙讓에 대한 例文은 『書經·堯典』에서 들고 있는데 堯임금의 讓位에 관한 것이다. 讓位는 높은 在位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巽卦의 卦形이 ☴이므로 兌☱의 上柔가 巽☴의 下柔로 바뀌는 樣態이다. 그러므로 柔弱 · 謙讓의 뜻이 ‘巽’에 있다는 것이다.

東南方은 巽卦의 方位이다. 八卦는 각각 해당되는 方位가 있다. 北은 坎, 南은 離, 東은 震, 西는 兌, 東北은 艮, 東南은 巽, 西南은 坤, 西北은 乾이다.

4) 卦名 巽의 生成

巽字의 字義는 모두 巽卦의 物象에서 새김 되고 있다. 이것은 『易經』에서의 物象이 字義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朱子는 『周易本義』 巽卦의 註釋에서,

“巽卦의 卦義와 卦辭가 卦體로 해석된다.”⁹⁸⁾ 하였다.

卦體로 해석된다는 것은 卦의 文樣에서 陰劃과 陽劃이 配列된 順序나 位置에 따라 나타나는 物象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巽卦의 物象에서 ‘나무 · 장녀 · 이마

97) “巽者兌之反也.兌之倒兌之時.一陰乘剛.其象不順.其占厲反之爲巽.則柔乃卑降.順而讓之(손은 태의 반대이다. 태의 때에는 하나의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 그 형상이 공손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반대로 손이 되면 음이 아래로 내려와 공손하게 되었다).”(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二卷○周易四筮卷六[諸卦]○第三十二卦.)

98) “以卦體釋卦辭, 剛巽乎中正而志行指九五, 柔, 謂初四.”(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469면).

가 넓은 사람' 등을 卦體로 해석해보면, '나무'는 '☵'에서, 밑에 있는 두 개의 점선으로 된 陰劃이 나무의 뿌리를 象徵하고, 위에 있는 이어진 선인 두 개의 陽劃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象徵하여 '나무'라는 物象이 되는 것이다.

'長女'는 '☵'에서, 밑에 있는 陰이 여성을 象徵하고 陰이 놓여진 位置가 卦의 第1位의 位置이므로 처음이 된다. 따라서 여성과 처음을 象徵으로 하여 '長女'가 되는 것이다.

'이마가 넓은 사람'은 '☵'에서, 밑에 있는 陰이 小를 뜻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陽이 大를 뜻하는 것이므로, 얼굴에 대입시키면 아래쪽은 小이고 위쪽은 大가 되므로 얼굴의 윗부분인 이마가 大가 되어 '이마가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陰劃과 陽劃이 象徵하는 여러 物象이 卦의 形體에 따라 무수히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卦象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卦體로 해석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卦의 物象을 숨췌하고 있는 것이 卦의 文樣이고 그 文樣을 文字로 이름 한 것이 卦名字이다. 茶山은 『周易四箋』에서 ☵의 卦名인 '巽'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註釋하고 있다,

“篆文從兩巴在丌上<徐鉉云>巴者龍蛇也<龍字亦從己>兩巴者二陽也<震一陽爲龍>丌者兩足也<一陰之二片>(전문의 손자는 두 개의 파자가 기자 위에 놓여 있다. <서현의 이르기를> 파자는 용사이다. <용자도 또한 기를 따른다.> 두 개의 파자는 두 개의 양이다. 진괘의 일양은 용이다. 기는 두 발이다. <일음의 두 조각이 두 발이다.>)”⁹⁹⁾

巽字의 篆文은 '巽'으로 '巴' 두 字가 '丌' 字 위에 있다. '巴'는 龍蛇 즉 용 같은 뱀으로 꼬끼리를 잡아먹는 전설상의 동물이다.¹⁰⁰⁾ 龍과 바는 종류가 같은 동물이다. 龍字도 甲骨文에서는 '龍', 金文에서는 '龍'으로 '巴(巴)'形이다.¹⁰¹⁾ 바는 己部에서 나온 字이다. 茶山이 '龍字亦從己'라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丌'는 물건을 올려놓는 받침대 이다.¹⁰²⁾

99)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二卷○周易四箋卷六 [諸卦] ○第三十二卦.

100) “巴. 【字形】篆 𠃉 【構造】象形字. 篆文象長着大嘴的蛇形. 隸變後楷書寫作巴. 【本義】《說文·巴部》：“巴, 虫也. 或曰食象蛇. 象形.” 本義爲古代傳說中的一種大蛇.”(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20면).

101) “龍. 【字形】甲 龍 金 龍 篆 龍 【構造】象形字. 甲骨文象傳說中的神異動物龍形. 金文大同. 篆文文字化. 隸變後楷書寫作龍.”(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46면).

龍은 震卦의 物象이다.¹⁰³⁾ ‘☳震’의 初劃인 一陽劃에서 나타나는 物象이다. 龍이 陽劃이 나타내는 物象이니, 龍蛇인 巳 또한 陽劃이 나타내는 物象이 된다. 따라서 巳가 두 字이므로 陽劃이 두 一陽劃이다. 이 두 一陽劃이, ☳巽卦의 두 一陽劃을 말하는 것이다. ‘丌’는 두 개의 발이 있는 받침대이다. 二陰劃은 두 개의 점선이다. 그 두 二陰劃이 받침대의 발을 형용한다. 따라서 두 一陽劃과 한 二陰劃으로 이루어진 ☳巽의 卦形이 文字化 된 것이 ‘巽’이라는 것이다.

“文字란 점이나 선을 조합하여 의미단위를 표기하는 시각적 기호라 할 수 있다.”¹⁰⁴⁾

그렇다면 『易經』에서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卦의 文樣을 文字化 시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응당한 造字방법이라 할 것이다. 특히 『易經』은 經典 가운데 가장 먼저 文字로 기록된 典籍이기 때문에 『易經』의 卦名 뿐만이 아니라 伏羲가 붙인 經文이면 卦形에서 物象을 取하고 文字를 造字하여 그 卦의 卦詞로 기록하여 붙여놓았을 것으로 推定해 볼 수 있다, 「繫辭下傳」의 傳文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上古結繩以治，後世聖人易之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蓋取諸夬.”¹⁰⁵⁾

이 傳文은 『易經』에서 文字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특히 茶山의 『周易四箋』에서의 巽字에 대한 註釋은 卦의 文樣이 文字化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巽’은 卦의 文樣인 ☳에 內包되어 있는 文과 字로 이루어져서 卦名字로 生成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02) “丌. 【字形】金 丌 古 元 篆 丌 【構造】象形字. 金文象墊在器物下的底座形. 古文在其上加一短橫, 表示上邊可放東西. 篆文承接金文並整齊化. 隸變後楷書分別寫作丌與元. 如今丌只作偏旁; 元則可用作姓, 也可作偏旁. 【本義】《說文·丌部》: “丌, 下基也. 薦物之丌. 象形.” 本義爲墊物的底座.”(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25면).

103) “震 爲龍 … ….”(『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7면).

104) 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1면.

105) 『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083면.

7. 艮 ䷳

1) 艮卦의 物象

艮卦는 두 개의 陰劃과 하나의 陽劃으로 이루어진 卦이다. 卦의 文樣은 ䷳이다. 艮卦는 山을 象徵하는 卦이다. 그 밖의 物象으로는, 좁은 길 · 작은 돌 · 궁문 양쪽의 망루 · 나무열매와 풀 열매 · 궁문의 문지기 · 손가락 · 개 · 쥐 · 마디가 많고 단단한 것 등이다.¹⁰⁶⁾ 艮卦의 物象인 山에 대하여 朱子는 『周易本義·艮卦』의 註釋에서 다음과 같이 註釋하였다.

“艮은 그침이다. 一陽이 二陰의 위에서 머물고 있다. 陽은 아래서부터 올라서 극상에 이르러서 그친 것이다. 그 象이 山이 된다는 것은 坤의 땅이 융기되어 위로 솟아오른 형상을 취한 것이다, 또한 極에 이르러 그쳤으니 더 나갈 수 없는 뜻이 되기도 한다.”¹⁰⁷⁾

이 註釋은 艮卦의 卦形인 ䷳으로 卦의 物象을 설명하고 있다.

‘陽은 아래서부터 올라서 극상에 이르러서 그친 것이다.’ 라는 것은 卦의 劃은 제일 아래인 1位에서부터 2位 3位까지 하나씩 쌓여서 三劃이 되면 八卦 중 하나의 卦가 된다. 그리고 제일 아래인 1位는 一陽劃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一陽劃이 1位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位에 오르면 ䷳이 되고 3位까지 오르면 ䷳이 되어서 最上位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정상에 올랐으니 더 올라갈 곳이 없으므로 오르는 것이 그쳤다는 것이다.

‘그 象이 山이 된다는 것은 坤의 땅이 융기되어 위로 솟아오른 형상을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은 坤의 땅은 橫으로는 바다에서 그치고, 縱으로는 山 頂上에서 그친다. 즉 넓이로는 그 끝이 바다이고, 높이로는 山 頂上이 끝이다. 艮卦 上位의 陽劃 一이 마치 한줄기 산등성마루가 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이루듯 이어져 있

106) “艮爲山爲徑路爲小石爲門闕爲果蓏爲閨寺爲指爲狗爲鼠爲黔喙之屬其於木也爲堅多節.”(『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51면).

107) “艮, 止也. 一陽止於二陰之上. 陽自下升 極上而止也. 其象爲山, 取坤地而隆其上之狀, 亦止於極而不進之意也.”(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434면).

는 것을 나타내는 形象이며, 初位와 中位의 陰劃 ䷁은 坤☷의 땅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의 形象이다. 坤☷의 땅이 위로 솟아올라 隆起된 것이 山이므로 그래서 卦象이 山이라는 것이다.

‘또한 極에 이르러 그쳤으니 더 나갈 수 없는 뜻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은 山의 頂上에 오르면 땅의 끝에 이른 것이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意味도 나타낸다는 것이다.

2) 艮字의 字形 字義 解說

(1) 『說文解字』의 艮字 解說

艮 어그러지다. 따르지 않다 등의 뜻이다. 匕와 目을 따른다. ‘匕目猶目相匕不相下也’ [이 문구는 난해하여 번역을 보류한다.] 역에 이르기를, “𠄎[간]은 그것이 限이 되는데 匕目이 𠄎[간]이 되는 것이다. 匕目は 眞이 된다.”라 하였다. 古恨반절이다.¹⁰⁸⁾

『說文解字』에서의 艮字의 字形은 ‘從匕目’의 會意字이고, 字義는 ‘어그러지다. 따르지 않다’ 등이다.

(2) 『漢字源流字典』의 艮字 解說

艮

【자형】 갑골문 𠄎 금문 𠄎 전문 艮

【구조】 회의자. 갑골문은 인을 따르고, 뒤쪽을 향하여 보고 있는 눈을 따랐다,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뒤를 향하여 보고 있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금문에서는 눈을 사람의 등 뒤로 옮겨놓아 그 뜻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문에서 문자로 다듬어졌다. 예서의 변화를 거쳐 해서에서 艮으로 썼다. 《설문·일부》에는 “𠄎(요)”字가 하나 더 있는데, 일을 따르고, 비를 따랐다, 보이는 것이 멀어서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𠄎(요: 멀어서 알 수 없는 모양)”의 뜻과 가까운 字이다, 전문의 艮과 “艮”이 자형이 비슷하여, 예서의 변화를 거친 후 해서에서 서로 혼동되므로 “艮”을 쓰고, 𠄎(요)는 폐지하여 쓰지 않게 되었다.

108) “艮 𠄎 很也. 從匕目. 匕目猶目相匕不相下也. 易曰 艮其限 匕目爲艮 匕目爲眞也. 古恨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68면).

【본의】 《설문·비부》: “艮 很也. 從匕目. 匕目猶目相匕不相下也.” 설문의 解說은 무엇이라고 解說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본의는 당연히 얼굴을 뒤로 돌리고 바라보는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眼”의 초문이다. 또 《설문·일부》: “요, 멀어서 보이는 것이 합쳐져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과 비를 따랐다, 합이다.” 본의는 보이는 것이 멀어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모양이다.

【연변】 ⊖ /gèn/ 本義는

- ① 얼굴을 뒤로 돌리고 바라보는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본의에서 인신되어
 - ② 정지하다, 정지: 흐르는 물도 정지할 수 있거늘 천지간에 정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신된 뜻으로
 - ③ 그치는 곳, 한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간은 한계이다. 한계를 세워서 내외가 서로 넘어서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또 사용되어
 - ④ 《주역》 팔괘의 하나로, 괘형은 ☶이다; 또 육십사괘의 하나에 사용되었는데, 卦形은 ☶(간하간상)이다, 산을 象徵 한다: 《단》에 이르기를: 간은, 그침이다 | 간은 山이 된다, 두 산이 겹쳐져서, 정지됨을 말한다. 또 인신되는 뜻으로
 - ⑤ 동북방: 간은, 동북의 괘이다 | 마침내 몸을 굽혀 명을 받아들이고, 절부를 받아들고 동북방을 지키러 떠났다. 또 사용된 것으로
 - ⑥ 시간사가 있다, 새벽 1시부터 3시에 이르는 시간: 장례를 정한 글에 의하면 건시와 간시를 많이 쓴다고 하였는데 두 시진모두 심야시간이니 이것은 문적과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다시 인신된 뜻으로
 - ⑦ 간난, 어렵다. 견경, 굳다. 단단하다: 다음 네 가지는: 모양이 간에 가깝다. “튼요”로 쓴다, 가리키는 뜻은
 - ⑧ 멀어서 형체가 불분명한 모양이다. 또 사용된 것으로
 - ⑨ 姓이 있다.
- ⊖ /gěn/ 方言으로, 얼굴을 돌리고 바라본다는 데서, 인신되어
- ⑩ 성격이 뻣뻣하고, 말이 거칠다: 그는 일은 성실하게 잘하나, 성격이 뻣뻣하다 | 그는 말이 통명스러워,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고 만다. 또 가리키는 뜻으로
 - ⑪ 음식물이 딱딱하고 질겨서 부드러워지 않는다: 이 무는 정말 딱딱하다 | 딱딱해지다. 간의 인신의나 가차의로 전용될 때 바라본다는 뜻은 별도로 의부인 목을 붙여 “眼”으로 쓰고, 거스르다 는 뜻은“很”으로 표시한다.¹⁰⁹⁾




『漢字源流字典』의 艮字의 字形은 會意字이고, 本義는 扭頭瞪視, 眼光定止.이고, 引申義로 靜止, 停止 · 止境, 界限 · 八卦 · 東北方 · 時間詞 · 艱難 · 遠望渾然不分的樣子 · 姓 · 性子直 · 食物堅韌不松脆 등의 字義를 解說하고 있다.

3) 艮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說文解字』의 艮字에 대한 解說을 보면 字形은 匕와 目的 會意字이다.

“會意란 『說文解字』 敍에 의하면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라고 정의 하였다. …… 「比類合誼」란 곧 二類, 三類 혹은 四類의 한자를 차례로 배열 · 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字義를 합성한다는 뜻이요, 「以見指撝」란 새로이 합성된 字가 뜻하는 바를 발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武’자는 ‘止’와 ‘戈’의 두 초문을 차례로 배합하여 새로운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은 이 글자에서 천하의 병과를 중지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것(즉 전쟁을 중지함)이 바로 진정한 武威의 미덕임을 추지할 수 있다. 또 ‘信’자는 ‘人’과 ‘言’을 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글자에서 사람이란 자기가 한 번 허락한 말은 기어이 실현할 수 있어야만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의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회의문자는 결국 단순한 상형문자나 지사문자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복잡한 일이나 관념, 의미 등을 표출하기 위하여 둘 또는

109) “艮【字形】甲  金  篆  【構造】會意字. 甲骨文從人, 從朝後看的日, 會人扭頭向後瞪視之意. 金文將日移到人背後, 其義更明顯. 篆文整齊化. 隸變後楷書寫作艮. 《說文·日部》還有一个“𠄎”字, 從日, 從匕, 表示遠望渾然不分的樣子, 是“杏”的近義字, 因其篆文𠄎與“艮”形近, 隸變後楷書遂相混也寫作“艮”, 𠄎廢而不用. 【本義】《說文·匕部》: “艮 很也. 從匕目. 匕目猶目相匕不相下也.” 解說不確切. 本義當爲扭頭瞪視, 眼光定止. 是“眼”的初文. 又《說文·日部》: “𠄎, 遠望合也. 從日匕, 合也” 本義爲遠望渾然不分的樣子. 【演變】⊖ gèn 本義爲①扭頭瞪視, 眼光定止. 引申指②靜止, 停止: 泉可~, 九天之上, 九天之下, 何所不~. 進而引申指③止境, 界限: 所得在~. ~者, 限也, 限立而內外不越. 又用作④《周易》八卦之一, 卦形爲☶; 也用作六十四卦之一, 卦形爲☶(艮下艮上), 象徵山: 《象》曰: ~, 止也 | ~爲山, 二山相重, 喻靜止. 又引申指⑤東北方: ~, 東北之卦也 | 遂翕翼以委命兮, 受符守乎~維. 又用作⑥時間詞, 相當于凌晨1時至3時: 若依葬書, 多用乾、~二時, 並時近半夜, 此即文與禮違. 又引申指⑦艱難, 堅硬: 次四: 象~有守. 作爲“𠄎”, 指⑧遠望渾然不分的樣子. 又用作⑨姓. ⊖ gěn 方言, 由扭頭瞪視, 引申指 ⑩性子直, 說話生硬: 他做事認真, 就是有點兒~ | 他的話太~了, 直噎人. 又指 ⑪食物堅韌不松脆: 這蘿卜真~ | 發~. 由于艮爲引申爲和借義所專用, 瞪視之義便另加義符日寫作“眼”來表示, 不聽從之義則用“很”來表示. 【組字】如今既可單用, 也可作偏旁. 不是《說文》部首. 現今設有艮部. 凡從艮取義的字皆與扭頭瞪視等義有關. ▷以艮作聲兼義符的字有: 限, 艱, 莧, 垠, 喂, 很, 狠, 恨, 眼, 跟, 齷. ▷以艮作聲符的字有: 壘, 懇, 根, 銀, 裨, 痕”(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339면).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자형을 만들고 여기에 특정 의미와 자음을 나타내게 된 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자법은 상형이나 지사의 구성 방법보다 고도로 진보된 단계이다.”¹¹⁰⁾

이 會意字의 정의를 보면 字義와 字義의 결합으로 새로운 字義를 갖는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설명과 같은 會意字의 構成 側面에서 보면 良字는 匕와 目的 뜻이 합쳐져 새로운 뜻을 갖는 글자로 탄생된 것이 된다. 目은 “사람의 눈”¹¹¹⁾이고, 匕는 “비교하다 또는 수저”¹¹²⁾이다. 그러나 『說文解字』의 良字는 ‘사람의 눈’과 ‘비교하다 또는 수저’의 뜻이 합쳐져서 ‘어그러지다. 따르지 않다.’ 등의 뜻을 갖는 字가 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의 良字에 대한 解說에서는 良字에 대한 甲骨文, 金文, 篆文이 모두 나와 있다. 그런데 【構造】에서 설명하고 있는 字形에 대한 분석이 篆文의 字形에 맞추려하는 설명인 것 같다. 篆文의 字形이 良이라 甲骨文과 金文의 字形에서 눈과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 篆文인 良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良에서 ‘目’의 아래 자인 𠂔를 ‘人’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𠂔는 ‘匕’의 小篆體이다. 또한 『說文解字』의 良의 부수는 ‘匕’이다. 그런데 𠂔를 ‘人(人)’으로 보고 있으니 字形면에서 『說文解字』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글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字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本義로 삼은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뒤를 향하여 보고 있는 뜻.’이라는 부분도 甲骨文에서는 𠂔 아래 字가 ‘𠂔’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金文에서는 ‘𠂔’으로 字形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字形이 良이 되어 얼굴을 뒤로 돌려서 보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2) 字義 分析

『說文解字』의 良字는 ‘從匕目’이고, 『漢字源流字典』의 良字는 ‘從人目’이다. 두 字典에서는 良字에 대한 構造가 다르다. 構造가 다르니 字義도 다르다. 『說文解

110) 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224면.

111) “目 目 人眼 象形 重童子也 凡目之屬皆從目 莫六切 𠂔 古文目.”(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70면).

112) “匕 𠂔 相與比敘也 從反人 匕亦所以用比取飯一名柶 凡匕之屬皆從匕 卑履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68면).

字』는 사실상 중국 字典의 기본서이다. 『說文解字』에 수록된 字에 대한 타 字典의 解說이 『說文解字』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說文解字』의 字形과 字義를 主體로 삼고 다른 見解가 있을 경우 따로 의견을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說文解字』에 解說된 文字에 대하여 字形과 字義 전부를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字形과 字義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런데 『漢字源流字典』은 艮字에 대하여 『說文解字』의 解說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글자로 解說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字典 編纂者의 見解差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說文解字』의 艮字에 대한 解說에 문제가 될 만한 素地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4) 艮卦의 文字 生成

(1) 求字의 生成

易에는 세 가지의 易이 있는데, 連山易 · 歸藏易 · 周易 이다. 이를 三易이라 한다. 『周禮·春官宗伯·筮人』에 三易에 관한 기록이 있다.

“筮人是 三易을 관장하며 九筮의 名을 분별한다. 三易은 첫째 連山이고, 둘째 歸藏이고, 셋째 周易이다. 九筮는 첫째 巫更이고, 둘째는 巫咸이고, 셋째는 巫式이고, 넷째는 巫目이고, 다섯째는 巫易이고, 여섯째는 巫比이고, 일곱째는 巫祠이고, 여덟째는 巫參이며, 아홉째는 巫環 이니, 이로써 길흉을 분별한다. 무릇 국가의 대사에 먼저 筮를 하고 후에 卜을 한다. 上春이 되면 蓍草를 새로 바꾸고, 모든 국사에 공히 占筮 한다.”¹¹³⁾

連山易은 夏나라 易으로 艮卦를 首卦로 하기 때문에 艮의 物象인 山을 易의 名稱으로 삼았다. 歸藏易은 殷나라 易으로 坤卦를 首卦로 하기 때문에 坤卦의 物象인 收藏을 易의 名稱으로 삼은 것이다, 周易은 乾卦가 首卦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艮卦는 易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乾卦와 坤卦를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易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 易에서 首卦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卦名을 비롯하여 卦詞에 쓰인 문자들이 艮卦의 卦象이 나타내는 이미지에 의하여 造字 되었을

113) “筮人掌三易 以辨九筮之名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九筮之名 一曰巫更 二曰巫咸 三曰巫式 四曰巫目 五曰巫易 六曰巫比 七曰巫祠 八曰巫參 九曰巫環 以辨吉凶 凡國之大事 先筮而後卜 上春相筮 凡國事共筮.”(이준영 역해, 『周禮』, 자유문고, 2002, 290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甲骨文이 殷代의 文字로 漢字의 初文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서 起因하는 것인데, 卜占은 龜甲에 불로 지져서 나타나는 龜裂로 치는 占이므로 占에서는 文字의 사용이 필요치 않고 占이 끝난 뒤에 그 占의 내용을 甲骨에 새겨 넣을 때 비로소 文字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筮占은 揲蓍하여 이루어진 卦의 卦詞가 占의 내용이다. 그러니 筮占은 卦에 붙여놓은 文字를 읽는 것이다. 따라서 卜占은 ‘龜裂’로 占을 말하고 筮占은 文字로 占을 말한다. 甲骨文이 殷代의 것이므로 殷代 以前の 王朝인 夏代의 連山易의 卦詞에 쓰여 있을 文字는 甲骨文 以前の 文字인 셈이다. 甲骨文이 漢字의 初文이라는 것은 甲骨文的 文字가 造字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甲骨文 以前の 文字야말로 造字된 文字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茶山은 『周易四箋』에서 卦와 卦詞가 동시에 만들어 졌음을 강조하였는데,

“八卦를 처음 그릴 때 卦에 대한 說도 함께 이루어졌다. 先儒들이 이르기를 卦의 說은 孔子의 著作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說卦에 대한 깊고 정밀한 연구를 통한 지론이 아니다. 說卦는 八卦의 物象을 설명한 글인데 物象을 取하지 않는다면 八卦는 근본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卦라는 것은 物象을 나타내는 符號일 뿐이므로 物象이 없는 卦는 아예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說卦는 庖羲가 卦를 처음 그릴 때 天文을 살펴서 坎卦와 離卦로 달과 해를 象徵하는 卦를 삼고, 地理를 관찰하여 艮卦와 兌卦로 산과 못을 象徵하는 卦로 삼았으며, 멀리서는 여러 사물을 취하였는데 乾卦와 坤卦로는 말과 소를 象徵하는 卦로 삼았고, 가까이서는 사람 몸에서 취하였는데 艮卦와 震卦로는 팔과 다리를 象徵하는 卦로 삼았다. 卦名은 그 卦象을 玩味하여 命名 하였는데, 그 名은 神明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孔子가 說卦文 짓기를 기다렸다가 그제 서야 說卦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¹¹⁴⁾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茶山은 文字의 生成이 卦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茶山은 『周易四箋·艮卦』의 註釋에서 艮卦에서 生成된 字로 求字를 들고

114) “八卦始畫之初說卦並興. 先儒謂說卦爲孔子所作, 非深密體究之論也. 不取物象, 則八卦元不必作, 徒卦無所用說卦者. 庖羲畫卦之初, 仰觀天文, 坎離爲月日. 類察地理, 艮兌爲山澤. 遠取諸物, 乾坤爲馬牛. 近取諸身, 艮震爲手足. 玩其象而命之, 名以與神明約契者也, 而俟孔子哉.”(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三十七卷○周易四箋 括例表 說卦表直說)

있는데, 求字가 卦의 文樣이 文字化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雜卦傳」에서 臨卦와 觀卦의 뜻은 주거나 구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觀卦는 大良이다. 兼劃하여 艮이 된다. 그러므로 易例에서 艮은 구함이 된다. 求字는 먼저 艮卦를 그려놓고, 次로 사물을 더하여 만든 字이다.”¹¹⁵⁾

위의 文句 가운데,

‘觀卦가 大良이다’ 라는 것은 觀卦는 卦形이 ☵☷ 으로 巽上 坤下の 六劃卦인데, 두 劃을 합쳐서 한 劃으로 하고 三劃卦를 만들면 ☶으로 艮卦가 된다. 이렇게 六劃卦에서 두 개의 劃을 하나로 묶어 한 劃으로 삼고 三劃을 만들면 三劃卦인 八卦 중 한 卦가 된다. 이러한 卦를 두 劃씩 兼했다 하여 兼劃卦라 한다. 또한 兼劃하여 이루어진 八卦는 卦名 앞에 大字를 붙여 名稱 한다. 여기 觀卦의 兼劃으로 이루어진 艮卦를 大良이라 稱한다.

‘艮은 구함이 된다.’ 라는 것은 觀卦에 ‘求’의 뜻이 있으니 觀卦의 兼劃卦인 大良에도 觀卦의 ‘求’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朱子는 『周易本義·雜卦傳』에서 觀卦가 ‘求’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註釋하고 있다.

“我が 物에 臨하는 것을 ‘與’라 한다. 物이 와서 我를 觀하는 것을 ‘求’라 한다. 혹자가 이르기를 臨卦와 觀卦는 상호 與와 求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¹¹⁶⁾

이 문장에서 ‘我와 物’이라는 것은 相對的 두 對象에서 主體와 客體를 이르는 말이다. 즉 ‘我’는 主體的 對象이고 ‘物’은 客體的 對象이다. ‘臨’은 군림하는 것이고, ‘與’는 주는 것이다. ‘觀’은 살펴보는 것이고, ‘求’는 구하는 것이다. ‘臨卦와 觀卦는 상호 與와 求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은, 臨卦의 卦體는 ☵으로, 두 陽劃이 아래에 있고 네 陰劃이 위에 있다. 마치 거대한 陰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陽에게 군림하고 있는 形象이다. 陰陽은 相對的 概念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陽이 大이면 陰은 小이

115) “雜卦云臨觀之義，或與或求。觀者大良也。兼畫艮故易例艮爲求。求字先畫艮卦，次以物干之。”(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四卷○周易四箋 說卦傳).

116) “以我臨物曰與。物來觀我曰求。或曰 二卦互有與求之義。”(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84면).

다. 陽이 君主이면 陰은 百姓이다. 그러므로 臨卦는 上位에 있는 百姓이 下位에 있는 君主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形象이 된다. 그래서 臨卦에는 ‘與’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觀卦의 卦體는 ■으로, 두 陽劃이 위에 있고 네 陰劃이 아래에 있다. 臨卦와는 반대가 되는 卦體이다. 따라서 卦의 形象도 臨卦와 반대가 되는 양상이 되어서 陽이 못 陰위에 군림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陰이 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陽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는 形象이 된다. 그래서 觀卦에는 ‘求’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이다.










‘求字는 먼저 艮卦를 그려놓고, 次로 사물을 더하여 만든 字이다.’ 라는 것은 求字는 艮卦의 卦形인 ䷳에 丨(꺾)을 중간에 놓고 상단 우측에 丶(점)을 찍은 글자이다. 즉 艮卦의 卦의 文樣에 선과 점을 곁들여 만들어진 글자라는 말이다. 이것은 卦의 文樣이 고스란히 文字化되고 있는 것으로, 卦名이나 또는 해당 卦의 物象을 나타낸 文字가 卦의 文樣으로 文字가 만들어져 쓰였다는 推定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卦의 文樣은 陰陽의 劃으로 그 卦의 物象을 象徵적으로 나타내는 圖形이므로 卦의 文樣에는 意味가 內包되어있게 된다. 뜻글자인 漢字의 生成에 이마만큼 한 文字의 字源은 없을 것이다. 즉 卦의 文樣에는 漢字의 三要素인 形·音·義에서 形과 義가 구비되어 있는 셈이고, 音은 物象에 따라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 象徵되는 物象마다 音은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 卦의 文樣에는 形·音·義가 모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求字가 茶山의 설명대로 艮卦에서 만들어진 文字임이 입증되는지 『說文解字』·『漢字源流字典』·『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求字에 대한 解說을 보고자 한다.

『說文解字』의 求字 解說







“裘 𧄎 皮衣也 從衣求聲 一曰象形 與衰同意 凡裘之屬皆從裘 巨鳩切 𧄎 古文省衣(구 𧄎 가죽옷이다. 의를 따르고 구성이다. 일설에 상형자이고 衰와 같은 뜻이라 하였다.裘에 속한 자는 모두裘를 따른다. 거구반절이다. 𧄎는 고문인데 의자가 생략되었다).”¹¹⁷⁾

117) 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73면.

『漢字源流字典』의 求 字 解說

“求 【字形】 甲  金  古  篆  隶  憲 【構造】 象形字. 甲骨文象毛朝外的皮襖形. 金文上加一手(又), 表示手提皮衣形, 又也兼表聲. 古文大同. 篆文因其形不顯, 便又另加義符衣, 以突出皮衣之義. 隸變後楷書承接金文和篆文分別寫作求與裘, 表義有分工. 【本義】 《說文·裘部》: “裘, 皮衣也. 象形. 求, 古文省衣.” 本義爲皮衣 【演變】 作爲“裘”的本字, 本義爲①皮衣: 彼都人士, 弧求黃黃. 此義後專用“裘”表示. 獸皮能爲皮衣, 是人所欲得, 故引申指②設法得到, 取得: … …(구 【자형】 갑골문  금문  고문  전문  憲 【구조】 상형자. 갑골문의 모양은 털이 밖으로 나온 가죽 옷의 형상이다. 금문에서는 손이 하나 더해져서 손(又)에 가죽옷을 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는 또한 성부를 겸하고 있다. 고문은 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에서는 자형이 분명하지 않아 의부로 衣를 별도로 덧붙여서 가죽옷이라는 뜻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예서의 변화를 거친 후 해서에서 금문과 전문이 이어지면서 求와 裘로 분별되어 쓰였는데, 뜻도 다르게 구분되었다. 【본의】 《說文·裘部》: “裘, 皮衣也. 象形. 求, 古文省衣.” 본의는 가죽옷이다. 【연변】 “裘”의 본자, 本義는①皮衣: 저 도성의 인사여, 여우 깃옷이 누르고 누르도다. 이 뜻은 후에 “裘”가 표시하였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신되어②취득할 방법을 강구하다는 뜻으로 인신의 되었다: … …).”¹¹⁸⁾

『漢字形義演釋字典』의 求 字 解說

“求. 甲骨文  金文  小篆  【字形及本義】 甲骨文象有毛的皮衣, 卽“裘”的初文. 金文和小篆省去衣. 《說文》: “求, 皮衣也. … …求, 古文省衣.” 卽“求”爲“裘”的古字. “求”的本義指“皮衣”. [字義演釋] 本義消亡. 借爲“請求”、“乞求”. 動詞(구. 갑골문  금문  소전 . [자형 및 본의] 갑골문의 모양은 털이 있는 가죽옷이다, 즉 “裘구”의 初文이다. 금문과 서전에서 衣가 생략되었다. 《說文》: “求, 皮衣也. … …求, 古文省衣.” 즉 “求”는 “裘”의 古字이다. “求”의 본의는 “가죽옷”. [자의연석] 본의는 소멸되고, 가차의로 “청구”、“바라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動詞이다.”¹¹⁹⁾

118)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416면.

119)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460면.

上記한 諸字典의 求字에 대한 解説을 보면 『漢字源流字典』과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皮衣’라는 『說文解字』의 字義를 追從하면서 따라서 字形에 대한 解説도 『說文解字』의 字義에 附어 맞추려는 듯 ‘皮衣’의 解説을 하고 있다. 現行 大徐本の 『說文解字』에는 求字를 字頭로 삼은 解説이 없다. 그래서 『漢字源流字典』과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字形의 解説을 『說文解字』의 裘字의 字義인 ‘皮衣’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字義에 대한 解説에서는 引伸義 또는 借爲된 字義만 解説되어 있다. 『漢字源流字典』에서는 ‘【演變】作爲“裘”的本字，本義爲①皮衣：彼都人士，弧求黃黃。此義後專用“裘”表示。獸皮能爲皮衣，是人所欲得，故引申指②設法得到，取得：… ….’이라 하였고, 『漢字形義演釋字典』의 [字義演釋]에서는, ‘本義消亡. 借爲“請求”、“乞求”. 動詞.’라 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의 引伸義 ‘設法得到，取得’은 ‘獸皮能爲皮衣，是人所欲得.’에서 비롯된다. 글자 그대로 직역해보면 ‘짐승가죽옷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므로, 취득하려하다’는 뜻이다. 裘字에 대한 『漢語大詞典』의 解説을 보면 『詩經』과 『禮記』의 文章이 例文으로 실려 있다.¹²⁰⁾ 求字가 裘字의 古文이면 『詩經』과 『禮記』時代 이전에 쓰인 글자라는 말이다. 즉 上古時代의 글자라는 말인데 上古時代¹²¹⁾라면 伏羲가 八卦를 지었던 時代이고 伏羲時代는 狩獵時代¹²²⁾이다. 그러니 獵성이라야 가죽옷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누구나 입고 있는 것이 가죽옷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누구나 걸치고 있는 가죽옷을 특별히 선호하여 글자의 뜻 자체가 변화될 정도가 되겠는가. 또 ‘求’의 本義에 예문으로 실린 ‘彼都人士，弧求黃黃.’의 求字는 裘字를 解説한 本義 예문에는 “彼都人士，弧裘黃黃.”¹²³⁾과 같이 ‘裘’로 되어 있다. ‘彼都人士，弧裘黃黃.’은 『詩經·小雅·都人士之什』의 初句인데 여러 판본을 살펴봐도 ‘裘’로 되어 있지 ‘求’로는 되어있지 않다. 사실 求字가 ‘皮衣’의 뜻으로 쓰인 例文은 字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說文解字』의 ‘裘 古文省衣.’라는 解説을 제

120) “《詩·邶風·七月》：“一之日於貉，取彼狐狸，爲公子裘。” · “《禮記·月令》：“<孟冬之月>是月也，天子始裘。””(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4，1445면).

121) “上古라함은，《莊子·胠篋》편의 容成氏 大庭氏 伯皇氏 中央氏 栗陸氏 驪畜氏 軒轅氏 赫胥氏 尊盧氏 祝融氏 伏羲氏 神農氏 시대를 말한다.”(李敦柱 著，『漢字學總論』，博英社，2004，26면).

122)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元本周易』，學民文化社，1996，1078면).

123) 谷衍奎 編，『漢字源流字典』，語文出版社，2010，1563면.

외하면 ‘皮衣’의 뜻은 없다. 또한 『說文解字』에서 求字를 字頭로 한 解說이 없으므로 求字가 정확히 ‘皮衣’를 뜻하는 글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漢字形義演釋字典』의 [字義演釋]에서, “本義消亡. 借爲 “請求”、“乞求”. 動詞.”라 하였는데, 이 字典에서는 本義는 소멸되고 ‘請求’·‘乞求’의 뜻으로 차용되었다고 하였다. 本義가 소멸 되었다는 것은 求字가 ‘皮衣’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있으니 本義가 소멸되었다는 것이겠으나, ‘請求’·‘乞求’라는 借用義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설명이 없다. ‘請求’·‘乞求’의 例文으로는 『戰國策·趙策四』의 “趙太后新用事秦急攻之 趙氏求救于齊.”¹²⁴⁾이다. 『戰國策』은 前漢 유향(劉向 BC 79?~BC 8)의 저작이다. 즉 BC1세기의 저작물이다. 즉 문자사용의 시기로 볼 때 매우 후대에 속하는 시기의 文章을 例文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求字가 ‘請求’·‘乞求’의 뜻으로 쓰인 最初의 文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易經』 第 4 卦인 蒙卦 象辭의 文章이라 할 수 있다. 즉 “匪我求童蒙 童蒙求我.”¹²⁵⁾가 그것이다. 『易經』이 經典 중에서 가장 오래된 典籍이므로 文字로 기록된 최초의 文籍이 될 것이다. 그러나 『易經』에 쓰인 글자는 어디에서 글자를 차용하여 쓰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易經』에서 어떤 글자가 假借되어 쓰이거나 字義가引申되어 쓰이거나 간에 『易經』에서 글자가 최초로 造字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니 本義가 소멸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그 글자로 나타내려는 바가 있어서이지 그 글자를 假借字로 쓸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引申義만을 사용하려고 本義를 없애버리는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漢字源流字典』과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의 求字에 대한 解說은 短見的일 뿐만 아니라 字形이나 字義에 대하여 심각한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請求’·‘乞求’의 字義를 지닌 求字는 艮卦의 文樣 ䷳에서 字形과 字義가 生成 되었다는 茶山의 見解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茶山은 이 求字 이외에,
退·根·限·節·很·恨 등의 글자가 艮卦의 卦形인 ䷳과 艮卦의 物象에서 生成된 字라고 지목하였다.

124)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460면.

125) “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即不告 利貞.”(『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205면).

“天地가 開闢하여 坤이 坎을 坼매이니 澤이 되었고, 坎이 坤을 깎아내니 山이 되었다, 산은 땅에서 솟은 것이니 坤의 위에 솟은 것이 山인 것이다. 君子의 道는 下學而上達 하는 것이니, 下學而上達하는 바가 그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치는 것이다. 陽이 震卦에서 태동하여 坎卦의 중간을 거쳐 艮卦에 이르니 더 나갈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멈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消長의 형세로 본다면 陰이 巽卦에서 일어나 艮卦에서 왕성해지고 坤卦에서 純陰이 되는 것과 같다. 八卦에 艮卦가 있는 것은 重卦에 剝卦가 있음 같으니, 그러므로 艮卦를 일러 小人의 道라고 하는 것이다. 下나라 易은 艮卦를 首卦하는 連山易이다. 終에 곧 始가 있는 것이 하늘이 운행이다. 始는 終이라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이다]. 艮卦는 이를 데까지 이르렀으니 退는 있으나 進은 없는 것이다. 「說卦傳」에 이르기를 艮卦는 徑路가 된다하였으니 艮卦는 退이다. 글자도 艮을 따르고 있다. 艮은 나뭇가지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반해 蕃鮮은 震卦의 나뭇가지가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艮卦는 뿌리가 된다. 글자도 艮을 따르고 있다. 坤卦의 땅에 경계가 없었는데 경계를 그어 구역을 정하여 바깥을 그치게 하니, 艮卦는 限이 된다. 限은 垠이다. 柔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더 성하지 않도록 剛으로 그것을 가로 막으니, 艮卦는 節이 된다. 글자도 艮을 따르고 있다. 멈춰서 행하지 못하므로 艮卦는 很이 된다. 막혀서 불통하니 艮卦는 恨이 되는 것이다.”¹²⁶⁾

(2) 退字의 生成

☶의 卦象은 陽이 極에 이르러 더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陽이 움직임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은 ‘退’가 된다는 것이다. 進字는 [隹 + 辵] 으로 되어 있다. 새가 가는 것이다. 새는 앞으로만 날아갈 수 있을 뿐이다. 뒤로는 날 수 없다. 進字의 “앞으로 나아가다”¹²⁷⁾라는 字義는 字形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정확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退字는 [艮 + 辵] 으로 되어 있고 字義는 “뒤

126) “○鑄案混沌既闢, 坤坼坎爲澤, 坎剝坤爲山, 山隆於地, 故坤之上隆者爲艮也. 君子之道下學而上達, 止於其所不得不止也. 陽起於震中於坎至於艮則無可復進, 故止也. 若以消長之勢, 則陰始於巽盛於艮純於坤. 八卦之有艮, 猶重卦之有剝也. 故曰艮者小人之道也. 夏易以艮爲首連山易, 終則有始, 天行也. 始之所始曰終, 前路既窮, 有退無進, 說卦云艮爲徑路艮者退也, 字從艮. 枝條向下, 反於蕃鮮震向上, 艮者根也, 字從艮. 坤土無疆, 界以域之止於外, 艮者限也限垠也. 柔之既長, 剛乃截之, 艮者節也, 字從艮. 止而不行, 艮者很也. 塞而不通, 艮者恨也.”(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二卷○周易四箋卷六 [諸卦] ○第二十九卦).

127) “《說文·辵部》：“進, 登也. 從辵, 闕省聲.” 析形不確. 本義爲向上或向前移動, 前行與“退”相對.”(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363면).

로 물러나다”¹²⁸⁾이다. ‘辵’은 “가다.”¹²⁹⁾라는 뜻이다. 進字의 ‘앞으로 나아가다’의 字義에서 ‘앞으로’ 라는 뜻은 ‘佳’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退字의 ‘물러나다’라는 뜻은 ‘艮’에 있다. 즉 艮卦의 卦象에서 나타내는 ‘물러나는’ 象에서 取한 뜻이다.

(3) 根字의 生成

根字는 [木 + 艮] 으로 되어 있고 字義는 “뿌리”¹³⁰⁾ 이다. 木은 木類를 나타내고 ‘艮’으로 뿌리를 나타내고 있다. 根字의 字義 ‘뿌리’가 ‘艮’에 의한 것이라면, ‘艮’이 뿌리가 되는 연유는 무엇인가, 震卦에 “나무”¹³¹⁾의 物象이 있는데, ☳은 陽劃인 — 이 아래에 있고 陰劃인 ≡이 위에 있다. 橫線 —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點線 ≡이 나뭇가지이다. ≡은 반대로 橫線 —을 기준으로 點線 ≡이 아래에 있다. 즉 가지가 밑으로 뻗었다. 밑으로 뻗는 가지는 ‘뿌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艮’이 뿌리가 되는 것이다.

(4) 限字의 生成

限字는 [阜 + 艮] 으로 되어 있고, 字義는 “한정하다”¹³²⁾이다. ‘阜’는 “큰 땅”¹³³⁾의 뜻이고, ‘艮’은 境界의 뜻이다. 그러니 ‘限’은 땅에 境界를 하여 地境을 定하는 것이다. ‘艮’이 境界가 된다는 것은 ≡의 땅¹³⁴⁾에 ≡의 上劃인 —으로 선을 그으니 땅에 境界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다.

(5) 節字의 生成

節字의 字義는 “대의 마디”¹³⁵⁾이다. 대나무는 마디는 막혀있고 마디 사이는 비어

128) “《說文·辵部》：“復，却也。一曰行遲也。從辵，從日，從攴。”《玉篇·辵部》：“退，却也。”本義爲向後移動。”(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957면).

129) “《說文·辵部》：“辵，乍行乍止也。從辵，從止。”析形不確。本義當爲走路。”(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363면).

130) “《說文·木部》：“根，木株也。從木，艮聲。”本義爲植物莖下部長在地下的部分。”(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010면).

131) “[今補] 震爲草木.”(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四卷○周易四箋卷八 說卦傳)

132) “《說文·阜部》：“限，阻也。從阜，艮聲。”本義爲阻隔。”(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750면).

133) “阜 𡵓 大陸山無石者 象形 凡阜之屬皆從阜 房九切 𡵓 古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304면).

134) “坤地也.”(『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44면).

135) “《說文·竹部》：“節，竹約也。從竹，卽聲。”本義爲竹節，卽竹子有環狀突起的地方.”(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37면).

있다 ☰이 모양은 대나무의 속이 빈 몸통과 막혀 있는 마디를 그대로 형상하고 있다. 다만 茶山은 節制의 의미로 해설하였다.

(6) 很字의 生成

很字는 [彳 + 艮] 으로 되어 있고, 字義는 “거스르다”¹³⁶⁾이다. ‘彳’은 “느리게 걷다”¹³⁷⁾라는 뜻이고, ‘艮’은 멈춤이라는 뜻이다. 느리게 걷는 것조차도 멈추었으니, 더 나아가려하지 않는 ‘거역함’이 되어 ‘거스르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7) 恨字의 生成

恨字는 [忄 + 艮] 으로 되어 있고, 字義는 “원통히 여기다”¹³⁸⁾이다. ‘忄’은 마음의 뜻이고, ‘艮’은 가로막힘의 뜻이다. ☶은 한 없이 뺏어나가고 싶은 柔劃이 위어가로 놓여 있는 剛劃에 의해 막혀있는 形局이다. 그러나 柔劃의 뺏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剛劃에 막혀 뺏어나갈 수가 없으니 그 마음에 원통함이 서리게 되는 것이다.

上記한 退 · 根 · 限 · 節 · 很 · 恨 등은 모두 ☶의 卦形과 物象에서 뜻을 취하고 있음으로 茶山이 지목한 바와 같이 艮卦에서 生成된 文字임이 입증되고 있다.

5) 卦名 艮의 生成

艮卦의 文樣은 ☶이다. —陽이 위에 있고 ☷陰이 아래에 있다. 이 文樣이 文字化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文字는 ‘日’과 ‘止’이다. ‘日’은 ☰이 上劃인 —陽이 나타내는 物象이고, ‘止’는 아래 劃인 ☷陰이 나타내는 物象이다. ‘日’과 ‘止’를 組合하면 ‘畀’이 된다. ‘艮’은 東北方의 卦이다. 태양이 震卦의 東에서 떠올라서 離卦의 南을 거쳐 兌卦의 西에서 지고 坎卦의 北에서 子正을 지나 艮卦에서 머물다가 다시 떠오른다.¹³⁹⁾ 그래서 ‘艮’에는 ‘日’ 즉 태양과 ‘止’ 즉 머무르다가 있는 것이다. 그 ‘日’과

136) “《說文·彳部》：“很，不聽從也。從彳，艮聲。”本義爲不聽從，違逆。”(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890면).

137) “彳 𠂔 小步也 象人脛三屬相連也 凡彳之屬皆從彳 丑亦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42면).

138) “《說文·心部》：“恨，怨也。從心，艮聲。”本義爲遺憾，懊悔。”(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942면).

139) “萬物出乎震，震，東方也。齊乎巽，巽，東南也。齊也者，言萬物之潔齊也。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

‘止’가 들어 있는 文樣인 ☶이 文字化 되는 과정을 나열해보면 ☶ ⇒ 一 日 ⇒ ☶
止 ⇒ 日 ⇒ 艮 ⇒ 艮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艮’은 卦의 文樣인 ☶이 나타내는
文字인 ‘日’과 ‘止’로 이루어져서 卦名字로 生成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向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 西方也. 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乎乾, 乾, 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勞乎坎. 艮, 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2면.)

8. 兌 ☱

1) 兌卦의 物象

兌卦는 두 개의 양劃과 하나의 음劃으로 이루어진 卦이다. 卦의 文樣은 ☱이다. 兌卦는 연못을 象徵하는 卦이다. 兌卦의 卦體는 두 ☰陽劃이 아래에 있고 하나의 ☷陰劃이 위에 있다. 朱子는 『周易本義·兌卦』의 註釋에서,

“그 象이 못이 된다고 함은 만물이 기뻐함을 취하고, 또 坎水를 막아 물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象이기 때문이다.”¹⁴⁰⁾ 고 하였다.

이 말은 ☱의 卦形이 위쪽은 ☷(坎)이고 아래쪽은 ☰(剛劃)이다. 위쪽의 ☷은(☷은 ☱에서 아래쪽의 ☷이 생략되었다) 坎으로 물을 象徵한다. 이 坎의 물을 아래쪽의 ☰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形象이다. 못은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卦象이 못이 라는 것이다. 그 밖의 物象으로는, 소녀 · 무당 · 입과 혀 · 唾절 · 떨어져 나감 · 불모의 땅 · 칩 · 양¹⁴¹⁾ 등의 物象이 있다.

2) 兌字의 字形 字義 解說

(1) 『說文解字』의 兌字 解說

兌 설(說: 말하다)이다. 사람인발(儿)을 따르고 연(亼)성이다. 徐鉉 등의 이르기를 “亼은 고문(古文)의 연(兗)자이다. 성부가 아니다. 당연히 口를 따르고 儿를 따른다. 모양이 气가 분산되는 형상이다.”라 하였다. 역에 이르기를 “태는 무당이 되고, 입이 된다.”고 하였다. 大外반절이다.¹⁴²⁾



140) “其象為澤 取其說萬物 又取坎水而塞其下流之象”(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475면.)

141) “兌 爲澤 爲少女 爲巫 爲口舌 爲毀折 爲附決 其於地也爲剛鹵 爲妾 爲羊.”(『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1152면.)

142) “兌 兌 說也 從儿 亼聲 臣鉉等曰 亼古文兗字 非聲 當 從口從儿 象气之分散 易曰 兌 爲巫爲口 大外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76면.)




『說文解字』에서는 ‘從人亼聲’이 形聲字이고 字義는 ‘말하다’¹⁴³⁾이다. 本稿에 參考文獻으로 사용하고 있는 『說文解字』는 徐鉉의 大徐本이다. 徐鉉은 『說文解字』의 字形構造가 잘못 解說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徐鉉은 ‘亼聲’에 대하여 亼字가 아닌 八과 口라 하고 ‘從儿八口’의 會意字로 규정하고 있다. 字形構造에는 異說하였으나 字義에 대한 異見은 없다. ‘입에서 기가 분산되는 형상이다’ 하였으니 ‘설(說: 말하다)’의 字義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徐鉉의 解說을 따르면 ‘兌’는 口와 儿의 象形字와 指事字인 八이 上下로 결합된 會意字로 字義는 ‘입으로 말하다’이다.

(2)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兌字 解說


兌. 定성모. 月운모. . . 八을 따르고, 口를 따르고, 儿을 따랐다. 고흥진: “연(亼)은, 열(悅)의 본자 이다. 사람이 기뻐서 웃음을 지음으로 입 양쪽에 주름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희열의 뜻이 생긴 것이다.” 《설문》: “태, 말하다. 인을 따르고 연성이다.” 복사의: 悅로 쓰였다.¹⁴⁴⁾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은 『說文解字』의 徐鉉의 설을 따르면서, 卜辭義는 高鴻緝의 ‘亼’에 대한 解說을 수용하여 ‘悅’로 字義를 삼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亼’字가 兗의 古字라고 하였다. 兗은 古代 九州의 州名¹⁴⁵⁾이다. 高鴻緝은 ‘연(亼)은, 열(悅)의 본자 이다’ 라고 하고 있다. 『說文解字』의 解說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高鴻緝의 亼에 대한 解說은 ‘웃을 때 입가에 주름 잡힌 모양’을 나타낸 象形字로 보고 있다. 그런데 亼이 悅의 本字 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은 없다.

(3) 『漢字形義演釋字典』의 兌字 解說

兌. 갑골문  금문  소전 

[자형 및 본의] 갑골문의 위쪽은 “팔”로, “분리하다”의 뜻이 있다; 중간은 “구”이다;

143) “說  說釋也 從言兌 一曰談說 失蒸切又弋雪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3면).

144) “兌. 定月. . . 從八, 從口, 從人. 高鴻緝: “亼, 即悅本字, 人悅則口兩旁有紋理形, 故托以寄喜悅之意.” 《說文》: “兌, 說也. 從人亼聲.” 卜辭義: 用作悅”(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203면).

145) “州名, 卽兗州, 取兗水爲名. 古九州(冀·兗·青·徐·揚·荆·豫·梁·雍)之一. 相傳大禹治水, 分域內爲九州, 在今山東省西南部: 濟·河間曰兗州.”(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697면).

아래쪽은 “사람인발”, 즉 “사람”이다. 사람이 입을 벌리고 웃는 것을 뜻한다. 희열을 표시하고 있다. 금문에서 “팔”이 생략 되었다. 소전은 갑골문이 변한 것이다. 림의광 《문원》: “슴은 성부가 아니다. 태(兌)는 열(悅)의 본자 이다.……人을 따르고 口를 따르고 八을 따르고 있는데, 八은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웃어서 입을 벌어진 모양이다.” “태”의 본의는 “희열”이다.¹⁴⁶⁾

『漢字形義演釋字典』의 解說은 兌字가 會意字이다. 『說文解字』의 形聲字와는 字形構造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슴’이 ‘悅’의 本字라고 하였는데,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兌’가 ‘悅’의 本字라고 하였다. 그리고 字形의 설명에서도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사람이 웃을 때 입가에 주름이 지는 모양’이라하였는데,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사람이 웃어서 입을 벌어진 모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殷墟甲骨文實用字典』과 『漢字形義演釋字典』의 解說이 다른 것은 字形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殷墟甲骨文實用字典』에서는 字形構造를 象形字로 보고 있고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는 會意字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兌’가 ‘悅’의 本字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같다.

(4)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兌字 解說




兌 [형] 갑골문 兌 금문 兌 소전 兌 에서 兌 초서 兌 (회의자) (형성자) 갑골문과 금문은 태의 자형이 거의 같다. 金文 兌에 대해서 림의광은 「人과口와八을 따랐다, 八은 분리하다이다, 사람이 웃을 때 입을 벌여지는 것이다.」하고 人과口와 八이 합쳐진 會意字로 怡悅의 뜻이라 하였다. 小篆의 兌에 대해서는: 儿을 따르고, 兌(古代의 兗字이다.)聲으로, 本義는 「說」이라 풀이하었다(『說文解字』에 나온 것이다)儿은 卽 「人」字이다, 「說」은 卽 지금의 「悅」字이다, 오직 사람만이 기뻐하고, 또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儿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夔氏는 「人을 따르고 口구를 따르고 八을 따랐는데, 八(音의 背)은 또한 聲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한 인용문을 검증한바 이와 같은 소견이다.¹⁴⁷⁾

146) “兌 甲骨文 兌 金文 兌 小篆 兌 [字形及本義]甲骨文上面是“八”，有“分開”意；中間是“口”；下面是“儿”，卽“人”。合起來指人在開口笑，表示喜悅。金文省去了“八”。小篆由甲骨文演變而來。林義光《文源》：“兌非聲。兌卽悅之本字……從人，口，八。八，分也。人笑故口分開。”“兌”的本義是“喜悅”(王朝忠 編著，『漢字形義演釋字典』，四川辭書出版社，2006，546면).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 ‘兌’의 字形은 會意兼形聲字이다. 『說文解字』를 비롯하여 林義光과 夔氏의 설이 인용되고 있는데 『說文解字』의 形聲字와 林義光의 會意字 說에 대한 설명은 위에 나와 있다. 이 字典에서 취하고 있는 會意兼形聲字의 견해는 ‘惟夔氏以爲「當從人·口·八, 八(音背)亦聲」; 所見亦是, 並引參證.’에서 나온 것인데, 『說文解字』에서는 台聲인데, 여기서는 八聲이다. 聲符가 다르다.

(5) 『漢字源流字典』의 兌字 解說

兌

【자형】 갑골문  금문  전문 






【구조】 회의자. 갑골문은 인을 따르고, 구를 따르고, 팔을 따르고 있다(팔은 분리하 다를 표시한다), 사람이 입을 벌리고 웃는 뜻이다. 금문은 갑골문과 대체로 동일하다. 전문에서 다듬어졌다. 예서의 변화를 거쳐 해서에서 兌로 썼다. “悅”의 本字이다.




【본의】 《설문·인부》: “태, 설(悅)이다. 인을 따르고, 연성이다.” 자형분석이 불확실하다. 본의는 회열이다.¹⁴⁸⁾

『漢字源流字典』의 解說은 『漢字形義演釋字典』의 解說과 비슷하다. 다만 『說文解字』의 ‘兌 說也’에 대하여 ‘兌, 說(悅)也’로 ‘說’을 ‘悅’로 解說하고 있다. ‘說’을 ‘悅’로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설명이 없다. 그리고 『說文解字』의 解說이 확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說(悅)’이라는 恣意的 해석을 『說文解字』의 解說문에 붙이고 있다. 『說文解字』에는 ‘說 悅也’라는 文句는 없다.

3) 兌字의 字形 字義 分析

(1) 字形 分析

147) “兌 [形] 甲文  金文  小篆  隸書  草書  (會意)(形聲) 甲文兌與金文兌略同. 金文兌林義光氏以爲「從人·口·八, 八分也, 人笑口分開。」於此以會怡悅之意. 小篆兌: 從儿·台(古兌字)聲, 本義作「說」解(見說文許著)儿即「人」字, 「說」即今之「悅」字, 惟人能悅人, 亦能使人悅己, 故從儿. 惟夔氏以爲「當從人·口·八, 八(音背)亦聲」; 所見亦是, 並引參證”(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09면).

148) “兌【字形】甲  金  篆  【構造】會意字. 甲骨文從人, 從口, 從八(表示分開), 會人咧開嘴嘻笑之意. 金文大同. 篆文整齊化. 隸變後楷書寫作兌. 是“悅”的本字. 【本義】《說文·儿部》: “兌, 說(悅)也. 從人, 台聲.” 析形不確. 本義爲喜悅”(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491면).

이상 다섯 편의 字典에서 ‘兌’에 대한 字形과 本義에 대한 解說을 보았다. 각 字典마다 字形構造에 대한 解說은 다르나, 모두 ‘悅’에 맞추고 있다. 즉 本義로 삼고 있는 ‘悅’에 맞춘 解說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說文解字』의 ‘兌 說也’조차도 ‘說(悅)’로 바꾸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說文解字』에는 ‘兌 說也’이고 說은 “說釋也 一曰談說”¹⁴⁹⁾이다. 釋은 “釋 解也”¹⁵⁰⁾이다. 더군다나 『說文解字』에는 悅字가 아예 수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說’이 ‘悅’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兌의 本義로 삼은 ‘悅’에 대한 引證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說文解字』를 제외하고는 ‘兌’의 本義가 ‘悅’이 라는 데에는 동일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悅’이라는 本義를 字形에서 뽑아내고 있다. 즉 ‘從人口八’에서 類推해 내고 있다. 각 字典마다 설명이 약간씩 다르긴 해도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 하고 있고, 입을 벌리는 것이 ‘즐거워서 웃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즐거우면 입을 벌려 크게 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즐겁다고 모두 입을 벌려 웃는 것은 아니다, 입은 벌어지지 않아도 미소로도 마음의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상 입을 벌려 크게 웃는 경우는 재미있는 유희를 즐길 때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이 기뻐할 때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다. 마음에 기쁜 일이 있게 되면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입을 벌려 크게 웃는 행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을 有意해볼 때 ‘從人口八’은 오히려 ‘說’의 설명으로 더 알맞은 解說이 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벌리게 된다. 입을 닫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의 미소로 입을 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지만 말은 입을 벌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從人·口·八’의 字形構造로는 ‘悅’의 뜻을 나타내는 字形構造로는 不適하고 오히려 ‘說’의 字形構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字義 分析

『說文解字』를 제외한 네 字典의 兌字의 本義는 ‘悅’로 되어 있다. 本義인 ‘悅’의 例文을 字典 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漢字形義演釋字典』의 例文

149) “說 說釋也 從言兌 一曰談說 失燕切又弋雪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3면).

150) “釋 釋也 從采采取其分別物也 從睪聲 賞職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8면).

“❶喜悅. 形容詞. 《荀子·不苟》：“見由則兌同倨(被重用時, 就喜悅忘形, 傲慢不遜), 見閉則怨而險(不被重用時, 就怨天尤人, 搞陰謀活動).”(❶희열. 형용사. 《순자·불구》：“見由則兌同倨(중용이 될 때는, 희열에 들떠, 오만불손하고), 見閉則怨而險(중용이 되지 않을 때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닷하면서,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민다).”¹⁵¹⁾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例文

“動○悅. 例「和兌; 吉.»(易·兌)(동사 ○열, 예문「상하가 화합하니 모두가 기쁘다; 그러니 점이吉하다.»(역경·태괘 초구의 효사).”¹⁵²⁾

『漢字源流字典』의 例文

“❶喜悅: 見由(從)則~而倨, 見閉則怨而險(❶희열: 중용이 될 때는, 희열에 들떠, 오만불손하고, 중용이 되지 않을 때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닷하면서, 별의 별 음모를 다 꾸민다).”¹⁵³⁾

『漢語大詞典』의 例文

“1.喜悅. 《易·兌》：“兌, 說也. 剛中而柔外, 說以利貞.” 孔穎達疏: “外雖柔說而內德剛正, 則不畏邪諂.” 《莊子·德充符》：“使之和豫通而不失於兌.” 陸德明釋文引李頤云: “兌, 悅也.” 《荀子·修身》：“饒樂之事, 則佞兌而不曲.” 楊倞注: “兌, 悅也. 言佞悅於人以求饒樂之事.”(1.희열. 《역경·태괘》：“태는, 說이다. 강이 中에 자리하고 유가 밖에 있다, 점이 이로우니 기뻐하는 바이다.” 공영달 소; “밖의 비록 유로 써 기뻐하는 바이나 안의 덕이 강으로 바르니, 사악하고 아침하는 무리가 있을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장자·덕충부》：“마음이 잘 조화되어 있으면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육덕명의 해석한 문장을 인용하여 이이가 이르기 를: “태는 悅이다.”하였다. 《순자·수신》：“이익이 있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일 이라면 온갖 아침과 기쁘게 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투어 빼앗는데 조금도 주저 하지 않는다.” 양경 주: “태는 悅이다. 아침하는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익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일을 구한다.”)¹⁵⁴⁾

151)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546면.

152)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109면.

153)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491면.

『漢語大詞典』과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은 『易經·兌卦』에서 ‘悅’의 例文을 취하고 있고, 『漢字形義演釋字典』과 『漢字源流字典』은 『荀子·不苟』에서 동일한 문장으로 例文을 취하고 있다.

兌卦는 『易經』의 卦 가운데 유일하게 ‘悅’의 象이 있는 卦이다. 그리고 이 ‘悅’의 象은,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태는 중추의 卦이다, 만물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에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다). 說音悅(설은 음이 열이다).”¹⁵⁴⁾에서 나타나는 象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兌’의 字義 ‘悅’은 兌卦의 物象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兌’의 字形에서 ‘悅’의 뜻이 類推된 것이 아니라, 兌卦에 내포되어 있는 物象이기 때문에 ‘兌’에 ‘悅’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漢語大詞典』은 『易經·兌卦』에서 ‘悅’의 예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漢字의 本義는 그 漢字의 탄생 根因이다. 上記의 字典 가운데 『說文解字』를 제외한 字典에서는 兌字의 本義를 ‘悅’이라 하고 있으니 兌字는 ‘悅’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兌字가 『易經』의 卦名字로 쓰이고 있다.

4) 兌卦의 文字 生成

茶山은 『周易四箋·兌卦』의 註釋에서 兌卦에서 生成된 文字로, 脫·蛻·稅·銳·稅·稅·浼·悅·說 등을 指目하고 이에 대한 註釋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兌는 벗기는 것이다. 乾은 즉 上衣가 된다. 兌는 乾의 옷을 벗긴 것이 된다. 乾의 上剛이 제거되었으니 그 象이 벗긴 것이 된다. 몸에서 옷을 벗는 것이 脫이다. 脫은 육(肉달月)을 따른 글자이다. 벌레가 껍질을 벗는 것을 蛻라 한다. 뱀이나

15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3441면.

155) 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2면.

매미가 껍질을 벗는 것 같은 것이다. 수레에서 輓을 풀어내는 것을 稅라고 한다. 즉 말의 멍에에서 수레를 풀어내고 멍에를 벗겨주는 것을 이른바 稅라고 하는 것이니, 脫·蛻·稅는 벗는다는 뜻으로 모두 같은 것이다.

兌는 예리한 것이 된다.兌의 卦體가 아래는 크고 위는 작다.陰은 小이므로 그 象이 예리한 것이다. 쇠에서 위가 작은 것을 銳라한다.荀子가 이르기를 仁人의 병사는 兌(예리하다)라 하였다. 나무에서 위가 작은 것을 梲이라 한다. 들보위의 작은 동자기둥을 이르는 것이다. 또 大雅에 이르기를 松柏이 잎사귀가 예리하게 되었구나 하였다. 돌의 위가 작은 것을 硲라 하는데 돌을 갈아서 끝을 뾰족하게 하는 것이다. 위쪽이 아래쪽 보다 작다는 뜻으로 銳·稅·硲의 뜻이 다 같은 것이다.

兌는 利이다.西方의 卦로써 四時로는 가을이 된다. 그러므로 兌는 곧 利가 되는 것이니, 칼로 벼를 베는 것이다. 利는 禾를 따르고 匕를 따른다.兌는 和가 된다. 입으로 벼를 먹는 것이니, 兌는 곧 입이 되는 것이다.

兌는 澆이다. 물로 걸러내어 맑게 하는 것이다.乾이 가득 찬 곳에 兌로써 맑게 한다.大傳에 이르기를 澆忿은 그 象이 못이다 고 하였다. 못은 물이 고요하고 맑은 것이다.

兌는 悅이다.震에서 일어나서, 중심에서 얻음이 있음이니, 中에서 剛을 얻은 것이다. 밖으로는 스스로 풀어놓은 모습이다.上位에 一陰이 그것이니, 그 象이 悅인 것이다.

兌는 說이다.上位에 갈라진 금이 입과 같다. 말이 나오는 곳이다.”¹⁵⁶⁾

156) “兌者脫也. 乾則爲衣. 荀九家 兌褫其外 去上剛其象脫也. 肉脫衣曰脫. 脫從肉 蟲脫殼曰蛻. 蛇蟬等. 車脫輓曰稅. 卽所云稅駕脫輓 其義一也. 兌者銳也. 兌之爲卦 下大上小. 陰曰小其象銳也. 金上小曰銳. 荀子云仁人之兵兌. 木上小曰稅 梁上小柱也. 又大雅云松柏斯兌. 石上小曰硲 磨之使尖小. 其義一也. 兌者稅也. 西方之卦 於時爲秋故兌則爲利 以刀而刈禾也. 利從禾從刀. 兌則爲和 以口而食禾也 兌爲口. 兌者澆也 澆水使之清. 乾之盈滿 兌以澄之. 大傳云澆忿其象澤也. 澤水靜而澄. 兌者悅也 自震而起. 八卦序中心有得 中又剛. 外貌自解 上一陰其象悅也. 兌者說也 上坻如口 談說之所出也.”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二卷○周易四箋卷六 [諸卦] 第三十二卦之反).

(1) 脫·蛻·稅 字의 生成

脫의 字義는 “消肉臞也(고기를 벗겨내어 앙상해진 것)”¹⁵⁷⁾이다.

蛻의 字義는 “蛇蟬所解皮也(뱀이나 매미가 껍질을 벗는 것)”¹⁵⁸⁾이다.

稅의 字義는 “解脫: 管仲請囚, 鮑叔受之, 及堂阜而稅之(벗어나다: 관중은 체포하여 가기를 요청하므로 포숙이 그를 인수하여 제나라 당부에 이르러 관중의 수갑을 벗겨주었다)”¹⁵⁹⁾이다.

脫·蛻·稅 세 字는 모두 形聲字로서 ‘兌’를 聲符로 한다. 形符는 部類를 나타내고 聲符가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兌’로써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뜻이 ‘벗다’ 이고, ‘벗다’ 라는 뜻은 兌卦의 卦形이 ☱에서 上位의 ☷陰이 ☰乾의 ☰陽을 벗긴 樣態여서 그 뜻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兌는 벗기는 것이다. 乾은 즉 上衣가 된다. 兌는 乾의 옷을 벗긴 것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 ☰의 上位에 있는 ☰劃이 ☷劃으로 바뀌었으니 乾의 위쪽이 벗겨진 것이 된다. 乾의 物象 중에는 上衣의 物象이 있다.¹⁶⁰⁾

(2) 銳·稅·硯 字의 生成

銳는 쇠붙이가 끝이 날카롭게 생긴 것이다.¹⁶¹⁾

稅은 나무가 끝이 뾰족하게 생긴 것이다.¹⁶²⁾

硯는 돌을 갈아 끝을 날카롭게 한 것이다.¹⁶³⁾

銳·稅·硯 세 字 모두 形聲字인데 形符는 部類를 나타내고, 聲符인 ‘兌’가 밑 등은 굽고 끝은 가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兌는 예리한 것이 된다. 兌의 卦體가 아래는 크고 위는 작다. 陰은 小이므로 그 象이 예리한 것이다.’ 이 말은 ☱가 아래는 ☰陽 위는 ☷陰이니. 陽은 大이고 陰은 小이다. 그러니 아래는 굽고 위는 가는 모양이 된다. 도형으로 나타내면 ▲과 같은 모양이라 할 수 있다.

157) “脫 𧰨 消肉臞也 從肉兌聲 徒活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88면).

158) “蛻 𧰨 蛇蟬所解皮也 從虫稅省 輸芮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81면).

159) “稅【構造】形聲字. 從禾兌聲. 【演變】⑦解脫: 管仲請囚, 鮑叔受之, 及堂阜而稅之”(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451면).

160) “乾爲衣”(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四卷○周易四箋 說卦傳).

161) “銳 銳 芒也 從金兌聲 以芮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96면).

162) “稅 稅 木杖也 從木兌聲 他活切又之說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123면).

163) “”

(3) 澆字의 生成

澆는 정화시키는 잿물이다.¹⁶⁴⁾

澆字는 [灺 + 兌] 로 이루어진 形聲字이다. ‘澆’가 淨化의 기능을 갖는 잿물이니 ‘灺’가 形符로써 部類를 나타내고 ‘兌’가 聲符이면서 淨化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澆’는 명주실을 표백할 때 쓰는 잿물이다.¹⁶⁵⁾ 명주실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淨化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兌는 澆이다. 물로 걸러내어 맑게 하는 것이다. 乾이 가득 찬 곳에 兌로써 맑게 한다. 大傳에 이르기를 澆忿은 그 象이 못이다 고 하였다. 못은 물이 고요하고 맑은 것이다.’ 이 문장은 『周易四箋·大象傳』 損卦의 註釋으로 ☰乾 즉 君子가 ‘못’의 고요하고 맑은 물의 性狀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신의 덕을 닦아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⁶⁶⁾ ☱兌의 代表的 物象이 ‘못’이다. ‘兌’의 ‘못’이 淨化機能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澆字는 이 ‘兌’의 못물이 淨化機能에서 生成된 文字라 하는 것이다.

(4) 悅字의 生成

悅은 즐거워함이다.¹⁶⁷⁾

悅字는 [丩 + 兌] 로 이루어진 形聲字이고 本義는 “樂이다.” 形符인 ‘丩’이 部類를 나타내고 聲符인 ‘兌’가 ‘樂’의 뜻을 나타낸다.

‘兌는 悅이다. 震에서 일어나서, 중심에서 언음이 있음이니 中에서 剛을 얻은 것이다. 밖으로는 스스로 풀어놓은 모습이다. 上位에 一陰이 그것이니 그 象이 悅인 것이다.’ 이 文句는 ‘兌’가 ‘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文句이다. 그렇다면 ☱兌에 어떻게 ‘樂’의 뜻이 있게 되는 것인가, ‘震에서 일어나서,’ 라는 것은 八卦의 순서가 ☳ · ☱ · ☲ · ☴ · ☵ · ☶ · ☷ · ☰의 순서로 되어 있다. 震은 卦形이 ☳

164) “澆 灺 財溫水也 從水兌聲 周禮曰以澆漚其絲 輪芮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235면).

165) “幄氏涑絲 以澆水漚其絲七日 去地尺暴之.”(이준영 역해, 『주례』, 자유문고, 2002, 511면).

166) “山下有澤損 君子以 懲忿窒慾. 卦自泰來三之上 乾性太剛 剛則易忿 剛復也. 移之爲兌悅者 乾變兌澤水之澄定也(산 아래 못이 있는 것이 손괘이다. 군자는 이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다. 損卦는 泰卦로부터 왔는데 泰卦 3위의 剛劃이 上으로 가고 그 자리에 柔劃이 온 것이다. 乾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 강하면 분을 쉽게 일으키니 성격이 강박한 것이다. 그런데 下卦의 陽劃이 옮겨가고 陰劃이 들어옴으로 兌가 되니 기 빠하게 되었다. 이것은 乾이 변하여 兌의 못이 되어서 못의 물로 乾의 강박한 성정이 淨化되어 안정되었기 때 문이다).(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十三卷○周易四箋 大象傳).

167) “《說文》無. 會意兼形聲字. 從心兌兼聲……《爾雅·釋詁上》：“悅, 樂也.”本義爲高興, 快樂.”(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1141면).

으로, 純陰卦인 ䷁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陰劃이 陽劃으로 변화되면서 陽 하나가 처음 생겨나고 있는 卦形이다. 이와 같이 ䷁다음에 위치하여 陽으로 처음 陽 하나가 생겨 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¹⁶⁸⁾ ‘중심에서 얻음이 있음이니 中에서 剛을 얻은 것이다.’라는 것은 第 2 位에 陽劃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르는 것이다. 八卦는 陰劃과 陽劃으로 이루어지는데 세 개의 劃이 차례로 쌓이면서 이루어진다. 제일 아래서부터 初位 · 中位 · 上位로 命名 되는데 中位를 卦의 中心으로 본다. 즉 中位에 의해서 卦의 品格이 결정 된다. 또한 陽은 剛, 陰은 柔, 陽은 君子, 陰은 小人을 象徵한다. 그런데 陰劃과 陽劃이 배치하는 자리의 숫자에 의거한다. 즉 홀수의 자리는 陽劃이 位置이고, 짝수의 자리는 陰劃의 位置이다. 그러므로 初位는 第1位로 홀수이다. 陽劃이 位置하는 자리이다, 中位는 第2位이므로 숫자가 2로 짝수이다 陰劃이 位置하는 곳이다, 第3位는 홀수이니 陽劃의 位置하는 자리이다. 兌卦는 卦體가 ䷹로써 初位가 홀수이니 陽劃이 위치하여 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中位인 제2위는 숫자가 2로 짝수이므로 陰劃이 자리하여야 하는데 陰劃이 아닌 陽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陰陽의 배치원리대로라면 당연히 陰劃이 位置하고 있어야 하는데 陰劃이 아닌 陽劃이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즉 小人의 柔劃이 있어야 할 곳에 君子의 剛劃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小人의 道가 지배하는 낮은 품격의 卦가 되어야하는데서 벗어나 君子의 道가 행해지는 높은 품격의 卦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심에서 얻음이 있음이니 中에서 剛을 얻은 것이다.’¹⁶⁹⁾ 라는 말인 것이다. ‘밖으로는 스스로 풀어놓은 모습이니, 上位에 一陰이 그것이다. 그 象이 悅인 것이다.’ 라는 것은, 中位에 위치하여 卦의 중심노릇을 하고 있어야 할 陰劃이 스스로 밖으로 물러나 上位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卦의 位置를 말할 때 第1位를 內라하고, 第2位는 中이라 하고, 第3位는 外라한다. 外는 地境으로 말하면 邊방 시골을 말하고, 地位로 말하면 朝廷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寒地의 낮은 地位를 말한다. 즉 柔劃인 小人이 스스로 중앙에서 물러나 外地에 처함으로써 剛劃의 君子가 仁의 道를 펼치게 되었다, 이로써 천하가 기뻐하는 바이니 그 卦象이 기뻐하는 象이 라는 것이다.

168) “坤基先立 然後復一陽 始有所起 此之謂 天根也 乾之本(곧 바탕으로 먼저 정립되고 그런 후에 다시 하나의 양이 생겨남으로 비로소 일어나는 바가 되었는데 이것을 일러 천근이라 하며 건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三十七卷○周易四箋 括列表).

169) “兌, 說. 若不是剛中, 便成邪媚. … … 說若不剛中, 便是違道干譽(태는 기쁨이다. 만약 중이 강이 아니라면 아첨하는 것이 된다. … … 만일 중이 강이 아니면 도는 따르지 않고 명예만을 구하려드는 것이 된다).”(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5, 1863면).

그래서 ‘兌’에 ‘樂’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說卦傳」의 ‘收穫의 卦’로써 ‘悅’의 뜻이 있다는 것도 있으나, 茶山은 卦의 形態로써 ‘悅’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5) 說字의 生成

說은 말을 함이다.¹⁷⁰⁾

說字는 [言 + 兌] 로 이루어진 會意字이고 字義는 말하다 이다. 言의 字義는 “직접 말하다”¹⁷¹⁾이다. ‘說’의 字義가 ‘말하다’이므로 ‘言’의 字義와 같다. 그러니 ‘兌’는 말하는 기관인 ‘입’을 나타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兌는 說이다. 上位에 갈라진 금이 입과 같다. 말이 나오는 곳이다.’ 이 文句는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 上劃인 --이 입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文句이다. 「說卦傳」에서 “兌가 입이 된다”¹⁷²⁾고 하였다. 즉 ☱兌에는 ‘입’의 物象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卦形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兌’가 ‘說’이라는 것은 物象으로 말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굳이 卦體로써 ‘兌는 說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卦의 形體에서 文字가 生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卦名 兌의 生成

朱子는 『周易本義·兌卦』의 註釋에서, 卦名の 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註釋하였다,

“象에 이르기를 兌는 說이다. 說은 音이 悅이다. 卦名の 뜻을 해석하였다.”

‘兌’가 ‘悅’이라는 것은, 兌卦는 方位로는 西方에 해당하고, 四時로는 가을에 해당하는 卦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사람들에게 수확이 있는 가을만큼 기쁜 계절은 없다.¹⁷³⁾ 그래서 ‘兌’가 ‘悅’이 된다는 것이다.

170) “說 說釋也 從言兌 一曰談說 失燕切又弋雪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3면).

171) “言 언 直言曰言 論難曰語 從口辛聲 凡言之屬皆從言 語軒切”(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1면).

172)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 近取諸身如此.”(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5면).

173) “兌 正秋也 萬物所說也 故曰說言乎兌.”(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662면.)

兌卦의 卦形은 ☱이다. 兌卦는 『易經』의 卦 가운데서 유일하게 ‘悅’의 뜻을 지닌 卦이다. 그러나 ☱의 卦形에는 ‘悅’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를 보면 ‘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는 ‘悅’을 나타내는 符號가 되는 셈이다. 文字가 意味를 나타내는 符號이니 ☱는 곧 ‘悅’의 意味를 나타내는 文字와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는 卦의 文樣으로서 여러 가지의 物象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文字의 기능을 하는 符號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卦의 卦名字인 ‘兌’도 卦의 文樣이 符號로서 文字의 기능을 하는 데에서 文字化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兌字의 草書體인 ‘兌’를 ‘從人·口·八’의 분류대로 분리해 보면 ㄣ · 凵 · ㄨ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를 분리하면 ㄣ · 凵 · ㄨ 으로 분류 된다. 이것을 ‘兌’가 분리 된 것에 대입해보면 ㄣ = ㄣ · 凵 = ㄣ · ㄨ = ㄣ 이 된다. ㄣ이 ㄨ로 변화 된 것으로 본다면 ☱에서 ‘兌’를 類推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簡化字에서 兌는 丷부에 속한다, 丷부에 속한 글자 중에 𠂇字가 있다. 𠂇字는 蘭字의 簡化字이다. 𠂇字가 簡化字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𠂇字에서 蘭字를 類推해낼 수 있겠는가, 이 𠂇字의 例는 어떤 모형에서 類推해 낼 수 있는 모양이 파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든 例이다. 그러나 ☱에서 ‘兌’를 類推해내는 것은 매우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兌’는 卦의 文樣인 ☱가 文字化 되어 卦名字로 生成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IV. 結論

卦를 表記하는 卦名이 卦의 文樣에서 生成된 글자임을 卦名의 字形 및 字義 分析을 통하여 論證하였다. ‘乾은 하늘을 상징한다.’ 할 때 하늘은 ‘天’이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坤은 땅을 상징한다.’ 땅은 ‘地’가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坎은 물을 상징한다.’ 물은 ‘水’가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離는 불을 상징한다.’ 불은 ‘火’가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震은 우레를 상징한다.’ 우레는 ‘雷’가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巽은 바람을 상징한다.’ 바람은 ‘風’이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艮은 산을 상징한다.’ 산은 ‘山’字가 바로 산의 그림이다. ‘兌는 못을 상징한다.’ 못은 ‘池’가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이다. 이와 같이 直接的이고 代表的인 글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乾·坤·坎·離·震·巽·艮·兌 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乾’은 하늘과 다른 여러 가지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坤’은 땅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고, ‘坎’은 물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고, ‘離’는 불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를 表記하는 것이고, ‘震’은 우레와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고, ‘巽’은 바람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고, ‘艮’은 산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을 表記하는 것이고, ‘兌’는 못과 여러 가지의 物象이 들어 있는 卦인 ☱ 를 表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六書에서 象形은 實物을 表現하는 것이고 指事는 概念을 表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象形은 日과 月처럼 實物을 본떠 그려낸 것이고, 指事는 上과 下처럼 概念을 記號로 形象化 한 것이다. 『說文解字』에서 指事는 上과 下 두 字이다. 上이 古文은 丨 이다. 밑의 一은 어떤 基準線이고 위의 丨은 위쪽이라는 表示이다. 즉 위쪽이라는 概念의 形象이다. 下는 古文이 冫 이다. 위쪽의 一은 어떤 基準線이고 아래의 丨은 아래라는 表示이다. 즉 아래쪽이라는 概念의 形象이다. 한편 甲骨文의 上의 字形은 二, 下의 字形은 冫이다. 역시 위와 아래라는 概念을 形象化하고 있다. 이렇듯 文字는 實物을 그려 形象化 하던지 概念을 記號로 形象化 하던지 하는 것이다. 그

렇다면 八卦의 卦形이야 말로 概念을 形象化한 代表的인 記號로 볼수 있다. 實物을 그린 그림이 점차 文字化 하였듯이 概念을 나타낸 記號도 文字化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文字를 創製한다. 즉 어떤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表現하고자 하는 內容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 글자의 뜻을 正確히 알 수 있으면 그 글자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 글자의 뜻을 正確히 알려면 그 글자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 글자의 뜻을 正確히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漢字는 表意文字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글자마다 그 글자만이 가지는 特定한 뜻이 있다. 이것의 本義라는 것이다. 물론 轉注나 假借 또는 引申되어 派生되는 引申義는 二次的인 일로 글자의 創製와는 別個의 문제다.

현재 漢字字典에서의 本義를 規定하는 방법은 대부분 字形에서 類推해 내고 있다. 그리고 字形의 原形은 甲骨文에서 찾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甲骨文에서 字形과 字義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甲骨文에서 本義라고 規定하여놓고서 그 本義대로 쓰인 글자가 많지 않다. 標本이 작아서 전체 甲骨文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는 없겠으나 『殷墟甲骨文實用字典』 0428번부터 0615번까지 총 187字 중 『說文解字』의 本義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許說非本義’라 하고 本義를 새롭게 規定한 字가 13字이다. 이 13字 가운데 스스로 本義라고 規定한 字義를 本義대로 卜辭義에 쓴 글자는 단 3字이다.

甲骨文에서 本義가 쓰이지 않고 借用義가 쓰이고 있다는 『殷墟甲骨文實用字典』의 解說은 甲骨文의 字形分析和 本義規定에 심각한 誤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甲骨文의 本義規定은 대부분 字形을 분석해보고 本義를 類推해내고 있다. 그런데 그 字形分析이 金文과 『說文解字』의 篆文을 根據로 分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演繹的 方法으로 얼마든지 活用할 수 있는 方法이다. 그러나 字形의 分析을 金文이나 『說文解字』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은 字義도 『說文解字』에 依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字義를 『說文解字』에 依存할 수밖에 없어서 甲骨文에서도 本義를 삼았더니 정작 卜辭를 解釋해보려고 하니 本義로 삼은 뜻으로는 解釋이 되지 않으므로 借用義를 만들어서 解釋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說文解字』의 本義와 다르게 獨自的

으로 甲骨文의 本義를 規定하였으면 스스로 規定한 本義대로 卜辭의 解釋도 本義를 使用하여 解釋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스스로 規定한 本義대로 卜辭義를 삼은 글자는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3字에 불과한 것이니 대체 本義規定은 借用義를 만들기 위해 規定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이것은 甲骨文의 形·義 分析이 『說文解字』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甲骨文을 보는 視角이 『說文解字』의 視角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誤謬인 것이다. 文字는 必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文字를 대할 때 基本的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글자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이다. 卜辭를 적어 두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卜辭의 觀點에서 그 글자의 形·義를 分析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卜辭와는 상관 없는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에 비추어서 그 그림자에 맞추려 하니 本義라고는 해 놓았으나 정작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易經』의 卦名도 『易經』의 觀點에서 보아야 그 卦名の 生成關係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說文解字』가 AD.100년에 9,353字를 收錄하여 編纂된 이래 현재 『漢語大字典』에는 54,665字가 收錄되어 있다. 즉 AD.100年에서 AD.1986年까지 45,312字가 새롭게 만들어 졌다. 앞으로도 더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글자가 必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人類文明이 始作되면서 記錄할 必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文字이다. 『易經』이 經書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經書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易經』은 文字를 創製해 가면서 記錄된 最初의 文籍이 된다. 그러므로 漢字의 生成에 관한 端初를 『易經』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本稿는 『易經』에 있는 八卦의 卦名을 文字學的 側面에서 研究한 論文이다.

『易經』은 八卦 外에도 六十四卦가 있으며 卦辭와 爻辭가 있다. 이 六十四卦의 卦名과 卦辭와 爻辭에 쓰인 文字도 文字學的 側面의 研究가 이루어질 必要가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備旨具解元本周易』, 學民文化社, 1996.
- 다산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譯註周易四箋》 소명출판. 2007.
- 原著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周易本義』, 여강출판사, 1999.
- 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2008.
-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繹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 全廣鎭 編譯,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1992.
- 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 梁東淑 著, 『甲骨文字典乙 殷墟甲骨文解讀』, 書藝文人畫, 2005.
- 『四書三經』, 良友堂, 1977.
- 이준영 역해, 『周禮』, 자유문고, 2002.
- 사마천 원저, 김원중 역, 『史記·列傳』, 민음사, 2007.
- 黎靖德 編, 허탁·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청계출판사, 1999.
- (懸吐完譯)書經集傳. 上,下 / 蔡沈 [集傳], 成百曉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1998.
- 琴章泰, 『퇴계학보』 『周易淺見錄』 과 陽村 權近의 도학적 易해석, 퇴계학연구원, 2005.
- 정병석, 『哲學研究』 「周易의 象 模型을 통해본 세계와 인간」, 대학철학회, 2008.
-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
- tool.htpcn.com, 在線康熙字典.
- zh.wikisource.org. 『聖經·創世記』, 維基文庫, 自由的圖書館.
- 李世東, 『朱子 《周易本義》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서근식, 『조선후기실학파의 『주역』 해석방법론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6.
- 황자윤, 『《주역》의 생명사상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9.
- 이유희,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주역》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7.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top left corner. It features a circular emblem with a stylized flame or sunburst design in the center.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inner edge of the circle, and "JEJU 1952" is written in the center. Below the circle,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is visible.

abstract

(A) Study of a divination sign a title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of I Ching

Yang, Seong-Ewi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 study about the character creation of the Qian, Kuen, Kan, Li, Jen, Shiun, Gen, and Den as a divination sign a title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based on the theory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which one of the theories of the origin of the Chinese Characters.

Pictographs express the real thing and self-explanatory characters express the notion from the six categories of the Chinese Characters. Thus, pictographs copy the real thing like the sun and the moon, self-explanatory characters symbolize the notion like the up and down. By the same token, the characters copy the real thing and symbolize the concept. Therefore, a divination sign a title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is regarded as the typical symbol which is the figuration of the notion. We recognize that the shape of the symbol about the concept put into writing like as the picture copying the real thing put into writing little by little.

Characters are created. In other words, the creation of a character makes a

character that expresses content. Accordingly, we get to know the reason of the creation of the character, if we know exactly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in the presence of the character. On the contrary of this, if we want to know exactly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we will get to know exactly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when we know the reason of the creation of the character. If we trust that I Ching is the oldest thing of the Chinese classics, we realize that I Ching is the first written book in the midst of the creation of the characters. Thus, this study tried to find a clue from a divination sign a title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based on the theory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of I Ching about the cre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Chapter I, this study described the purpose and the means of this study. In Chapter II, this study establishe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in I Ching and the relation of the creation of the Qian, Kuen, Kan, Li, Jen, Shiun, Gen, and Den by the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the dictionary and references about the divination of the sign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cluded the demonstration about the creation of the divination of the sign.